

이 인쇄물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자료집

속초의 역사와 이해

정상철



속초문화원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자료집

속초의 역사와 이해

정상철



속초문화원

발간사

정상철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의 “속초의 역사와 이해” 집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속초의 뿌리를 되돌아보며 속초의 가치를 이해하고 되새기는데 있어 매우 훌륭한 지침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틀이나 형식을 가급적 배제하고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여 주신 저자(著者)의 배려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자는 속초가 과거 양양에 속한 작은 마을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속초의 뿌리는 변방(邊方)의 하찮은 그것과 다름없다고 폄하(貶下)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위원이 다양한 자료들과 고증, 연구 등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켜줍니다.

‘구석기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속초의 발자취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해방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그 긴 세월의 방대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지니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속초의 역사, 그리고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초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그리고 주인의식을 느끼고 심어주는 귀중한 매개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초지역의 옛 지명과 변천과정’편에 언급되어 있는 영금정, 외옹치, 조도 등은 우리 속초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이기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속초의 뿌리와 문화재생’편에 실린 ‘도문(道門) 명명설화(命名說話)’에는 천년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도문리(道門里) 마을 이름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에 얹힌 설화에서 유래되어 신비로움이 더해집니다.

저자가 ‘글쓴이의 감사말씀’에서 밝혔듯이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속초에 대한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지적(知的)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학문적 접근과 연구의 범주를 넘어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자료 조사와 현지답사, 그리고 각 종 관련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은 그 분들의

열정과 속초를 사랑하는 주인의식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일상에 묻혀 무심코 지나쳐왔던 속초의 뿌리와 역사를 다시금 생각하게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소중함을 심어주는 정상철 연구위원의 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 많은 분들이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설악(雪嶽)에 눈이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속초의 겨울이 시작될 모양새입니다. 모두에게 솜털 닮은 힘박눈만큼이나 푸근한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십팔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속초문화원장 김 계 남

글쓴이의 감사말씀

정상철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속초!

그 옛날 양양도호부 ‘도천면의 1개 리에 불과했던 ‘속초리’가 세상풍파를 거치며 ‘도천면’을 대신 하는 ‘속초면’이 되었고 ‘속초읍’을 거쳐 ‘속초시’가 되었다.

‘관광도시로서의 속초’를 말하자면 문헌상으로 관광명소가 된 것은 신라화랑 ‘영랑(永郎)’이 지금의 영랑호수에 수련했던 것을 기원으로 고려시대 안축(安軸)이 강릉도존무사(조선시대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영랑호를 유람하여 ‘동유기(東遊記)’를 남긴 것이 큰 요인이 되었으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속초를 유람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역사 · 문화도시로서의 속초’를 말하자면… 속초의 역사는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된다.

나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역사가 곧 속초지역의 역사가 된다.

나,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증조할아버지, 나의 고조할아버지, 나의 현조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보면 나의 조상은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남북국시대, 원삼국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 구석기 시대를 통해 살아남아 인류의 근원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속초에는 역사 · 문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초의 역사는 박익훈 선생님, 故오윤근 선생님, 현대극단 故김정우님, 주상훈 선생님, 최현식 前문화원부원장님, 한정규 前문화원사무국장님,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 정양언 강원도립대학교 교수님, ‘속초학’을 주장하시는 이춘복 선배님, 이수영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엄경선 설악닷컴 대표님, 정종천 시립박물관 학예담당님, 김만중 학예연구사님 등 속초를 사랑하는 향토연구가, 사학자들이 집필한 수많은 향토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일반 시민들의 자료접근이 어려운 까닭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변명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상철(鄭尙喆)

- 1971년 4월 4일생
- 1987. 3~1990. 2 : 속초고등학교 졸업
- 1990. 3~1997. 2 : 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1996. 7~2002. 6. 23 : 여러 가지 인생을 배움
- 2002. 6. 24~현재, 속초시청 근무
- 속초를 위해
- 2011. 7~2013. 6 : 국가기록원 제1기 민간기록조사위원
- 2011년~ 현재 : 속초시문화원 향토사연구연소 연구위원
- 2013. 7~ 현재 : 국가기록원 제2기 민간기록조사위원
- 2017. 9. 17 : 강원도 속초마을선생님 위촉(강원도교육청)
- 관내 고등학교, 평생교육센터, 문화원, 박물관 등 출강

속초지역사람들은 속초지역에 살면서 많은 역사와 우여곡절을 일궈내고 겪어왔다.

간략하게 적자면 조양동 선사유적지, 향성사, 향성사지3층 석탑, 노학동 무당골 3층 석탑, 신라화랑의 수련장, 외옹치 장승, 고려 속초리 성지 축조, 권금성, 덕산봉수, 속초포, 신흥사 개창, 영금정 파괴, 청호동 방파제 축조, 친일파, 인공치하, 군정실시, 민주화, 시 승격 등….

사실 이 책에 실린 여러 글을 쓰면서 필자는 인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속초에 대한 역사자료는 길게는 삼국사기, 태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대동지지, 현산지, 강원도 양양군읍지 등이며 짧게는 조선총독부 관보, 국가기록원 등에 존재하지만, 속초가 동해안 변두리다 보니 그 자료의 양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되는 자료라 할지라도 글의 목적에 맞춰 최대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거창하고 유명한 글은 아니지만, 속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속초의 역사와 이해』책을 발간해 주신 속초문화원 및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2월 일

정상철 올림

글 실는 순서

발간사	2
글쓴이의 감사말씀	4
1. 속초의 뿌리와 문화재생	7
2. 세종 · 세조실록의 속초포(東草浦)와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비정 연구	23
3. 속초리성지(東草里城址) 소고	43
4. 속초지역의 옛 지명과 변천과정 -비선대, 외옹치, 조도를 중심으로	71
5. 송시열과 속초	89
6. 청초호의 정자 – 침산정과 청초정	111
7. 후릿그물이야기	127
8.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과 속초역(東草驛)	135
9. 마을이야기	
9-1. 속초(東草)의 탄생 및 ‘동명(洞名)’의 유래	139
9-2. 속진리(束津里)를 아시나요?	143
9-3. 속초지역 최고(最古)의 마을 도문리(道門里)	146
9-4. 속초 외옹치	149
9-5. 조양동(朝陽洞) 온정리(溫井里)	152
9-6. 달이 뜨는 마을 부월리(扶月里)	155
9-7. 노학동의 전통부락들	160

속초(束草)의 뿌리와 문화재생

1. 속초는...

흔히들 ‘속초(束草)’는 뿌리가 없는 도시이며, 옛날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의 일개 리(里, 속초리)에 불과했으며, 뿌리가 없다보니 전통문화가 없다’고 한다. 단순히 지명(地名)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다. ‘실향민 도시’, ‘관광도시’, ‘수산도시’라는 별칭이 속초를 표현하는 대표명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적 개념으로는 현재 ‘속초’라는 지명은 양양도호부 소속의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 지역 전체(1914년 이후 도천면으로 통합됨)를 아우르는 도시의 이름이다.

양양고을의 하나의 리(里)에 불과했던 ‘속초리’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시절 속초항 개발과 활발한 수산업의 영향으로 빠르게 인구가 유입되어 당시 도천면의 대표 동네였던 ‘대포리’를 제치고 “속초리”의 “속초”가 이 지역의 대표 지명(代表地名)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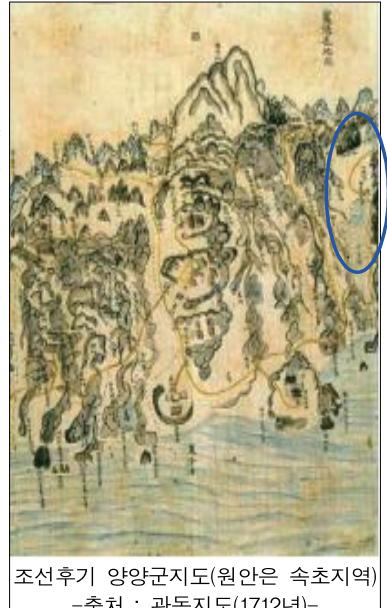
속초의 발전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농업과 어업이 중심 산업이던 옛날, 1871년에 편찬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 따르면 도문면과 소천면의 인구는 모두 1,207명인데 1925년 『국세조사보고(國稅調查報告)』에는 6,219명으로 1935년에는 8,967명으로 늘어났고, 1937년 속초항 개발이후 1945년에는 12,450명으로 1871년보다 약 10배가 넘게 늘어나게 되었다.

1958년 속초는 오징어와 명태 어획고가 부산 다음으로 전국 2위의 어획고를 올리면서 전국의 어부들이 속초로 몰려들어 1958년 31,435명, 1963년에 50,703명, 1973년에 74,484명, 2000년 90,201명으로 인구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에 의해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1973년에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沙津里)가, 1983년에는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上福二里, 지금의 장재터 지역 일부)가 각각 속초시로 편입되어 현재의 속초시가 되었다.

2. 옛날 속초는...

우리나라 사학계 주류가 문헌고증(文獻考證)을 통한 실증사학(實證史學)이다 보니 각종 문헌이 부족한 지역, 특히 속초로서는 역사 밖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된 각종 유물을 통해 그 역사를 가늠해 볼 수밖에 없기에 속초시의 역사를 바로



조선후기 양양군지도(원안은 속초지역)
-출처 : 관동지도(1712년)-

알기 위해선 그 옛날 양양군 도천면과 소천면 지역의 각 시대별 발굴 유물 등을 통해 전반적인 역사의 흔적을 개략적으로나마 알아야한다고 생각된다.



2-1. 신석기시대~ 철기시대

우선 속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舊石器)시대부터이다. 청호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부지 발굴조사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층과 철기시대~삼국시대 주거지를 발굴되었는데, 약 15,000년~10,000년 전 사이에 해당하는 후기 구석기시대 유물 5,000여 점이 출토되었으며, 인류가 사용한 흔적이 있는 문화층은 고속버스터미널 앞 7번국도로 이어지고 있다.

대포동 외옹치에 롯데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했던 지표조사에서는 신석기(新石器)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기원전 5,500년경으로 추정되는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이 유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양양 오산리 유적(사적 제394호, BC 6,000 ~ BC 3,000여년)’, ‘고성 문암리 유적(사적 제426호, BC 6,000 ~ BC 3,000여년)’들과 유사한 문화상을 지닌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 청동기(青銅器)시대의 거주흔적은 청초호 서쪽편 낮은 구릉에 위치한 조양동 선사유적지(BC 700 ~ BC 800)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곳에서 ‘7채의 움집터’와 ‘2기의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그 중 고인돌에서 발견된 부채꼴 모양의 ‘청동도끼’-한자로는 ‘선형동부(扇形銅斧)’-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어 이 지역 선사 문화 연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3호 집 자리에서 출토된 ‘굽손잡이 그릇’은 우리나라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인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에서도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말과 청동기시대 초기까지 동북지방과 강원 영동지역간의 문화교류를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에 수많은 선사유적이 있지만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나 아니나’에 따라 국가사적(國家史蹟)으로 지정되는데, 조양동 선사유적지는 이 ‘청동도끼’와 ‘굽손잡이 그릇’의 발견으로 인해 1992년 10월 10일 「국가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었다. 조양동 청대리와 장사동에서도 방주(실을 뽑기위해 사용하던 도구) 등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구석기 유물이 출토된 청호동 아이파크 아파트 부지에서도 철기(鐵器)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어 속초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2. 남북국시대(구. 통일신라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일컫는 3국 시대에는 속초지역에서 시대를 명확히 구분한 유물이 출토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산 59번지에서 출토된 고구려계통의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관 고리’ 7점을 유추해 볼 때 이 지역이 4~6세기 고구려 영토이었을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었음을 가능하게 한다.

통일신라기 ‘도문면(道門面)’의 ‘도문(道門)’에 대한 명명설화(命名說話)가 있다. 원효대사(617~686)와 의상대사(625~702)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던 중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 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지팡이를 멈추고 서 있다가 훌연히 크게 도를 깨달아 이때부터 이곳을 도가 통하는 문이 열린 곳이라 하여 ‘도문(道門)’이 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것이 650년이니, 비록 설화이지만 도문이라는 지명은 속초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이 된다. 그만큼 설악산을 위시한 이 지역이 불교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 자장율사(590~658)는 현재의 켄싱턴호텔 자리에 ‘향성사(香城寺)’를 창건하였다. 하지만 신라 효소왕 7년(698)에 모두 불타 버려 효소왕 10년(701)에 의상대사가 능인암(현재의 내원암) 자리에 절을 다시 짓고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다.

선정사는 조선 인조 20년(1642)에 또 다시 화재가 나서 완전히 소실되는데, 인조 22년(1644)에 영서(靈瑞), 혜원(惠元), 연옥(蓮玉) 등의 스님이 선정사 아래쪽에 절을 짓기 시작하여 1649년에 완성, 이름을 ‘신흥사(神興寺)’라 하여 지금에 이른다. 신흥사는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탄 고성 건봉사(乾鳳寺)를 대신해 한국조계종 제3교구 본사가 되었고, 1995년 ‘神’을 ‘新’으로 바꿔 지금의 ‘신흥사(新興寺)’가 되었다.

또한 ‘영랑호’는 신라 화랑 중 ‘영랑[永郎, 효소왕(孝昭王) 692~702 때 인물로 추정]’이 우리 지역을 거쳐 금강산수행을



향성사지 출토기와

가다가(혹자는 금강산수행 후 돌아오는 길이라고도 함) 한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수일간 머물렀던 계기로 ‘영랑호(永郎湖)’라 이름 지어졌는데, 이후 각 왕조를 거쳐 안축(고려), 정철(이하 조선), 허목, 송시열, 김창흡, 김시습, 채제공 등 유명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비들이 다녀가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영금정’ 또한 신라 화랑 영랑이 백제신녀(百濟神女) 보덕(寶德)과 함께 가야금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 불려진다는 설이 있다. 화랑 영랑과 보덕의 사랑이야기는 국선도(國仙徒)에 전해지고 있다.

화랑 영랑(永郎)의 ‘실존 인물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학자들도 있지만, 최근 학계에 알려진 울산광역시도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서석(書石)의 명문에 ‘□술년 6월2일 영랑성업(□戌年六月二日永郎成業)’이라 한 것이 보이고 있어, 그가 화랑으로서의 수련기간을 마친 것을 기념한 각문(刻文)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영랑이 바로 효소왕 때의 영랑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2-3.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동명동에서 12~13세기 전후에 여진 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400여m의 대규모 성터[일명 속초리 성지(束草里 城址)]가 발견되었는데 ‘천경3년(天慶3年, 요나라 연호)’과 ‘관사(官舍)’라는 명문이 새겨진 명문기와를 통해 1113년(고려 예종8년)경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천경3년(天慶3年)이 찍힌 명문기와는 양양 ‘둔전사지’와 설악산 ‘권금성 산성’, ‘양양읍성지’에서도 출토되어 당시 이 속초리 성지의 축성이 당시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이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최근 동해안 지역 성곽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라시대와 남북국시대(발해, 신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곽들이 현종 2년(1011년)부터 숙종 2년(1097년)까지 약 80여 년 동안 20여 차례 동여진의 침략이후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동해안에 침입하는 외적들을 막기 위해 축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교동 택지개발 시(1984년) 발견된 만천동의 한 고분에서는 14세기 말로 추정되는 청자그릇(청자상감우점문완)과 청동 수저가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수준이 높아 이 고분을 통해 속초 지역에 세력가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유물은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 중인데, 우리 지역의 귀중한 유물이 타 지역 박물관 수장고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썩혀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하루 속히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선왕 1년(1309)에 제작된 북고성의 ‘삼일포 매향비(三日浦埋香碑)’ 비문에는 ‘미륵의 하생(下生, 불보살이 천상계로부터 인간세계로 태어남)’을 위해 강릉준무사(현 도지사급) 김천호, 양양부사(襄陽副使) 박전 등이 모여 양양 덕산망(德山望, 지금의 외옹치 정상)등에 향나무 200그루를 심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埋香碑	高城
高城四仙峯埋香碑云高麗國江陵道存撫使金天皓知江陵府使朴洪秀判官金光寶襄州副使朴璵和州副使鄭祿通副使金用卿歐谷縣令成乙匡杆城縣令邊裕三陟縣尉趙臣桂尉珍縣令權倫旌善監務朴椿等與諸輩尊卑曰發誓願奉	
二千五百株埋於各浦以待龍華會主彌勒下生曰生會下供	
養三寶云大元至大二年己酉八月日道人志如刻板	
平海海崖洞埋千株三陟孟方汀埋二百五十株江陵正東埋	
三百一十株襄陽德山望埋二百株洞山縣文四汀埋二百株	
杆城公須津埋一百一十株歐谷短木里埋一百一十株押戎	
醴陽浦口埋一百二十株	

노학동 무당골에는 고려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학동 3층 석탑(우측사진)’이 있는데 1층 탑신 4면에 부처가 새겨진 ‘사방불(四方佛)’이 있다. 영동지방의 석탑 중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된 탑은 ‘노학동 무당골 3층 석탑’과 함께 양양 ‘진전사지(陳田寺址) 3층석탑’, 강릉시립박물관에 보관중인 ‘석탑재(石塔材)’뿐이며, 희귀성으로 인해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2-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 속초(束草)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태종 6년 이전에 이 지역에 ‘속초포(束草浦)’라는 정4품(현재의 서기관급) 만호(萬

戶)가 다스리는 수군기지인 ‘수군만호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속초리 성지’와의 연관성과 더불어 외옹치에 설치된 ‘덕산봉수(德山烽燧)’와 함께 속초가 중요한 군사기지였음을 알려주는 군사유적이다. ‘덕산봉수’에 대한 기록도 조선시대에 들어와 문헌에 나타나는 반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면세일반》에는 ‘덕산봉수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동지지》에는 ‘청초호에 고려 때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좀 더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덕산봉수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최소한 고려 때 설치된 것이 확실한 속초리 성지와 속초포, 덕산봉수의 역사가 고려이전까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흥왕 568년 10월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지금의 북고성군에 달흘주(達忽州)를 설치할 당시 간성과 양양지역을 국경방어지역으로 각종 방어용 군사시설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인한 제2차 예송에서 송시열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한 ‘예송(禮訟)논쟁’의 책임으로 1675년 5월 25일 함경도 덕원(德源)으로 유배 갔던 우암 송시열의 유배행렬은 장기(長鬚)로 변경되어 이배(移配)되는 과정에서 장사동 고개를 넘어 영랑호 근처에 다다른다. 영랑호(永郎湖)의 경치에 매료되어 한참을 생각하다 근처 바위에 글자를 새기는데 영랑호(永郎湖)라 썼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영랑호(永郎湖)의 한자는 ‘밝은 랑(朗)’이 아닌 ‘사내랑(郎)’을 쓰는 영랑호(永郎湖)이다. 우암의 제자인 《유풍악기(游楓嶽記)》의 저자 김유(金柔, 1653~1719)도 이 상황을 그의 글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어찌 이런 뜻이 있겠는가(豈有其意歟)?’하며 한탄하고 있다.

즉, 유배 길에 깃든 우암의 마음은 비록 자신의 현재 신세는 보잘것 없이 변해버렸지만, 내일(성군)에 대한 희망(다시 불러줌, 빛)이 가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우암이 지은 시문에서 빛(희망)을 광(光), 화(火), 명(明)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암은 영랑호 ‘랑(郎)’의 뜻을 빌어 ‘밝을 랑(朗)’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또한, 영랑호를 지나간 후에 비를 피하기 위해 들린 물치촌((勿淄村)의 한 양인(鄭立)집의 기둥에 씌여진 ‘물치주시(勿緇柱詩 – 우암을 조롱한 글, 인생무상)’ 일화와도 연관되는데, 우암의 시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에 전해진다.

이후 송시열 선생을 숭배한 물재(勿齋) 유희일(柳晦一)이 내물치리에 은둔하면서 생활하였으며, 양양유림은 ‘향현사(鄉賢祠)’라는 향사(鄉祠)를 지어 그를 추모하고 제사지냈다.



우암 송시열이 쓴
영랑호(永郎湖)
각자

1869년 동학의 제2교주 최시형은 양양에서 2년간 체류하면서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양양지역에서 동학이 큰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양양은 보수적인 곳이었고 당시 유림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동학전쟁시 양양에서는 도문면 출신 이석

범·이국범 형제가 민병(民兵)을 조직하여 동학군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2-5. 일제강점기

1914년 3월 1일 전국의 부·군·면 통폐합조처(부령 제111호, 1913. 12. 21 공포)에 따라, 고성군(지금의 북고성)이 간성군에 흡수통합되어 간성면, 죽왕면, 토성면, 고성면, 신북면, 수동면 등 9개면으로 구성되었다가, 같은 해 5월에는 간성군(杆城郡)을 폐지하고, 다시 고성군으로 개칭하였으며, 토성면과 죽왕면을 양양군에 편입시켰다.



1919년 양양군의 3·1만세운동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만세운동이었고,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당시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4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되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유학계의 거사 계획은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의 이석범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석범은 보수 유학계의 지도자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석범은 고종 황제의 인산에 참례하고 돌아오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동생 이국범, 아들 이능렬(李能烈, 재범)과 함께 쌍천학교 졸업생들을 시켜서 만세운동을 거행하게 하였다.

도천면 논산리에서도 약간의 시위(?)가 있었다. 4월 4일부터 계속 만세 시위가 일어나 논산리에서도 시위에 대한 대의명분론(大義名分論)이 일어났다. 온 천지가 만세 운동에 참가하는 상황이어서 당시의 구장 김주철(金周哲)은 뜻있는 주민들과 함께 집집이 한 사람씩 동원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있던 대포리를 목적지로 하여 큰 길로 나아갔다. 큰길인 부월리를 거쳐 대포리로 가기 위해 부월리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를 예상한 도천면 사무소 회계서기 김우규(金宇圭)가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우규의 강력한 만류로 대포리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해산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 청초호가 항구(港口)로 개발됨에 따라 그 당시 바위산이었던 영금정의 바위를 깨서 청초호로 실어 날라 방파제를 만들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에 인접한 '속초리'가 점점 커져서 1937년 7월에는 도천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동시에 면(面)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어, '속초'는 동리(洞里) 이름이면서 또한 면(面)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확대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양양군의 읍치

(邑治)인 양양면(당시 군내면+위산면+부남면)대신 ‘속초읍(束草邑)’이 되었다.

이때부터 속초읍민과 속초이외의 양양군민들과의 감정이 대립되기 시작한 것 같다. 지금도 양양군민들 중에는 ‘속초가 양양도호부의 1개 리(里)에 불과했던 주제에..’라고 푸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2-6. 광복이후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미·소 양군은 북위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 지역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간 속초 지역은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무상몰수(無償沒收) 무상분배(無償分配)의 토지개혁을 위시한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반공(反共)인사들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반공 계몽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속초 애국 동지회사건」, 「90인 사건」,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 등 공산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무장활동이 전개되었다.

3. 그런데 속초사람들이....

유물이야 운 좋게 출토되면 세상에 빛을 보는 것이지만,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양양·간성지역에 세거하던 주요성씨 중 강릉 김씨, 강릉 최씨, 경주 김씨, 경주 이씨 분들의 족보기록을 보면 대부분 강릉→양양→간성으로, 또는 강릉→간성→양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가 많다. 강릉사람이었다가, 간성사람이었다가 양양사람이었다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지역을 옮겨 다닌 것에 불과하며 결론은 같은 집안이다.

속초지역에 세거하는 성씨의 족보자료를 보면 최초 1500여년 경부터 여러 성씨들이 이 지역에 살았는데, 상도문리에는 해주오씨, 밀양박씨, 강릉박씨, 강릉김씨, 경주김씨, 함평이씨 등이, 하도문에는 연일 정씨, 경주 이씨 등이, 부월리에는 경주 이씨, 제주 고씨 등이, 논산리에는 진양 진씨 등이, 청대리에는 단양 장씨 등이, 노리에는 전주 이씨, 연안 차씨, 조계 정씨, 진주 강씨 등이 세습해 살아온 걸로 나타난다. 물론 일반 양인(良人)들도 성(性)을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은 곧 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어느 지역이던 간에 한 지역에는 양반, 중인, 양인, 노비가 공존해 왔다. 평등의 시대인 지금 너와 나의 조상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4대 신분의 사람 모두가 이 지역의 역사를 가진 원주민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속초지역 원주민들의 한 맷힌 역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치하 [(이하 인공(人共))], 그리고 군정시대(軍政時代)를 거치면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우여곡절’이란 시대(時代)와 사상(思想)이 바뀌면서 ‘일부 지주(地主, 일부 양반과 일부 부자 양인)과 보통사람(일부 양인과 일부 소작농) 등 사이에서의 권력의 쟁탈’을 의미한다.

다만, 속초지역을 이끈 일부 주도세력들의 이야기지 모든 속초주민 모두가 권력쟁탈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속초지역내의 몇 안 되는 지주(地主)들 중 일부가 면협위원(面協委員), 애국반(愛國班),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등의 친일단체(親日團體)의 주체 또는 간부가 되어 일제의 탄압에 동조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려왔다. 또한 속초에서는 유일하게 마을전체가 일제에 동조한 곳도 있었는데, 동아일보 1937.09.14일자 기사에 따르면 ‘모리(某里) 부인회에서 일본이 태평양전쟁 준비 중인 1937년 09월에 자기 동네 남자들이 현금하겠다고 노동하는 것을 보고 생산된 감자를 갈아 속초시장에 내다팔아 일본군의 중일전쟁 승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현금을 하였다고 하는데. 말이 좋아 마을전체 주민이지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친일파는 반대로 좌우연합 사회운동단체인 신간회(新幹會) 양양지회(襄陽支會)를 결성하여 기회주의 배격, 농민 의식개혁, 항일운동 진상규명 등을 통해 일제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광복이후, 양양지역 남쪽 현북면 기사문리 인근에 38선이 그어지면서 속초와 양양 일부지역이 북조선의 인민정부에 예속되게 되었다. 이 지역 청년들에 의해 ‘호산 청년회’, ‘양양 청년동맹’ 등의 조직단체가 결성되어 양양지역의 사회주의 전파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또 하나가 농민조합운동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사회에 적대적인 주민들이 양산되었는데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붉은 패’와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흰 패’가 있었다. ‘흰 패’는 주로 지역의 유지들이었는데 이들은 서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물과 기름’처럼 대립하고 있었다. 모든 재산이 국유화되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미명하에 일부 농민과 소작농들이 주를 이룬 적색동맹(赤色同盟) 등의 ‘친 인공단체’가 주된 세력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동조하여 속초를 지배하였던 일부 세력들은 숙청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타 지방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양양 조산리 출신인 최용달(崔容達)은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하여 광복이 되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1948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기초하였을 정도로 양양지역의 사회주의 노선은 일제강점기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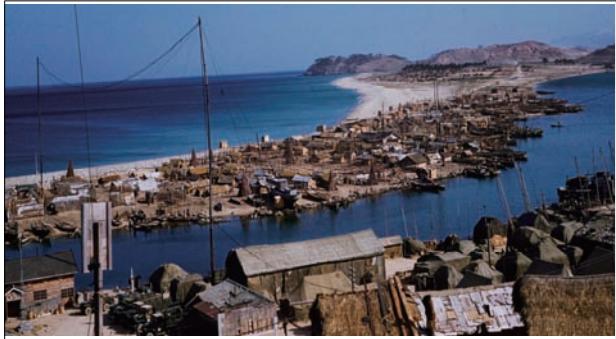
1950년 한국전쟁(6.25) 발발이후 1951년 7월부터 속초는 남한의 영토로 수복(收復)되어 미군주도의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다. 민주주의를 모토로 하는 미군으로 인해 당시 인민위원장, 적색세포위원장, 농민동맹위원장 등 친공산주의 단체의 주역들은 북으로 도망가거나, 숙청당하였다. 반대로 북조선은 전쟁도발 이후 북조선에 있던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1945년 11월 북한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우익정당), 청우당[青友黨-천도교도(天道教徒)로 이루어진 종교정당, 지금도 존재하며 현재는 북한 노동당의 우당역할을 함] 등의 반공인사나 관련주민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38선을 통해 북진하는 한국군(1950)
출처 : 양양문화원

필자의 조부 故정태현[鄭泰賢 (1913~1998), 동명동 지명 작(作)]도 광복이후 인공당시의 속초에 거주하면서 속초지역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 사무국장(조부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속초읍 민주당 위원장은 김해수)을 역임하다가 6.25 한국전쟁이 터지자 조선민주당원 몰살 소식을 듣고 경북 울진까지 피난 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1·4후퇴 때 북조선의 만행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갔던 북한주민들은 한국군의 북진행렬과 더불어 다시 고향인 북으로 향하다가 서서히 청호동(青湖洞)지역에 일정한 집단 거주공간을 형성하였다. 실향민들이 지금의 청호동(아바이 마을)에 집단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미군정 시기이다. 당시 속초주변에는 군수부대, 미군부대 및 한국군 부대 등 많은 부대들이 창설되었는데, 많은 노무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무 일을 지원하거나 어업에 종사해서 함경도 해안 지형에 익숙하기에 첨보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였다고 한다.



1950년대 속초 아바이마을 전경 ※ 출처 : 속초시박물관

피난민들의 탈출 러시(rush)는 대부분 어선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배를 이용하기 위해 배를 손쉽게 댈만한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청호동이다.

당시 청호동 사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어서 임시 거주공간으로 적당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과 큰 갈등 없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후 동향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신포마을, 영흥마을, 단천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농업이 발달했던 남한과는 달리 중공업·수산업 등이 발달했던 북한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은 당시의 지식을 활용하여 속초의 중요산업, 행정, 교육, 상업 등 다방면에서 속초지역의 중심 죽이 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속초읍사무소의 직원, 사환 등이 되어 행정에 합류하고, 교사가 되어 교육계에 투신하고, 속초치안대에 합류하여 경찰력의 주축을 이루기도 하였다.

함경도 북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지금의 금호동사무소 건너편에 '북청회관'을 건립하여 그리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북청사자놀음'을 공연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속초의 행정영역, 문화영역 등을 장악한 실향민들은 무주공산(無主空山)상태인 속초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와 인공시절(광복 후 수복되기 전까지), 군정(한국전쟁 이후)시절을 거치면서 정치, 행정, 문화 등의 영역에서 속초지역을 이끌어가던 원주민들은 사라지고 실향민들이 들어와 속초를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이세진(한국외대 교수, 도문동 출신)은 “1930~1950년대 수복지구 마을의 국문화 과정(속초시 A리·양양군 B리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석사논문, 한국

외대)을 발표했다.

4. 속초의 전통은..

강원도 ‘농산노동요(農產勞動謡)’로서 ‘김매기 소리’는 춘천, 삼척, 양양, 속초일대에 전승되는데 그 중 하나가 ‘도문 메나리 농요’이다. 도문동과 노학동 지역은 ‘도문 평야’와 ‘소야평야’가 있어 농업이 주를 이루는 마을이다. 추석 때가 되면 배나무골(지금의 노학동 도리원)에서는 ‘풍년놀이’, ‘도리원 농악’과 만천동에서는 ‘광대놀이’를 하면서 달맞이를 하고 놀았다고 한다.



< 도리원 농악대 공연(1950년대 말) >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어망추나 뼈낚시, 끌음식 낚시, 창끝 등으로 미루어볼 때 속초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활발한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노동집약적 어업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산 노동요’이다. 장사동이나 대포동에는 ‘다리어’, ‘에라솔 가래라솔’, ‘배끼어라 보자’ 등의 노동요 후렴구가 아직까지 전승된다.

겨울에 청초호가 얼게 되면 그것을 보고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다. ‘용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청초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호수 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을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용이 얼음을 남쪽으로 갈아 놓거나 북판만 갈면 이듬해는 ‘풍년’, 북으로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면 ‘평년작’이라고 점친다. 이러한 용경풍속은 조선시대 읍지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는 지역 원주민들이 ‘논뫼호’라 불렀는데, ‘논뫼’는 ‘논산리(論山里)’를 뜻하므로 ‘논산리 앞의 호수’라는 뜻이다. 전하는 말로는 조선 숙종 때부터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뫼호에 꽃배를 띄우고 놀았다고 하는데 ‘낙화유(落火遊)’라 부르는 불꽃놀이가 행해졌다고 한다. 8년 전 속초시에서 추진했던 『불꽃축제』의 기원이기도 하다.



외옹치리 <솟대>

대포동 외옹치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을 솟대와 함께 마을입구에 세우는 ‘장승 세우기’와 성황제인 용신제(龍神祭)로 구성되어 부락제(部落祭)의 고유한 모습을 전승시킨 『외옹치 고풀이』라는 전통 민속행사가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다.



장사동 <든대질 놀이>

그밖에 ‘나룻배 싸움놀이’[지금의 청호동 갯배나루는 30m 뿐이 안되지만 옛날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리 싸릿재(싸리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는 대포동에 이르렀다.], ‘든대질 놀이’(배를 진수할 때

부르는 집단노동요), ‘좀생이 보기’[2월 6일에 좀생이라는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침.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에도 기록되어 있음] 등 속초는 수많은 전통과 세시풍속이 존재하는 고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지역의 전통은… 원주민의 전통은… 현대식 놀이, 세대의 변화 등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옛 전통은 사라지고 지금은 피난민들이 가져온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의 대표 전통문화가 되어버렸다.

5. 지금의 속초사람, 지금의 속초를 위해서…

풍문에 의하면 속초인구의 출신도별 구성 비율을 보면 전라도 30%, 경상도 30%. 충청도 20%, 이북출신 10%, 원주민은 10%라고 한다. 현재인구 8만 3천 명 중 10%인 8,300명만이 속초 원주민이라는 얘기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이 지역의 전통을 원주민들의 후손들조차 생소한데,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아예 그 전통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이다. 10명중 9명이 모여 속초가 뿌리가 없거나 전통문화가 없는 도시로 얘기한다면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본 글의 의도가 속초의 원주민과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분리·차별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록 태어난 곳은 다를지라도 지금은 속초에 주소를 두고, 속초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엄연한 속초시민이 아닌가?

‘북청사자놀음’을 제치고 ‘도문 메나리농요’, ‘배나무골 풍년놀이’, ‘만천동 광대놀이’를 속초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되살리자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의 대표적 관광문화상품이 아닌가?

일제강점기 시절의 속초 주도세력의 교체!

인공치하 시절의 주도세력의 교체!

미군정 시기의 주도세력의 교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마을의 주민들은 아직도 옛 기억에 대해 ‘쉬! 쉬!’하는 경우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가족사일 수도 있다. 1981년 연좌제(緣坐制,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폐지된 것이지 2000년대까지 만해도 강제 납북된 사람의 친인척은 공직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대포동에 모씨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장교로 나갔었고, 그의 동생은 동해 어로한계선에서 명태를 잡다가 납북되어 귀환된 후, 안기부에 잡혀갔다가 풀려났는데… 무슨 귀신이 쓰였는지 술만 퍼 마시다가 만 30세가 되지도 못해 저세상으로 갔다고 한다. 납북되어 인민군 장교였던 형을 만났던 것이 아닐까? 당시는 억울하게 납북되었다 돌아오면 간첩으로 모는 서슬 퍼런 시대였으니… 지금도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강제 납북된 후, 다시 돌아왔다가 간첩으로 몰려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까지도 투쟁(?)중인 분들이 주위에 많은 실정이다.

경기도 파주, 포천, 연천, 가평, 화천, 인제, 춘천 산북면, 양양 현북면 등 38선 이북지역의 수복지역(收復地域) 사람들은 속초 사람들과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지금의 사람들은 ‘자유(自由)’라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현실을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옛날 분들은 알 것이다. 무엇이 좋은지를...

요즘 ‘도시재생(都市再生)’이라는 문화트렌드(trend)가 한창 뜨고 있다고 한다. ‘도시재생’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관(官)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도시계획(都市計劃)’, ‘도시정비사업(都市整備事業)’ 등의 사업과 해당 지역의 ‘주민공동체의 합의’가 합쳐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속초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뜯금없이 ‘재생(再生)’의 개념이 튀어 나오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과거’는 ‘과거형’으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된다.

필자는 이 ‘도시재생’의 범위에 ‘문화재생(文化再生)’의 의미를 더하고 싶다.

조선후기 ‘쇄국정책(鎖國政策)’이 주요 국가정책이었던 흥선대원군 집권시절에는 ‘쇄국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이고, 개화정책(改化政策)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매국노였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고 평가도 달라졌다.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개화정책을 실시했더라면 치욕의 일제 식민지가 있었을까? 개화파는 역적이다? 지금의 사람들이 대답해야 한다.

‘실향민의 도시, 속초’는 실향민의 도시이기 이전에 외세의 정치에 의해, 국내의 정치에 휘말린 비극(悲劇)이 존재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지금의 속초시민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이 글의 목적이며, 이러한 사연을 바탕으로 과거로만 끝난 역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속초! ‘문화관광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재생의 형태는 지금의 속초에 사는 속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스토리형 문화이든… 도시 재생형 문화이든…

속초에서 펼쳐지는 각종행사에 등장하는 ‘북청 사자놀음’과 ‘도문 메나리농요’를 결합한 공연처럼 서로 화합하는 모습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않을까?

지금 속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속초의 옛날이야기가 정말 옛날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우여곡절(?)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지금시대에 맞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문화 창조에 도전해야 한다.

옛 것과 지금의 것이 어울리는 ‘문화재생!’ 각자의 분야와 관심이 다르므로 문화재생이 도시재생이 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생이 도시재생에 포함되어도 좋다.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있고, 사람과 도시가 있어야 문화가 있는 법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자성어이다. ‘옛 것을 알고 나서 새 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앎(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본다.

[참고문헌]

- 속초시지(束草市誌)
- 속초문화원 홈페이지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 『1930~1950년대 수복지구 마을의 국민화 과정』(속초시 A리·양양군 B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세진, 석사논문(한국외대)
- 『양양 6·25의 비화』, 2009, 양양문화원
- 『속초의 설화』, 2000, 속초문화원
- 『속초의 민속』, 1987, 속초문화원
- 『속초의 향토민속』, 1992, 속초문화원
- 『대포동 롯데호텔 부지내 유물 시굴조사 보고서』, 2005. 5, 강원문화재연구소
- 『속초 조양동 주거지』, 2000, 강릉대학교 박물관
- 『속초 동명동 속초리성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13, (재)예맥문화재 연구소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조선총독부 관보
- 종로도서관
-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
- 『국세조사보고(國稅調查報告)』
- 『송자대전(宋子大全)』
- 《청학집(靑鶴集)》

세종·세조실록의 속초포(束草浦)와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비정 연구

사람의 핏줄이 전승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역사도 전승되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역사와 그 사람들이 살아오던 터전, 즉 지역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지역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람 없이 그 지역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연옥은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에서 ‘지명(地名)은 우리의 생활터전이 되는 장소의 지형(地形)과 지물(地物) 등을 다른 지점과 구분하기 위한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명명(命名)된 특수한 언어기호’라 하였고, 정장호는 「강원도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에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명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주변에서 그 지역의 지형, 자연환경의 영향, 인문지명 등에서 유래한 지명이 많다’고 하였다.

지명의 어원을 찾고, 과거의 지명과 현재의 지명을 연결시키는 작업은 수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대한 작업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명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현재 그 위치를 비정하지 못한 지명을 따로 둘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도시로 발달한 곳은 예전에는 산이었거나 논, 뽕밭이었던 경우가 많다. 흔히 어른들 말씀처럼 시대가 바뀌다보니 그렇다는 얘기다. 서울의 강남 특히 잠실은 그 옛날 뽕밭이었다. 그러던 곳이 지금은 전국 최고의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우리 고장의 경우, 속초는 옛날에 양양군 소천면 속초리에 불과했던 곳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어업의 발달로 인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터전을 이룬 곳, 광복이후 한국 전쟁으로 함경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도천면 속초리(과거 소천면 속초리)가 도천면과 소천면을 대표하는 도시명(都市名)이 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는 커졌으나 많은 사람들의 이동으로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거의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물들을 포함, 많다면 많은 역사적 유물을 뒤로 하고 역사 문헌자료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통해 역사적 전통성의 발굴 및 보존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지역의 지명 또한 「조선지지자료」의 내용 외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마을 지명을 해석해 놓은 실정이며, 각종 문헌기록에 나와 있는 지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각종 문헌기록에 나와 있는 지명이라는 것은 그 지명자체가 그 지역에 또 하나의 역사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삼일포매향비’에 처음 등장한 ‘양양 덕산’이라는 지명을 통해, 속초 외옹치에 위치한 덕산봉수지(德山烽燧址)를 통해, ‘덕산’이라는 지명과 봉수의 역할, 칠량역천(七良役

賤)이라 불리는 봉수군들의 삶, 봉수군을 인근지역주민들로 충당하는 제도 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필자는 세종실록지리지에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혁파된 산성포(山城浦)에 대해 이 산성포가 속초포(束草浦)임을 말하고자 한다.

1. 세종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와 산성포(山城浦)

1) 속초포(束草浦)

‘속초’라는 지명이 문헌상 처음으로 확인된 자료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완성)라는 것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 번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를 살펴보면 “진(鎮)이 2이니, 삼척(三陟)과 간성(杆城)이다.(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鎮)들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留防軍)이 없어, 일이 있으면 시위대로 충당한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영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都觀察使)가 겸한다. 수군만호가 지키는 곳인 ‘수군만호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조재위기간이 1392~1398년이므로 1392년은 즉위 원년이며, 태조6년은 1398년이 된다. 즉 ‘태조6년 정축에 비로써 진(鎮)들을 두었으나’라는 의미는 1398년 전국에 진(鎮)을 설치하여 해안방어를 담당하게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세조 때 중앙에는 5위(五衛)를 두었고, 지방에는 영진군 등이 주둔하고 있어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 세조 때 ‘진관체제’라는 지역단위의 방위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여러 고을을 하나의 진관으로 묶어 그 중 한 사람의 수령이 지휘하게 한 것이었다.

강원도는 원주, 강릉, 회양 중심의 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양은 강릉대도호부사가 지휘하는 강릉진관에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삼척에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대장인 삼척포 침절제사가 동해안 각지의 수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1454년(단종 2년)에 완성된 책으로서, 1398년(태조6년)에 전국에 진을 설치하였다고 하는 그 옛날의 사실을 서술하고 있으나, 지금(당시 왕이 통치하던 시기) 폐하였다(今廢)식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편찬당시(1452~1454)에도 속초포가 존재했었을 가능성은 제기되기도 한다.

2) 산성포(山城浦)

그런데, 우리지역에 관한 지명에 관해 또 다른 기사가 세종실록에 보인다.

세종 15권, 4년(1422년) 1월 25일(계미) 5번째 기사에는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 때에…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緜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처후는 양양부사를 지냈다고 하나, 세종실록 외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한국 역대 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1421년(세종 3)에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가 되었으나 그 이듬해(1422년)에는 양양부사(襄陽府使) 때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헌부의 규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대 양양부사를 기록한 강원도 양양읍지의 선생안은 성화22년(1486년)에 부임한 매월당 김시습의 친구인 부사 유자한(柳自漢)부터 나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성포만호를 지냈다는 이양수(李養修)에 대해서는 “감찰(監察) 김부(金扶)를 목 베고,
감찰 황보전(皇甫璵)은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주부(注簿) 이양수(李養修)는 태형(笞刑)을
집행하였다”라는 기록이 태조 14권, 7년(1398년) 7월 11일(갑신) 1번째 기사에 전해진다

태종 2권, 1년(1401년) 10월 26일(신사) 1번째 기사에는 “전 지통주사(知通州事) 이양수
(李陽修)는 일찍이 풍자창 부사(豐儲倉副使)가 되어 종이 수십 권을 도둑질하였으니, 원컨대,
죄안(罪案)대로 시행하여 후인(後人)을 경계하소서.”하여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세종 7권, 2년(1420년) 3월 20일(무자) 4번째 기사에서는 “회양부사 이양수(李養修)는 전에
풍자창부사로 있으면서 장물죄를 범하여 곤장100대를 맞은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세종 8권, 2년(1420년) 4월 2일(경자) 3번째 기사에서는 “임금이 명령하기를, 이양수(李
養修)는 종척(宗戚)이나 훈구(勳舊)도 아니지마는, 특별히 대신의 연고로 하여 회양부사(淮陽
府使)를 제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만 산성포만호를 지낸 이양수는 세종실록에서처럼 이양수(李養修)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태종실록에서부터 나타난 이양수는 이양수(李養脩)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수(修)자와 수(脩)자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세종실록에서 두 ‘이양수’에 대한 기록이
겹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변처후에 대해 탄핵할 것을 논한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은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緜花)와 닥나무[楮]를 바꾸
었습니다.”라는 구절이다. 변처후가 산성포만호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양도호부 관내에 산성포(山城浦)라는 새로운 지명(地名)때문이다.

세조3년 (1457년) 전 종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유수강(柳守剛)은 강릉부사 재임시절을 되
살려 상소하기를,

“강릉(江陵) 연곡포(連谷浦)의 해구(海口)는 물이 얕아서 돌이 노출(露出)되고, 그 나머지
여러 포(浦)의 해구(海口)도 또한 모두 모래가 메어져 언덕을 이루었으니 적(敵)에게 응전
(應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여 강릉부(江陵府) 경내(境內)인 연곡포(連谷浦)를 중심
으로 동해안의 여러 포구에 대해 혁폐(革弊)하기를 건의하였으나, 병조(兵曹)에서 ”여러 포(浦)
에는 당시에는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더라도 사변(事變)이 닥쳐오는 것을 또한 해아리기가

어려우니, 다만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인다는 일만을 가지고 갑자기 병선(兵船)을 혁파(革罷) 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항변하여 혁파하지 못하였다.

강릉부사를 지냈던 유수강(柳守剛)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즉, 1457년까지는 4월까지는 연곡포를 비롯해, 다음에 언급되는 산성포(山城浦)는 수군기지로서의 역할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5년 후인 세조 29권, 8년(1462년) 9월 14일(을사) 2번째 기사에서는 "병조에서 도체찰사 한명회(韓明渾)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우니 만호(萬戶)를 두기가 마땅치 못하고, 울진(蔚珍)과 삼척(三陟)의 양 포(浦)는 도적이 지나는 요충지(要衝地)인데 수령으로써 경하여 관할하게 하였으니, 만약 사변(事變)이 있으면 수군(水軍)·육군(陸軍)을 겸해서 다스려야 하니, 그 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청컨대 산성만호(山城萬戶)·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결국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성포(山城浦)는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1462년에 각각 폐지된 걸로 볼 수 있다.

세조 43권, 13년(1467년) 8월 24일(정사) 7번째 기사¹⁾에서 "병조(兵曹)에서 강원·황해도 체찰사(江原黃海道體察使) 한계미(韓繼美)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강릉(江陵)의 안인포(安仁浦)를 혁파(革罷)하여서, 해문(海門)이 광활(廣闊)하게 통(通)하고 또 수심(水深)도 배를 정박(碇泊)할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 하물며 강릉부(江陵府)가 해변(海邊) 중앙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조밀(稠密)하니, 청컨대 일찍이 혁파(革罷)한 연곡(連谷)·양양(襄陽) 두 포(浦)의 선군(船軍)과 강(江)의 선척(船隻)을 다시 설치하고, 만호(萬戶)가 수어(戍禦)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여기서 '일찍이 혁파한'의 연대는 위의 세조 8년(1462년) 9월 14일 2번째 기사에서 보면 1462년이 되며, 연곡(連谷)·양양(襄陽) 두 포(浦)는 각각 연곡포(連谷浦)와 산성포(山城浦)로 비정할 수 있다.

세조 46권, 14년(1468년) 6월 4일(임진) 3번째 기사에서 "병조(兵曹)에서 강원도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릉(江陵)의 안인포(安仁浦)는 삼척(三陟)·고성(高城) 사이에 있어, 해구(海口)가 통활(通闊)하며 병선(兵船)이 정박할 만합니다. 또 강릉은 거주하는 인구가 조밀(稠密)하여 왜구(倭寇)가 있을까 염려되니, 청컨대 일찍이 혁파(革罷)한 연곡포(連谷浦)·양양포(襄陽浦) 두 포의 선척[船艘]과 수부(水夫)를 안인포(安仁浦)에 이속(移屬)하고, 만호(萬戶)를 차건(差遣)하여 방어(防禦)를 굳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즉, 1462년에 폐지되었던 두 포는 수군기지 설치의 목적이 수군만호의 자리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1467년에 다시 원래 위치에 설치되었다가 10개월만인 1468년 6월에 안인포로 이속되게 된다. 이는 해군기지로서의 물리적 기능이 폐지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군만호처로서의 만호와 병선, 수군이 다른 곳으로 옮겨감으로서 행정상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이라는

얘기가 된다.

세종 37권, 9년(1427년) 7월 16일(임인) 5번째 기사²⁾는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3) 산성포(山城浦)의 위치

결국 강원도의 해안가 어느 지방에 있던 수군정박기지인 산성포(山城浦)는 1468년 6월에 없어진 셈이 된다.

그렇다면 산성포(山城浦)는 어느 지역에 있던 포구였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화원형백과사전에서는 경내(境內)의 의미를 ‘일정한 지역이나 구역의 안’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선 세종 15권, 4년(14220년) 1월 25일(계미) 5번째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양부사 변처후는 양양도호부 관할지역인 산성포 만호 이양수에게 소금을 청하였다고 하니, 산성포는 양양도호부 관할내의 지역임은 분명하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여지도서 등의 현존하는 문현상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군사적 용도로의 포(浦)는 2곳이 존재한다.

하나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지금의 청초호에 있던 속초포(束草浦)요, 다른 하나는 양양 조산리의 대포(大浦)이다.

대포(大浦)³⁾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보듯이 강릉 연곡포에서 다시 안인포로 옮겼다가 성종22년(1490년)에 다시 양양 조산리로 옮겨와 1765년에 폐지되었다.

산성포 만호에 대한 기록은 세종 4년(1422년)과 세조 8년(1462)이므로, 대포가 양양군 조산리에 설치되었던 1490년의 기록보다는 68년이나 앞선 기록이며 산성포를 대포로 비정하기에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

3-1. 현재 지명과 산성포(山城浦)

그렇다면 양양도호부 관내에 산성포(山城浦)라는 곳은 어디일까?

한자사전에서 ‘포(浦)’라 함은

- ① 개(강이나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 ② 물가
- ③ 바닷가 ④ (강이나 뜻의)수면(水面) ⑤ (물이)흐르다로 표현된다.

즉 강이나 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이나 바닷가에 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현재의 항구(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를 표현할 때 한자에서는 진(津), 포(浦) 또는 진(鎮)으로 표기하는데, 진(津)은 작은 나루터 격이고, 포(浦)는 진(津)보다 크며, 진(鎮)보다 규모가 작다고 한다.

즉, 수군에서의 진(鎮)은 지금의 함대사령부급으로 비견되며, 포(浦)는 함대의 파견기지 규모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2) 병선을 평해군(平海郡)의 월송포(越松浦)에 도로 두고 지군사로써 만호를 겸무하게 하였다. 처음에 본포(本浦)에 모래가 쌓여 물이 알아졌기 때문에 만호를 혁파하고 병선을 울진(蔚珍)의 수산포(守山浦)와 삼척포(三陟浦)에 나누어 소속시켰는데, 이때에 와서 고을 백성들이 본군의 읍성(邑城)이 튼튼하지 못하고, 더구나 왜적이 먼저 들이닥치는 땅이므로 방비가 없을 수 없다고 하여, 모래를 쳐내어 도로 병선을 정박시켜 놓하지 않은 변고에 방비하기를 청하였다. 감사가 이를 아뢰니 드디어 그대로 회복하기를 명하였다.

3) 襄陽都護府 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二年 自江陵安仁浦 移泊于此 水軍萬戶一人 正德庚辰築石 周一千四百六十九尺 高二十尺’.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현재의 속초·양양지역의 지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속초시의 옛 지명인 속진(束津), 속사포(束沙浦)⁴⁾, 양양군의 광정진(上光丁里), 낙산진 등 동해안에 수많은 진과 포들이 존재한다.

양양군의 지명에서 호수, 진(津), 진(鎮)의 흔적을 찾아보면, 호수는 쌍호(손양면 오산리), 포매호(현남면 전포매리)가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마을지명유래에서 호수의 흔적이 있던 곳은 양양읍 포월리, 손양면 학포리, 동호리, 현남면 임호정리가 있는데,

양양문화원에서 출간한 『양양군지』 양양군 마을지명의 유래를 보면 <표1>과 같다.

마을지명	유래(전설)
양양읍 포월리 (逋月里)	신라, 고려시대에 마을 앞에 호수가 있었는데...
손양면 학포리 (鶴浦里)	약 500년 전에 적성동(赤城洞)이라고 칭하였는데 정조대왕 때 박진사가 송전리 앞에 일호(一湖)가 있으므로 호명을 쌍호라 칭하고 백학이 상집(翔集)함으로 학포리라 칭하였다
손양면 동호리 (銅湖里)	양양국제공항 동쪽마을이다. 500년 전에 큰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의 빛이 구리색 같아서 구리개, 굴개라고 불렸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굴포진리로 불렸다.
현북면 상광정리 (上光丁里)	현북면의 중심지이며, 최초에는 광정진(光丁鎮)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의 중광정리와 본동 경계지인 잣골 뒷산 능선에 고대에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광정진을 설치하였는데, 지금도 진의 성지(城址)석축 흔적이 남아있다.
현북면 기사문리 (基士門里)	내외마을로 구분하여 옛날에는 내칭은 초진(草津)이고, 외칭은 기사진(基士津)으로 칭하였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초진리로 불렸다.
현남면 임호정리 (臨湖亭里)	임호평야가 과거에는 호수로서 임호(臨湖)라고 하였다.

< 표1 – 양양군 마을지명의 유래 >

이상과 같이 뜻을 중요시하는 한자어의 의미를 볼 때 ‘진(津)’은 나루터, 강의 배가 떠나는 곳으로 풀이가 되며, ‘진(鎮)’은 한 지역(地域)을 진안(鎮安)하는 군대(軍隊)나 또는 그 우두머리로 풀이가 된다. 중요한 부분은 00진(00津)으로 끝나는 지명보다는 00진(00鎮)으로 끝나는 지명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 때 광정진(光丁鎮)이 제일 유력하고 볼 수 있다.

광정진이 처음으로 기록에 보이는 건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현북면 상광정리 사유지이며, 상광정리의 서북쪽 약 백 오십 간의 작은 언덕 위에 있음. 연장은 약 이백 간으로 토축이며, 불완전함’이라 하였다. 또한 양양의 『향토지』에는 ‘현북면 상광정리에 구허(舊墟)가 있다. 성북(城北)의 남북(南北) 길이가 60 간, 동서가 약 삼백 간, 산에는 석성(石城)을 쌓은 성지(城址)가 완연히 남아있으며, 일찍이 여진과 왜관의 침입을 방

4) ‘長風拍肩。曠漠豪爽。五里由花盡浦。行十里入襄陽境。五里至永郎浦。過束津束沙浦’, 『成齋集金剛觀敘』

어한 터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원대학교 유재춘교수의 『동해안 수군유적연구-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는 광정진 또한 잣골 뒷산 능선에 즉, 내륙에 설치한 진(鎮)일뿐만 아니라 해상에 설치한 진이다. 또한, 여진과 왜구의 침입대비가 목적임을 미루어 판단할 때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조선 초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사문리일대의 포구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양양군 지역에서 대포영외에는 만호가 지휘하던 산성포의 위치를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속초지역에서는 산성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수군기지 속초포(束草浦)가 위치한 청초호(青草湖)에 대해 다시 한 번 옛 기록들을 살펴보자.

속초포(束草浦)는 현재의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호수로 청초호,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城湖)라고도 불리었으며, 영랑호보다 그 형세가 뛰어났다고 하는 호수이다.

세종 7년 을사(1425, 흥희 1) 4월 28일 기사에서 “호조에서 계하기를, 강원도 영동(嶺東) 각 포구의 선군(船軍)은 다른 부역도 별로 없고 또 병영(兵營)에 딸린 밭도 없사오니, 쌍성포(雙城浦)와 삼척포(三陟浦) 등 철을 생산하는 곳에 선군을 시켜 모래를 일어서 철을 생산하게 하고, 기타 철이 나는 각 포구에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그 군인으로 하여금 매일 과정으로 일을 하게하고, 감사는 관원을 보내서 시험하여 생산하는 수량을 요량하여 정하고, 본조에 통보하여 회계하여 시행하게 하되, 3월부터 8월까지의 동안은 철을 제련하고, 9월부터 이듬해 2월에 이르기까지는 소금을 굽게 하되,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라고 했으며,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완성) 권44 양양 산천조에는

- 쌍성호(雙成湖) :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관문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으며,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여지도서》(1757년 완성) 양양 산천조에는

- 쌍성호(雙成湖) :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관문40리 주위가 20리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대동지지》(1866년경 완성)에는

- 청초호(青草湖) : 高麗置萬戶營泊兵舡其革罷未改 고려때 만호영을 설치하였으며, 선박을 정박하였다. 현재 폐하였다.

- 대포진(大浦鎮) : 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移江陵安仁浦萬戶于此 中宗十五年築城周一千四百六十九尺後革 동12리에 있다. 성종21년 강릉 안인포에서 옮겨 왔다. 중종15년 돌로 쌓았으며, 주위는 1,469척이며 나중에 폐하였다.

《현산지》 수원(水源)조에는

- 청초호(青草湖) : 在府北三十里周回數十里每冬冰合有干項犁破之 是夜湖上民牛皆喘汗
郡人謂之龍耕以此占歲豐凶一名雙成湖군의 북쪽 삼십리에 있다. 주위
둘레는 수십 리이다. 매년 겨울 얼음이 밭을 갈아엎은 형상으로
얻다. 일명 쌍성호이다.

《현산지》 진보조에는

- 물치진(沕淄津) 在府北二十里 물치진 부 북쪽 20리에 있다.
- 束草津 在府北三十里 속초진 부 북쪽 30리에 있다.
- 德山津 在府北二十五里 덕산진 부 북쪽 25리에 있다.
- 개마호(蓋馬湖) : 재부 남쪽 40리 주위 45리
- 쌍호(雙湖) : 재부 동쪽 5리

《양양부읍지》 全 산천조에는,

- 쌍성호(雙成湖) :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40리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동국여지지》(1660~1674년대 추정) 권7 양양 산천조에는,

- 청초호(青草湖) :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
今廢 부의 북쪽 40리에 있다. 간성군과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
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 양양군읍지》(1899년) 2 산천조에는,

- 청초호(青草湖) :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
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조선지지자료》(1910~1900년) 도진(渡津, 나루터)명에는,

- 청초호(青草湖, 우리말 ‘속쇠기목’) – 현재 청초호
- 남애포(南厓浦, 우리말 ‘람의고’) – 현재 남애항
- 해암포(蟹岩浦, 우리말 ‘기바우고’)

《조선지지자료》에는 포구(浦口, 작은 항구)명에는,

- 속진(束津, 현재의 영금정 일대), 웅진(甕津, 현재의 외옹치), 수산진(水山津, 현재의
수산리)가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에 만호영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1530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191년대에 간행된 『조선지지자료』까지만 나와 있다. 다만, 이 기록들이 ‘청초호’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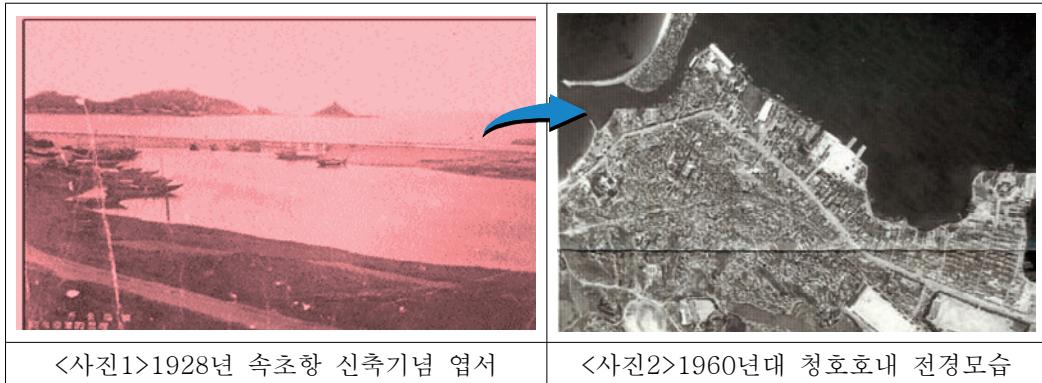
만호영(萬戶營)의 존재여부만을 언급했을 뿐인데, 1866년경에 완성된 『대동지지』에만 청초호에 만호영이 고려 때 설치되었다고 그 설치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3)-2. 청초호 지형과 산성포(山城浦)

앞서 말했듯이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여지도서 등의 현존하는 역사상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 양양도호부에 군사적 용도로의 포(浦)는 2곳이 존재한다.

하나는 양양군 조산리의 대포(大浦)요, 다른 하나는 지금의 청초호에 있던 속초포(束草浦)이다. 그렇다면 문헌상의 기록으로 보아 대포영을 제외한 남은 한 곳은 속초포이다.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산성포를 혁파하려는 이유 등을 통해 속초포(束草浦)가 산성포(山城浦)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래가 자주 메워지는 청초호의 지형을 보면 산성포 혁파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사할린에 거주하는 전상주씨가 고국을 찾아 설악신문에 기증한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8년 속초항개발 기념을 위해 제작된 속초항 홍보엽서(<사진1>)를 보면 바다에 모래가 드리워져 육지 쪽에 있는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없는 형상이다.

이 사진의 현재 위치는 속초우체국 앞 바닷가로 추정되며, 한명회가 말한 바와 같이 속초포의 위치가 청초호 안쪽으로 비정할 때 속초포의 포구(浦口)에 해당되는 위치이다.

또, 주교리에 사시던 어르신의 말씀에 의하면 ‘일제시대 어느 날인가 갑자기 꽂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사구를 비롯한 배다리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아마도 사구가 제 모습을 잊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인 속초항 개발이 시작된 1932년경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청호동에 사시던 이광수씨가 부친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6.25전후까지는 맑은 날이면 사구(沙丘)가 보여 부월리 쪽에서 속진리 방향으로 갈 때면 이 길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중앙동, 동명동쪽의 사구는 1950년대 까지는 잔존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의 지명 중에 ‘주교(舟橋, 배다리)’라는 지명도 모래가 자주 메워지는 청초호의 지형을 표현한 지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속초의 땅이름』에는 주교(舟橋, 배다리)에 대해 ‘반부득 옆에 있는 마을. 오늘날의 청호동이다. 동쪽은 동해 바다요 서쪽은 청초 호수, 그 복판으로 다리

모양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갯배)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하여 청호동을 배가 달은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 한자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양양(襄陽)지역 중 속초포(束草浦)가 소재한 곳은 도천면(道川面)이다. 도천면에 위치한 관방성(關防城)들은 권금성(權金城), 토왕성(土王城)이 있다. 권금성, 토왕성 모두가 산성을 성격을 띠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속초포(束草浦)라는 지명으로 된 만호영의 위치가 권금성, 토왕성 산성 동쪽 앞 바닷가에 위치한 연유로 산성포(山城浦)라는 이명(異名)이 생겨났을 확률이 높다.

동국여지승람에 낙산사 사찰기록에 있다고 하는 권 씨와 김 씨가 쓸았으며, 고려 몽골 침입시 방어했다는 전설이 있는 ‘권금성’과 여지도서에 토(土)씨 성을 가진 왕이 쓸었다는 ‘토왕성’이 조선시대에도 군사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완성) 관방조에는 대포영만 있을 뿐 권금성과 토왕성에 관한 기사는 보이질 않는다. 다만 『만기요람(1808년)』과 『증보문헌비고(1770년)』에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關防)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海防)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권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雙城호), 대포(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권금성과 토왕성이 변방의 방어를 위해 이용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1968. 4. 3.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서 故박공달(1954년 속초소방대장 역임)씨에 의해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철모(투창의 앞부분) 4점(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 중)이 되어 설악산을 포함한 이 지역이 옛날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셋째, 속초시 노학동 딴봉마을에 위치한 일명 ‘척산만호첨사유허지(尺山萬戶僉事有墟址)-물론 만호와 첨사라는 직위가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지만’-와 미시파령, 원암역, 인근 고성군 죽왕면·토성면지역의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주요성지·봉수대 및 전설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지금의 고성군 읍지인 [‘간성군읍지 (원수성지 原水城誌)’]에는 ‘미시파령에 대해 군 남쪽 80리 옛날에 소로 길이 있었으나, 없어져서 현재는 행인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있으며, ‘1493년(계축, 성종24년) 양양부 소라령이 험하고 좁은 고로 다시 이 길을 열어 양양·간성 양 읍의 관로(官路, 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하였다’고 했다.

수성지 원암역에 대해서는 군 서남쪽 60리 미시파령 입구에 처음 개설했다가 다시 양양 오색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운역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런데 양양 원암역이 양양 오색역으로 옮겼다고 하는 기록은 ‘수성지’에만 기록되어 있다.

고성군 원암역(元巖驛)은 강원도 속초시와 인제군 사이에 있는 해발 767m의 고개로 여수파령(麗水坡嶺), 미시파령(彌時坡嶺)이라고도 한다.

세조 8년(1462년) 29권 기사에 ‘오색역을 상운도 소속으로 한다고 하여, 오색역의 개설 시기를 추측 할 수 있으며, 성종8년(1477) 75권에는 오색역이 극심하게 잔폐하여 모든 공급을 지탱할 수 없으니 공수위전을 대로의 예에 따라 20결을 주어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 1477년까지는 오색역이 계속 운영되었음을 알려준다.

원암역이 오색역으로 옮겨간 세조 8년(1462년)은 “병조에서 도체찰사 한명회(韓明渾)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우니 만호(萬戶)를 두기가 마땅치 못하고, 울진(蔚珍)과 삼척(三陟)의 양 포(浦)는 도적이 지나는 요충지(要衝地)인데 수령으로써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으니, 만약 사변(事變)이 있으면 수군(水軍)·육군(陸軍)을 겸해서 다스려야 하니, 그 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청컨대 산성만호(山城萬戶)·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하는 기사와 일맥상통한다.

즉 산성포가 해군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군사적 요충지역할을 하던 만호첨사유허지와 원암역을 폐하고 각각 울진삼척과 오색역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만호첨사유허지, 원암역 이외에 산성포주위의 군사적 주요 시설물들의 흔적을 찾아보면

1. 관방시설인 권금성과 토왕성이 있는 설악산 소공원쪽에서 산성포(청초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목우지(牧牛峙, 현재의 목우재)’가 있다.

목우재(牧牛峙)는 척산, 도리원, 노리 등 현재의 노학동 일대의 소야평야에서 생산된 양곡을 싣고 신흥사로 넘어오다 우마에게 풀을 뜯어 먹이며 휴식을 취하던 고개로 권금성, 토왕성을 거쳐 수군만호유호지, 청초호 수군기지로 가는 최단 지름길이다.

2. 수성지의 산(山)조에 의하면, 천후산(지금의 울산바위) 밑 미시령인근에 방수(防守)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 또는 남북시대 등 국가 간의 전쟁 시 일시적이나 오랫동안 양 전쟁국가간의 국경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고성군 『지명유래지』의 죽왕면 문암리의 전설을 보면 ‘삼국시대’에 신라유민들이 이 곳에 들어와 어업과 농업을 경업으로 하고 살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영토 확장으로 고구려군사들이 신라 땅인 이 마을을 침략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4. 미시령 인근의 고성군 죽왕면, 토성면 일대에 많은 성지城址와 봉수지(烽燧址)가 존재한다.

넷째, 속초포가 있던 청초호가 조선시대에는 일명 ‘쌍성호’라 불리었음으로 사초의 기록에 의해 ‘쌍성호(雙成湖) ⇒ 산성포(山城浦)’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옛날에는 청초호를 일컬어 “쌍성호”라 했는데… 쌍성포에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초호가 쌍성호로 불리우게 된 연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아마도 앞서 언급한 ‘청초호내 사구(沙丘)’와 관련된 듯 하다. 부월리 주민들은 맑은 날이면 청초호의 사구가 보여 부월리 쪽에서 속진리 방향으로 갈 때면 이 길(사구)을 이용했다고 한다. 즉, 맑은 날이면 2개의 호수로 갈라지게 만드는 사구로 인해 ‘2개의 호수(雙成)’가 되기 때문이다. 맑은 날 청초호를 유람했던 많은 선비들이 봤을 때는 사구로 인해 2개의 호수로 보이므로 ‘쌍성호(雙城湖)’ 또는 ‘쌍성호(雙成湖)’로 명명(命名)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완성) 권44 양양 산천조에는 지금의 청초호를 ‘쌍성호(雙成湖)’로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나, 문제는 사료마다 쌍성호의 한자표기에 있어 ‘雙城湖’와 ‘雙成湖’로 달리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자	기록 문현
쌍성호(雙城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7년 을사(1425, 흥희 1) 4월 26일 (을축) 기사 ○ 연려실기술 16권 산천의 형승中 ○ 취제선생유고집3-관동록 ○ 만기요람 군정4편 해방조
쌍성호(雙成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동국여지승람 ○ 동국여지지 ○ 여지도서 ○ 양양부읍지 ○ 강원도양양군읍지
청초호(青草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지지자료 ○ 대동지지 ○ 현산지(청초호 일명 쌍성호)

<표2- 각종 문현상에 기록된 쌍성호(雙城湖), 쌍성호(雙成湖), 청초호(青草湖)>

대동지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려 때에도 청초호에 만호벼슬이 지휘하던 수군이 있었다고 한 기록이 사실이라면, 옛날 경지(境地)의 개념의 지금의 선(線)개념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地域)개념의 행정구역임을 감안할 때, 속초라는 지역이 조선 초까지만 해도 군사상 요충지였음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즉, 고려시대의 익령현의 소속이 아닌 독자적인 수군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도 있다는 얘기이다.

잠시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속초지역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흔적을 찾아보면

1. 조선시대 ‘덕산 봉수(德山烽燧)’가 있었던 덕산(德山, 현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이라는 곳은 중국 원나라 연호인 지대 2년(1309)에 삼일포매향비(삼일포매향비) 비문에서 ‘용화회주’이신 미륵이 하생하기를 기다리며 미륵보살이 하생할 때 우리들도 함께 태어나 용화회에 참석하여 삼보를 공양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원 드리며 양양 덕산망(德山望)에 매향(향나무를 심음)하였다고 기록이 전해지며,
2. 고려 충정왕 1년(1349)에 썩어진 『동유기』에 신라 사선이 영랑호를 순례한 기사가 실려 있으며, 강릉도존무사(지금의 도지사) 안축과 같은 명신(名臣)이 영랑호를 찾아 시를 남긴 기록이 있으니, 속초는 현재도 전국 최고의 관광지의 고려시대 때에도 최고의 관광지가 아니었던가 싶다.
3. 수군만호첨사유하지에서 가까운 노학동 무당골에서 발견된 ‘무당골사지 3층 석탑’은 사방불이 조식된 고려중기의 석탑양식이다.
4. 속초시 교동 산 199번지 교동택지개발구역의 한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우점문완(靑瓷象嵌雨點文盞)과 청동숯가락은 고려시대(14세기 말) 후기의 유물(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로 고려시대 이 지역에 상당한 지위가 있던 세력이 존재했음을 암시해 준다.
5. 고려사절요 목종 10년(1007) 10월 기사에 흥화진(興化鎮: 평북 의주군) · 익령(翼嶺: 강원 양양군) · 울진현(蔚珍縣: 경북 울진군)에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을 볼 때 1007년(목종

10)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말 1385년(우왕 11) 허주(許周)가 지양주사(知襄州事)가 되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을 쌓았다.

낙산사 승려 익장이 쓴 『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 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권금성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실시한 강원문화재 연구소의 지표조사에서 권금성이 고려시대(1253년) 몽고가 침입하였을 때 병화(兵禍)를 피하기 위해 쌓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설에 의하면 권씨와 김씨가 쌓았는데, 권씨는 《안동권씨세보》에 의하면 양양 권씨로 칭할 정도로 파벌이 강했던 권씨가 존재했었다.

6. 『고려사절요』 충렬왕 9년(1283) 4월 기사에 ‘동계 간성(杆城) 사람 송번(宋蕃)이 원나라에 고하기를, 고려의 동계(東界)와 서계(西界)지방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그 전지는 아직도 고려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 면적을 계산하면 4만 석은 얻을 수 있으니, 동정군의 군량에 충당하소서.’라고 고한 사실이 적혀있다. 비록 간성군 사람이지만, 양양과 간성군의 경계 지역인 속초지역까지 영향을 끼친 지방호족으로 추측할 수 있다.
7. 단종 11권, 2년(1454년) 4월 25일(병오) 3번째 기사에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양양(襄陽)의 향리(鄉吏) 가덕(加德)이 부사(府使)를 능욕(陵辱)하였으니....”라는 기록으로 보아, 지방향리(호족)의 세력이 호락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8. 성종 31권, 4년(1473년) 6월 26일(을유) 3번째 기사에서는 “이조에서 이시애를 토벌 할 때 종정한 향리 이계의 등을 면역할 것을 청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날 이시애(李施愛)를 토벌(討伐)할 때 종정(從征)한 향리(鄉吏)로서 1등은 ... , 간성(杆城)의 최연수(崔延壽)·윤경신(尹耕莘), 2등은 강릉(江陵)의 함유문(咸有文), 양양(襄陽)의 이을산(李乙山)..”라고 기록되어 있다.
9.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각종 명문기와(名文起臥)가 출토되는 고려시대 성터였던 속초리성지(束草里城址)에 대해서도 많은 향토사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속초리성지에서 발견된 명문(名文)중에서 주목할 만한 명문은

- 『연(沿)』 · 『변(邊)』 · 『관(官)』 자(字) 명문(사진5 참조)이 가장 많으며,
- 양개(良玠) 개(玠, 큰돌 개) – 제후를 봉한 신표로 쓰던 1자 2치의 대규(大圭)(사진7 참조).

또한 이 지역 구장(1962년 속초리 2구)을 지내신 故정태현(鄭泰賢, 1998년 작고) 어르신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수복탑에 있던 집이 미군 LST수송선 기지를 만들기 위해 헐려서 지금의 장안골(현 속초시 동명동 450-25번지)로 이주하였는데, 집을 짓기 위해 집터를 파보니 온돌용도로 추정되는 아궁(너비 4~5m정도)이 흔적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명절 때가 되면 이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주위에 흘어져 있는 기와를 갈아 제기를 씻곤 하였다고 한다. 기와가루는 황토성분으로 기름때 씻는데 탁월하다고 한다.

이밖에도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속초리 성지와 고려시대에 쌓은 권금성, 교동택지개발구역에서 ‘청자상감우점문완(青瓷象嵌雨點文盃)’ 및 ‘청동숫가락’을 간직한 고려시대 고분, 고려 중기의 노학동 ‘무당골 3층석탑’ 등의 속초지역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볼 때 청초호의 수군만호영도 고려시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옛날 경지(境地)의 개념의 지금의 선(線)개념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地域)개념의 행정구역임을 감안할 때 속초라는 지역이 조선 초까지만 해도 ‘군사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鎮)들을 두었으나…… 수군만호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 수군만호가 지키는 곳)가 60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 라는 세종 실록지리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속초’라는 우리지역의 이름이 문헌상에 최초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군만호가 지키던 해군기지가 청초호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속초포(束草浦)’의 또 다른 명칭이 ‘산성포(山城浦)’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칭	추정연대	주요내용	출처
속초포(束草浦)	1398년(태조6년)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세종실록지리지 권 153 진보조
산성포(山城浦)	1422년(세조 4년)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세종 권15,
쌍성포(雙城浦)	1425년(세종7년)	“강원도 영동(嶺東) 각 포구의 선군(船軍)은 다른 부역도 별로 없고 또 병(兵營)에 딸린 밭도 없사오니, 쌍성포(雙城浦)와 삼척포(三陟浦) 등 철을 생산하는 곳에 선군을 시켜 모래를 일어서 철을 생산 하게 하고…	세종 7년(홍희 1) 4월28일 기사
산성포(山城浦)	1462년(세조 8년)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세조 권29권

<표3 – 세종실록·세조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의 이명(異名) >

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모래가 자주 메워지는 청초호의 지형으로 인해 산성포가 혁파되었다.

둘째, 양양지역 중 속초포가 소재한 곳은 도천면이다. 도천면에 위치한 관방성들은 권금성, 토왕성이 있다. 권금성, 토왕성 모두가 산성을 성격을 띠고 있다. 세종실록에는 속초포라는 지명으로 된 위치가 권금성, 토왕성 산성 동쪽 앞 바닷가에 위치한 연유로 ‘산성포’라는 이명(異名)이 생겨났을 확률이 높다.

셋째, 속초시 노학동 땐봉마을 위치한 일명 ‘척산만호첨사유허지(尺山萬戶僉事有墟址)–물론 직위상 만호(4급 사령관)와 첨사(5급 사령관)가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지만’–와 미시파령, 원암역, 인근 고성군 죽왕면·토성면지역의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주요성지·봉수대 및 전설 등을 통해 이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또한 속초포(束草浦)는 ‘산성포(山城浦)’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으며, 태조6년인 1398년 설치되어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종 1462년경에 폐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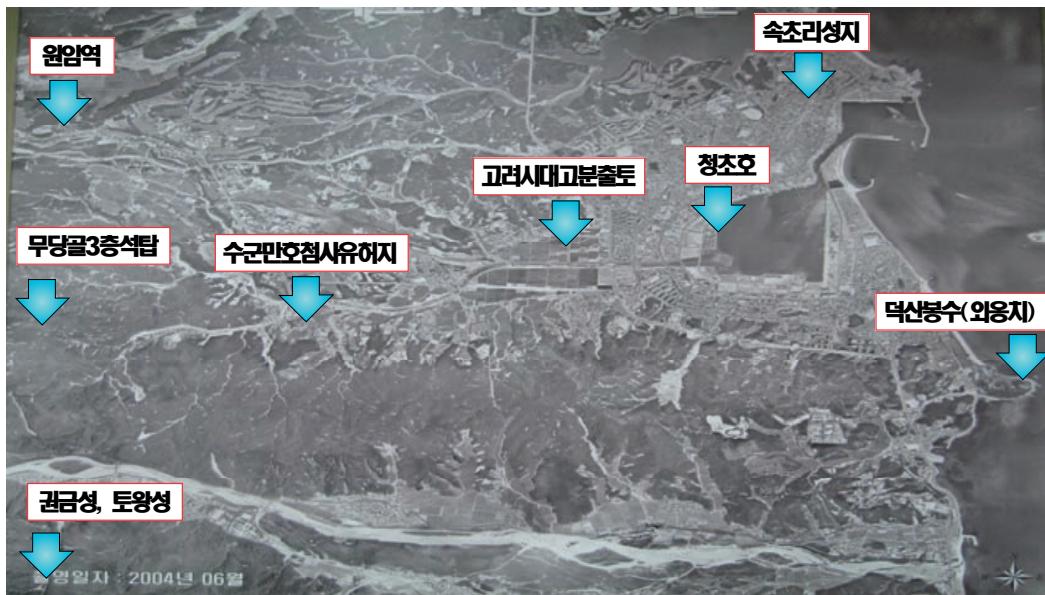
동해안의 설치된 수군기지의 목적은 주로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함으로 고려 때부터 설치되어 조선초까지 운영되어오다 조선중기에 삼척포 등 주요 진(鎮)이 거의 대부분이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산성포(山城浦)가 혁파된 시기도 1443년(세종 25) 첨지중추부사 변효문(卞孝文)이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정성(宗貞盛)과 세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대해 맺은 계해약조 이후 왜구의 침탈이 잦아든 시기로 1510년(중종 5년) 제포(내이포), 부산포, 영포의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대마도주 종성친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삼포왜란 전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넷째,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명문기와(名文起臥)가 출토된 속초리성지(束草里城址)에 대해서도 많은 향토사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속초포(束草浦)가 산성포(山城浦)라는 주장을 각종 사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나, 추후 좀 더 자세한 문헌고증과 유물·유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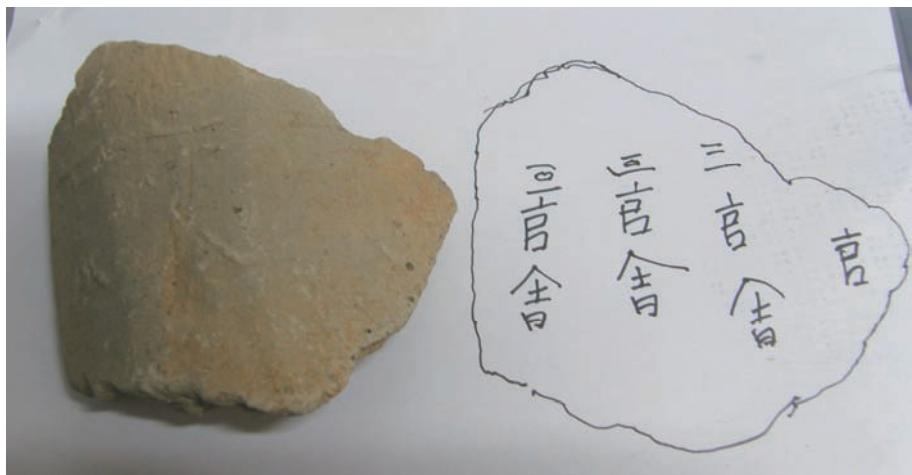
<표4 - 속초지역 관방 유적 위치도>



<사진 3 - 1950년 속초 청초호>



<사진 4 - 1928년 속초리(청초호 입구)>



<사진 5 – 관(官)자형 명문기와>



<사진 4 – 팔승원(八承員) 명문기와, ‘승’자에 대한 정확한 해독 필요>



<사진 5 – 양개? 명문기와>



<사진 6 - 노학동만호첨사유허지 표출 기와>



<사진 7 - 노학동만호첨사유허지>

※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
《세종실록지리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경국대전 병전》
《대전회통》
《만기요람》 해방조
《증보문헌비고》
문화원형백과사전
『양양군지』
《신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成齋集 金剛觀敘』
「옛 문헌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내고향 속초」 김정우, 1984
「조선고적보물조사」 조선총독부
「강원도지명의 유형별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정장호,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13집
『동해안 수군유적연구-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유재춘, 2010,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관리번호 CJA0014081 속초항수축공사(도면첨부), 국가기록원
「내 고장의 옛 지명」 김명환, 1988, 「속초문화」 제4호
『양양군지』 제8편 문화재·지명유래, 2010, 양양문화원
「속초 권금성 지표조사보고서」, 2007, 강원문화재연구소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예정지 지도위원회 보고서」 2009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선전기수군만호고」 p9~38, 張學根, 1987, 해사논문집
「조선초기의 변진방위와 병마첨사·만호」 p102, 吳從祿 1989 역사학보
「고성군지명유래지」 고성군문화원, 1985, p248

속초리 성지(束草里 城址)

설악산국립공원과 동해바다로 유명한 전국적인 관광지 속초!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태종 때 설치한 동해안의 수군 6포(六浦) 가운데에 속초포(束草浦)에 배가 3척, 군사가 210명이라는 기록만 있을 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양군 소천면[후에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이 됨] 속초리였던 한 동네가 일제강점기시절(1934~1936년경) 속초항을 어업항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속초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여 1942년 속초읍이 되었고, 양양군의 북쪽 일부와 고성군의 남쪽 일부를 합쳐서 1963년 시(市)로 승격된 곳이다.

그 옛날 속초의 중심지였던 이 곳! 속초시 동명동 365-15번지에 위치한 작은 언덕. 이곳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탁 트인 동해바다와 덕산봉수(德山烽燧)가 위치한 외옹치(外甕峙), 양양 낙산사(洛山寺) 해수관음상까지 훤히 보이고, 설악산과 울산바위, 달마봉까지 훤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지난 2012년 7월, 속초시 동명동 365-13번지(동명동 구, 오성식당 뒤쪽 야산)일대에서 고려시대 만들어져 사용되던 토성(이하 속초성)이 발견되었다.

이곳에 대해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년 발간, 이하 조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번호 : 24

종별 : 성지(城址)

장소 : 도천면(道川面) 속초리(束草里)

소유 : 사유

‘성지(城址) 도천면(道川面) 속초리(束草里). 사유지.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

< 城址 道川面束草里 私有 束草里部落ノ 西方ニ 近接セル 小丘上ニアリ 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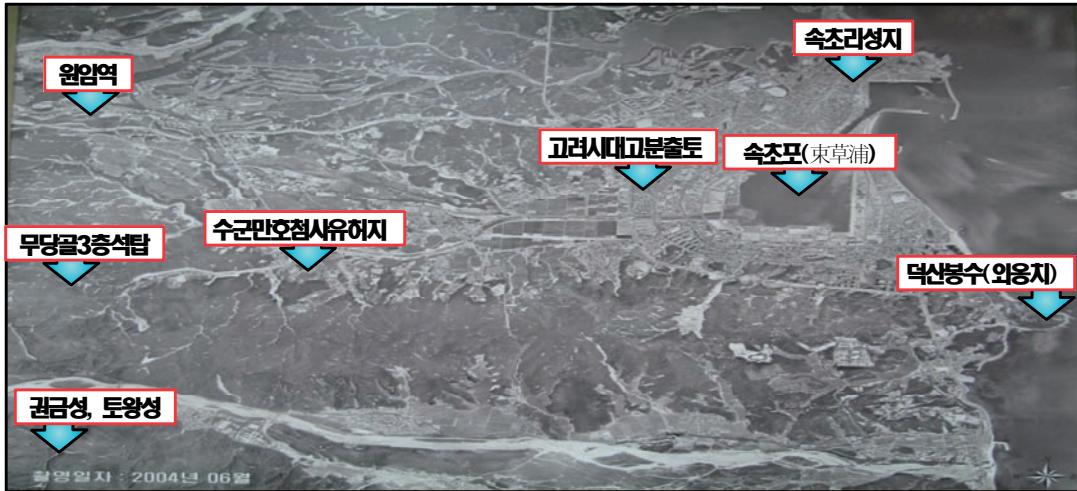
1. 속초리성지 개요

『조사자료』에서 기술한 지역은 현재의 속초시 동명동 365-15번지 일원(일명 장안마을, 단천마을)으로 수복탑 3거리 오성식당 뒤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속초감리교회~속초지원과 속초검찰청을 휘돌아 KBS 속초방송국과 舊.속초성결교회(지금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까지 연결되는 해발 20~40미터 정도의 구릉으로 둘러싸인 해안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속초성을 기준으로 동북쪽으로는 비선대(秘仙臺, 지금의 영금정)가 있고, 남동쪽 4km지점에 조선 초까지 사용되던 대포동 덕산봉수(德山烽燧)가 있고, 남쪽 1.5km지점에는 고려수군 만호지(高麗水軍萬戶址)지가 있었던 청초호(靑草湖, 일명 雙成湖, 雙城湖)가 있으며, 북서쪽

1.5km 지점에는 신라 화랑(花郎) 영랑(永郎)이 수려한 자연환경에 반해 한동안 머물다 간 것으로 유명한 영랑호(永郎湖)가 있고, 서쪽 10km지점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 지금의 미시령)과 원암역(元巖驛) 터가 위치해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속초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경방단(警防團)이 설치되어 미군의 비행기 공격 감시, 속초지역의 화재·재난을 감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 사진 - 1. 속초지역 관방유적 등 분포도 >

《현산지(峴山誌)》에 의하면 조선 영조 때 속초리의 인구는 86호 272명(양양도호부 전체 호구는 2,243호 8,485명)으로 양양도호부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네였다. 해안 쪽의 마을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곳 장안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가장 최근 시기는 한국전쟁이후부터라고 한다.

그 당시 이 지역은 대나무와 갈대가 무성하였으며, 최초 입주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기만 하면 기와편과 토기편들이 무수히 나와 옆 산등성['치(雉)']로 여겨지는 부분, 아래사진 해안가 쪽의 화살표 3개 있는 부분]에 갖다 버렸으며, 일제강점기 시절까지만 해도 주변에 사는 아낙네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곳 우물터에 와서 기와를 갈아 제기를 닦기도 하였다고 한다. 기와가루는 황토성분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탁월하다고 한다.

한편, 긴 장대에 낫을 달아 적의 목을 베는 용도로 사용되는 '군사용 낫'의 일부분이 치(雉) 부분에서 발견되었고, 동명동 450-25번지에서는 1953년 입주당시 집터를 파는 과정에서 폭 1m정도의 탄 자리(아궁이 터) 2줄이 길이 3m 정도 곧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대형 관사(官舍, 관청이나 관리들의 숙소)나 많은 수의 인원(또는 병사)들이 상주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동명동 450-24번지에서는 2012년 7월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2m정도 깊었는데, 건물의 기둥을 받치는 파임흔적 5cm정도의 전돌 파편(길이 40cm정도)과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암회색 경질의 수기와와 백자편 등이 발견되었으며, 치(雉)로 추정되는 구릉지에서는 천경3년(天慶三年), 계사사월일(癸巳四月日), 양개□(良玠□), 관사(官舍)등의 명문기와와 연화문, 어골문, 사격자문, 연화문+어골문, 사격자문+어골문의 복합문양의 기와 등이 발견되었고,

지명(地名) 또는 성명(城名)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명문기와가 다량 발견되었다.

이 지역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장안마을(일명 장골)이라 부른다. ‘장안(長安)’이란 한 나라의 수도를 일컫는 말이다.



< 사진 - 2. 속초리성지의 성곽도(추정) >

적어도 삼국시대~신라통일기를 거치는 동안 일시적이나마 우리가 위치를 비정 할 수 없었던 한 주(州)·군(郡)·현(縣)의 치소성(治所城)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성이 있거나, 이 지역에 출토된 관(官)자 명문기와로 보아, 중앙(中央)에서 파견된 관리(官吏)가 다스리거나 지방의 관리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문화연구회장인 한종섭 사학자는 ‘속초’가 고대국가의 왕도(王都)였다는 주장을 펼쳤는데(강원도민일보, 2013.10.28.기사 참조), 한종섭씨는 백제 500년 도읍지인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 백제초기 십제국(十濟國)의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 춘천 막국(貊國)의 왕도터를 발견한 분이라 그 주장이 허무맹랑하지만은 않다.

여하튼 속초지역이 국경(國境)지역이었다는 문헌자료는 현재 밝혀진 바 없으나, 강원도 간성군(杆城郡, 지금의 남쪽 고성군)의 군지(郡誌)인 수성지(守城誌) 산(山)조에 의하면, 천후산(天吼山, 지금의 울산바위) 밑 미시령 인근(속초성 서쪽 10km지점)에 방수(防守, 경계지역을 방어하는 부대)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지역이 삼국시대 또는 남북국 시대 등 국가 간의 전쟁기간 중 일시적이나 또는 오랫동안 양 전쟁국가간의 치열한 국경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성군 지명 유래지』에 소개된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속초성 북쪽 10km지점)의 전설을 보면 ‘삼국시대에 신라유민들이 이 곳에 들어와 어업과 농업을 겸업으로 하고 살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영토 확장으로 고구려 군사들이 신라 땅인 이 마을을 침략하였다’고 하여 미시령인근의 방수(防守)와 더불어 이 지역이 고구려와 신라의 치열한 격전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지역에서는 1968. 4. 3. 故박공달(1954년 속초소방대장 역임)씨에 의해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철모(투창의 앞부분) 4점이 발견되어 설악산을 포함한 이 지역이 옛날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前현대극단 단원이셨던 『내 고향 속초』의 작가 김정우도 장골, 장안마을이라 불리던 이

마을에 대한 지역 어르신들이 전하는 이야기, 자신의 어렸을 때 노닐던 기억,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한 경험, 토성 성벽과 4대문, 각종 기와에 얹힌 이야기를 토대로 이곳이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지(城址)였음을 피력하였다.

2. 속초리성지 출토기와

이 곳에서 발굴된 명문기와(글자가 새겨진 기와)의 경우 속초리성지의 축성(새로 만듬) 또는 중수(증축이나 보수)연대로 추정되는 천경3년(天慶三年, 고려 예종 8년으로 1113년에 해당) 기와 등이 발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양양 진전사(陳田寺), 설악산 권금성(權金城)에서도 같은 연대의 기와가 발견되었다.

천경3년(天慶三年)은 1113년(고려 예종 8년)에 해당되는데, 이는 참고연도(参考年度)일 뿐 절대적인 속초성의 축성(築城)연도나 중수(重修)연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천경3년(天慶三年)’의 명문기와가 석렬을 쌓고 흙을 판축한 곳에서 나왔거나 성벽 안쪽 각종 건물지에서 나왔다면 그 축성시기가 1113년(고려 예종 8년)과 비슷할 수 있고, 판축을 하고 나서 경사면을 만든 곳에서 나왔다면 1113년 또는 그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천경3년(天慶三年)’의 명문기와가 성벽 안쪽 건물지와 판축후의 경사면으로 추측되는 지점에서 중복 발견된 것으로 보아 명문의 연호와 동(同)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속초리성지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명문(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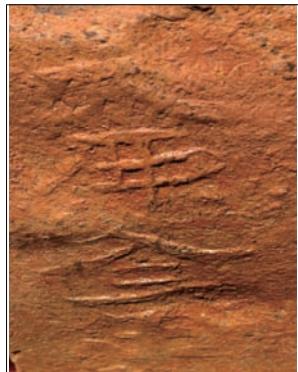


사진-3. 천경3년의
명문기와

번호	명문내용	문 양	색조	포목흔	암/수	비고
1	천경3년(天慶三年)	어골문	붉은색, 회색	유	암	진전사
2	천경3년계사(天慶三年癸巳)	무문	붉은색	유	암	진전사
3	관사(官舍)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4	우□조관사(右□造官舍)	무문	붉은색(진흙)	유	암	
5	양개□(良玠□)	무문	회색	유	암	진전사
6	난장(蘭長)으로 추정	복합	회색	유	암	
7	월일관사우□(月日官舍右□)	무문	회색	유	암	진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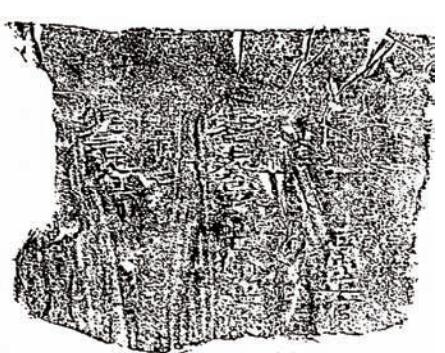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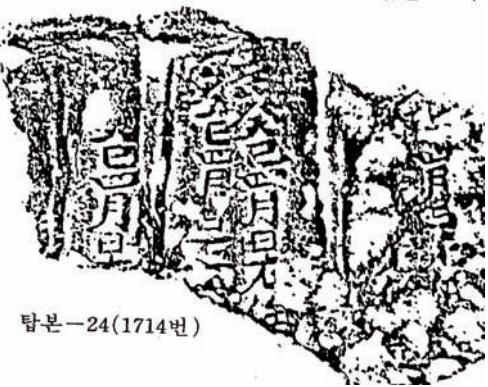
< 표 - 1. 속초리성지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

속초성에는 유달리 ‘관(官)’자 명문기와가 많이 발굴되고 있다. 『경주문화연구 제5호』의 차순철의 「관(官)자명 명문기와의 사용처 검토」라는 연구논문에 의하면, 관(官)자명이 짹혀 있는 문자기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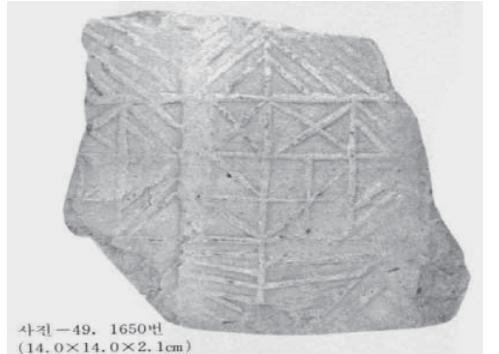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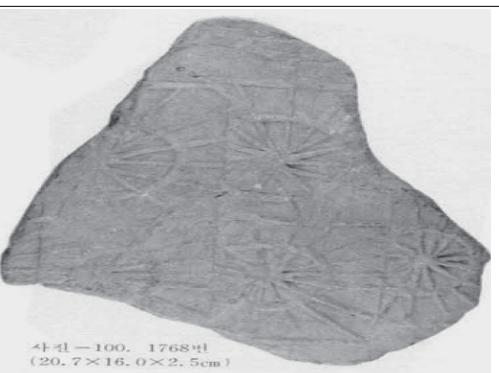
1. 관청건물에 사용될 기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관(官)자를 표시하였다. <중략>
6. 해당 지역의 지방이름과 “관”자가 결합된 문자기와를 살펴 볼 때, 당시에는 관(官), 성(城), 군(君)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초기까지 이 문자기와가 나타나는 점은 당시 지방호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다.

7. 관(官), 관초(官草), 신(臣)등과 같은 명문와가 출토되는 대형 건물지는 당시 지방호족의 거관(居館)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 양양 진전사지와 유사(명문 · 문양) 기와

속초리성지 출토기와	양양 진전사지 출토기와
	 답본-23(1713번)
천경3년(天慶三年) 연호 명문기와.	
	 답본-24(1714번)
천경3년(天慶三年)은 1113년 계사년(癸巳年)으로 고려 예종 8년에 해당된다.	
	 사진-82. 1729번 (14.0×9.7×2.0cm)
일지전(왕?)불(一之田(王?)不) 세번째 글자를 왕으로도 보이고 밭전(田)으로도 보인다. 집선문	부상대(不上大)

속초리성지 출토기와	양양 진전사지 출토기와
	 사진 - 16. 1555번 (11.0×10.0×2.0cm)
좌서로(左書)로 '양개(良玠)' 명문기와. 세번째 글자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소우는 모(牟)자'로 추정	좌서로(左書)로 '양개(良玠)'. 무문암기와에 양각
	 사진 - 19. 1562번 (20.0×14.0×2.0cm)
관사(官舍)라는 한자어의 최초사용은 7세기경 「연남생의 묘지명으로 의봉(儀鳳) 4년 (679) 정월 29일 (公이) 병을 얻어 안동부(安東府)의 관사(官舍)에서 돌아가시니.... 勅存撫遼東改置州縣求瘼卽隱襁負如歸劃野疎疆奠川知正以儀鳳四年正月」廿九日遘疾薨於安東府之官舍春秋有六	 사진 - 17. 1557번 (7.9×6.7×2.0cm)
'대(大)'자명의 인장와 암인의 경우 주로 백제지역에서 출토되었으며, 백제가 망한 이후 8C경 전국적인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 4. 1532번 (16.3×13.0×2.5cm)
'대(大)'자 암인. 무문암기와의 좌서로 암각	

속초리성지 출토기와	양양 진전사지 출토기와
	 사진 - 49. 1650년 (14.0×14.0×2.1cm)
춘천 봉의산성 유사	
	 사진 - 100. 1768년 (20.7×16.0×2.5cm)
차륜문(원의 중심에서 여러 개의 선이 뻗어나감)과 집선문(어꼴문의 복합)이 함께 있음	

< 사진 - 5. 진전사지와 유사(명문 · 문양) 기와 >

□ 속초리성지 단독 문양 기와

	
한자가 새겨진 보통의 명문기와와는 다르게 그림문양이 새겨진 기와	사격자문(마름모 모양)과 어꼴문양이 함께 있는 기와도 있고, 금대리사지 출토기와와 유사. 마름모양을 2~3회 겹치는 고구려 능형문양식과 유사

월일우(月日右), □□사월일(□□四月日)	左書-長蘭, 蘭耳, 蘭年 주정. 속초성을 원주민들은 장안(長安)마을이라 불렀음.
복합문	이중원과 어골문의 복합
기와를 갈아 만든 방추자 모양, 전돌	사오목(四奧目)?

< 사진 - 6. 속초리성지 단독 문양 기와 >

3. 고려시대의 영동지역의 군사정황

천경3년(1113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 속초리성지는 관연 고려시대에 어 떠한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그 용도를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의 우리 지역을 포함한 영동 지역의 군사정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1. 고려시대 영동지역의 주진군(主鎮軍)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에 2군 6위가 있었고, 지방의 각 도와 양계에 주현군(州縣軍)과 주진군(州鎮軍)이 있었는데, 지방의 주진군은 국경의 방어를 담당하였으며 지금의 영동지방에 주둔한 주진군의 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대 지명	낭장 (郎將) (人) 대대장	별장 別將 (人) 중대장	교위 校尉 (人)	대정 隊正 (人) 소대장	행군 行軍 (人)	초군 抄軍 (人)	좌군 左軍 (隊)	우군 右軍 (隊)	영새 寧塞 (隊)	공장 工匠 (棟)	비고
금양		2	4	10	250	4	3	3	1		통천
고성		1	4	9	225	1	1	3	2		북고성
간성		1	5	10	250	4	4	2	1		고성
익령		3	3	9	225	4	2	4	1		양양
명주		5	10	23	575	8	8	8	4	1	강릉
삼척		1	8	16	400	4	4	9	1	1	
울진		1	3	8	200	2	2	3	1		
계		14	37	85	2,125	27	24	32	11	2	

< 표 - 2. 동계 영동지방의 주진군 배치 현황 >

고려시대 강원도 영동지방이 속한 동계(東界)에서 주진군의 핵심이 되는 상비부대는 초군, 좌군, 우군이 있었고, 그밖에 수성(守成)의 임무를 담당한 영색군이 있었다. 이들 제(諸)부대는 25명의 행군으로 구성되는 ‘대(隊, 지금의 소대규모)’가 최하의 기본단위 부대였고, 그 장(長, 소대장)이 ‘대정(隊正, 종9품 관직)’이다. 교위(校尉)는 정8품 관직으로 대정(隊正)의 상관이다. 별장(別將)은 정7품의 관직으로 별장의 상관으로 낭장(郎將)이라는 정6품 관직이 있다.

대체로 교위 1명에 대정 2명의 비례(1:2)인 것으로 보아 50명 단위의 부대조직이 예상되며, 그 장이 ‘교위(지금의 중대장)’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 별장의 수가 교위의 반(半)인 것을 보면, 100명 단위의 부대조직과 그 장인 ‘별장(지금의 대대장)’을 생각할 수 있다. 양양에는 별장 3인, 교위 3인, 대정 9인, 행군 225인, 초군 4인과 좌군 2대 우군 4대, 영색군 1대가 배치되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익령군(양양군의 옛 이름)의 별장(別將)의 수(數)와 행군(行軍)의 수를 비교해 볼 때 명주, 삼척, 울진, 간성보다 별장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다른 군현이 별장(1) : 교위(2)의 비례로, 교위(1) : 대정(2)의 비례인 반면 익령은 별장(1) : 교위(1)의

비례로, 교위(1) : 대정(3)의 비례로 별장의 수가 많다.

상위계급의 군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야 할 중요한 성(城) 및 지역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결정을 위해서 상급 무관이 많이 배치되었을 수도 있다.

고려시대 별장(別將)의 임무와 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평상시 각 성(城), 포(浦), 봉수(烽燧) 등의 관리·수비 책임자로 있다가 전시에는 중앙에서 파견되거나 지방호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쟁발생시 임명된 낭장(郎將), 중랑장(中郎將)의 지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기백은 『고려 병제사 연구』에서 동계의 경우 낭장(郎將)은 안변도호부, 9방어군 중 7방어군(예주, 명주제외)과 10진중에서 원흉, 영인, 요덕에만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1차 사료는 아니지만 2차 사료로써 『강릉김씨 대동보』에 기록된, 16세손인 김정(金貞)이라는 분의 공적을 보면 “고려 고종10년(1223년) 사마진사시에 합격, 1253년에 낭장(郎將)으로 몽고병이 양양을 함락하였을 때 이를 수복하고 격퇴한 무훈...”라는 기록과 『고려사절요』 권4, 덕종 원년(1031년) 2일에 “통주(通州) 호장(戶長) 김거(金巨)는 거란 침략 시 전투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낭장(郎將)으로 승진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지방호장들이 전시에는 무관직을 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리해 보면 “향리의 장교직 겸임규정은 문종 때 만들어졌지만 이미 이전부터 향리들이 지방군을 지휘하는 장교직(將校職)을 맡고 있었을 것(권영국 『사학연구 제 64호』).”으로 보아 호장(戶長)인 김정(金貞)의 업적과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에 왜구의 침입 등의 전란 시 지방의 주현군을 지휘할 상위계급의 무장이 개경으로부터 파견되었거나 각 도의 치소성(治所城)에서 파견되어 진 것으로 보여 진다.

상기 도표의 별장(別將)의 수와 향리들이 장교직을 겸임한 것으로 봤을 때, 명주이외에 익령에 별장이 3인을 배치했다는 것은 별장이 지휘할 성이 3개 이상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익령(翼寧)내의 3개의 성은 양양군 경내(境內)의 축성시기를 볼 때, 나말여초의 양양 임천리의 석성산성(石城山城),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현남면 후포매리 산성(後浦梅里 山城)-홍영호는 「양양 후포매리 신라산성의 고찰」에서 “이 산성은 익령현의 속현인 동산현의 치소성 또는 배후성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와 지금 논하고자하는 1113년에 축조 또는 중수된 속초성(束草城)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2. 영동지역의 성곽(城郭)의 특성

『한국의 읍성』에서는 “성(城)은 쌓는 위치에 따라 도성(都城), 산성(山城), 읍성(邑城), 진보(鎮堡)로 나눈다. 이 가운데 산성과 진보는 전투(戰鬪)를 목적으로 쌓은 성(城)이고, 도성과 읍성은 행정(行政)과 생활(生活)을 위해 쌓은 성(城)이며, 이외에 창성(創成), 역성(驛城), 행성(行城), 차단성(遮斷城) 등이 있다(『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축성연구』, 유재준)”라고 한다.

영동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성곽은 영동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의 특징과 관방체계, 교통로 등을 검토해 볼 때 크게 해안성(海岸城), 거점성(據點城), 입보용산성(立保用山城)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안성-거점성-입보용산성의 분포양상은 3~4단계의 관방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관방

체계는 성곽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유물들로 보아 고려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관방체계는 11세기 북동쪽 동여진부터 14세기 남동쪽 왜구의 동해안 침입에 대한 방어 체계로 생각되며, 또한 몽고 병란기에도 입보용산성이 거점으로 관방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해안성-거점성-입보용산성의 분포양상은 입지에 따라 산성-평지성-평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산성(平山城)은 동여진·왜구의 동해안으로의 약탈·침입이 계속되어 협소한 영동지방의 평지와 해안으로부터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방어기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키고 훈련하는 진(鎮)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해안성들이 위치한 곳과 읍성들 사이 평지 곳곳에 진성(鎮城)을 축조하였고, 평지성(平地城)은 주요 지방도시에 축조된 읍성으로 농지 관리 등 지방업무를 지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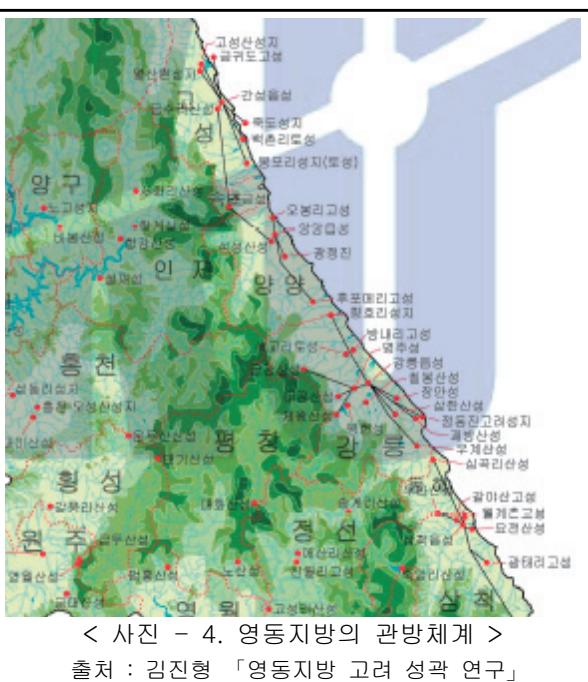
김진형은 「영동지방 고려 성곽 연구」에서 ‘해안성(<사진-4>) 침조은 성곽의 둘레가 600m 미만인 소규모의 퇴뫼식 석성이 대부분이며, 이 성곽들은 동해안에 인접하고 사방관측에 유리한 타원형으로 축조되었으며, 거점성은 평지성, 평산성으로 고려사회가 안정되면서 행정적 기능을 추가시킨 성곽이다. 거점성은 처음에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나 점차 외부세력의 침입으로 행정기능뿐 만 아니라 군사적 기능도 수행하게 되어 석성으로 변모한다.’고 했다.

한편, 동해안지역의 방어를 위해 병선(兵船)을 배치하거나 해안지역에 축성을 배치하면서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였는데,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 존재하는 89개의 성터중 동해안지역에는 총 45개의 성곽이 존재하는데, 이 중 고려시대 여진과 왜구의 대비를 위해 산성을 새로 쌓거나 보수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19개 성으로 나타났다.(『강원도사 4』)

『고려사절요』 목종 10년(1007년)
10월에 흥화진(興化鎮: 평북 의주군)·
익령(翼嶺: 강원 양양군)·울진현(蔚珍縣: 경북 울진군)에 성을 쌓았다(‘城興化鎮翼嶺蔚珍縣’)라는 기록이 있는데, 익령에 쌓은 성이 현재의 양양읍성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익령 관할 지역 내에 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후, 고려 말 1385년(우왕 11년), 허주(許周)가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있으면서 읍성을 다시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사 병지(兵志)에는 ‘익령현에 성을 쌓았는데 348간(間)이고, 문이 넷 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속초성이 주위 약 300간(間, 1간=약 1.8m, 300간=약540m)’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거의 비슷한 규모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양양읍 임천리의 석성산성(石城山城)이 발굴되기 전까지만 해도, 목종 10년

(1007년)에 익령현에 축성된 성은 지금의 양주성(襄州城)으로 간주되어 왔다. 『양양군지』에서는 이 성을 양양읍성(襄陽邑城)으로 보고 있다.

양주성(襄州城)이라는 명칭이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 치소성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익령현이 양주가 된 기록은 고려사에 1221년 거란병의 침공을 물리친 공으로 양주방어사(襄州防御使)로 승격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221년 이후에나 양주(襄州)로 불리었을 것이다.

그러나 석성산성에 대한 발굴 후, 통일신라기 익령현의 치소성이 석성산성으로 비정되었으며, 지금의 양양읍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운영된 양양읍성의 성벽구간에 대한 최근의 발굴조사결과, 양양읍성은 고려시대 중기~후기에 토성으로 먼저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려 우왕 11년(1385년) 허주(許周)가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있으면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새로이 읍성을 다시 축조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현재의 양양읍성이 고려시대 후기에 새롭게 축성된 것임을 입증해 주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된다.

즉 익령현의 이전 치소성이 석성산성은 이미 신라통일기(남북국시대) 후기에 축성·운영되었고, 양양읍성은 고려 중~후기에 축성된 성으로 목종10년(1007년)에 축성된 익령현의 한 성과는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기적으로 정리해 볼 때 전국에 4도호(都護) · 8목(牧) · 56지주군사(知州郡事)와 28진장(鎮將) · 20현령(縣令)을 두었던 현종 9년(1018년) 2월에 익령현에도 현령을 두고 동산현(洞山縣)을 속현(屬縣)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양주성(석성산성)을 치소로 두었고, 우왕 때 허주(許周)가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재임하면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주민들을 보호하기 쉬운 거주지역 인근에 읍성(지금의 양양읍성)을 새로 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우왕(1375~1388)시기는 왜구가 침입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으며, 이후 조선시대로 들어와 세종 11년에 연해지역을 읍성위주로 운영하고 산성을 폐지하도록 명하던 시기에 “석성산성”이 완전히 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단원에서 속초성의 축성 성격분석을 하기 전에 목종10년(1007년)에 익령현에 축성된 성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다음에서 논할 속초성의 축성시기와 축성목적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 -5. 폴 팬처(Paul Buford Fancher)가 기증한 속초항공사진(원안이 속초리성지)
지금은 각종 개발 및 주택건축으로 원형이 훼손되었지만, 지난 1963년경 속초에 주둔해 있던 미군 통신부대 근무하던 폴 팬처(Paul Buford Fancher)중위가 기증한 속초리 항공 사진에는 속초리성지의 원형이 잘 나타나 있다.

4. 속초성지 용도 분석

4-1. 여진, 거란, 몽고, 왜구 등의 1차 방어를 위한 속초성지

여진은 크게 서여진과 동여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여진은 고려와 거란의 양대 세력 사이에 끼어 있다가 고려의 강동6주의 확보로 일단락되었지만, 동여진의 해寇(海寇)는 제2차 거란과의 전쟁 이후 거란의 파상적 공격이 계속되면서 동북면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더욱 빈번히 침략하였는데 현종 2년(1011년)부터 숙종 2년(1097년)까지 약 80여 년 동안 20여 차례나 여진족의 침입을 받았으며, 동해안에 출몰하여 노략질한 것이 20여 회나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거란(993~1018년, 1217년), 여진(1107~1115년)의 침입을 받았다.

그 후 몽고가 고종 18년(1231) 고려에 침입해 왔다. 강원지역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휘말려들게 된 것은 1253년부터다.

고종 40년(1253) 당시 몽고부대는 동북면에서부터 남하하여 9월에 등주(登州, 안변도호부)를 포위 공격하고, 10월엔 금양성 곧 통천방면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10월 21일 양주(양양)를 점령하였다. 낙산사 승려 익장이 쓴 『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 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권금성이 것이라고 추정되며, 1253년경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로 최근의 조사에서 권금성이 고려시대(1113년까지 추정) 중기에 쌓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려 후기에 오면 왜구가 전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침입은 무려 471회나 기록되어 있다.

우왕 5년(1379) 왜구는 경상도 내륙지방을 침범해 승리한 왜구의 일부는 6월에 강릉도를 향하므로, 조정은 조인벽(趙仁璧)을 강릉도원수로 삼아 이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우왕 9년(1383)에도 왜구가 동산현(현남면 동산리)에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은 조준(趙浚)을 강릉교주도검찰사(江陵交州道道檢察使)로 임명하여 이 일대의 왜구 토벌에 나서게 하였다. 원수 이을진과 부원수 권현룡 등이 동산현(양양)에서 왜구 20명을 죽이고 말 72필을 노획하는 승리를 거두자 왜구는 고성포로 퇴각하였다. 그 뒤 고성포에 정박한 왜구는 11월에도 빈번한 야간 기습작전으로 고려군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1383년에 왜구들은 소규모 병력을 동원한 국지전을 전개하면서 내륙지역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였으나 고려군의 적극적인 토벌작전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 왜구는 1385년 4월에 양양에 다시 침입하였으나 모두 고려군에 의해 패배한 기록이 있다.

여진, 몽골, 왜구들의 침입으로 볼 때, 김진형 등이 최근 동해안 지역 성곽들에 대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동해안의 성(城)들은 동여진의 침략이후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동해안에 침입하는 외적들을 막기 위해 축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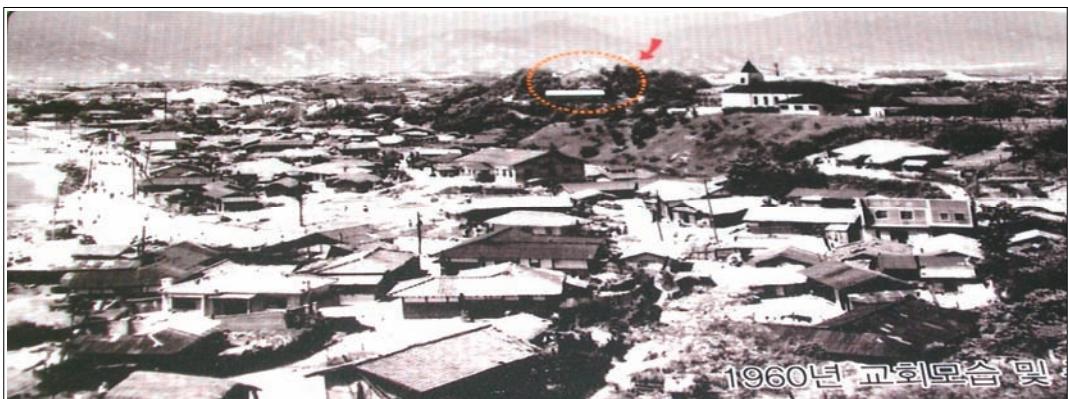
동해안 지역의 축성(築城)이 목종8년 이후부터 거의 매년 있었다는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임시대처가 아니라 고려중앙에서 외적에 대한 방어 및 동태를 살피기 위한 감시초소 등의 역할을 위해 계획적으로 성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영동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성곽은 크게 해안성(海岸城), 거점성(據點城), 입보용산성(立保用山城, 피신용 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안성-거점성-입보용산성의 분포양상은 3~4단계의 관방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관방체계는 성곽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유물들로 보아 고려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관방체계는 11세기 북동쪽 동여진 부터 14세기 남동쪽 왜구의 동해안 침입에 대한 방어체계로 생각되며, 또한 몽고병란기에도 입보용 산성이 거점으로 관방체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또한, 해안성-거점성-입보용산성의 분포양상은 입지에 따라 산성-평지성-평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산성(平山城)은 동여진·왜구의 동해안으로의 약탈·침입이 계속되어 협소한 영동지방의 평지와 해안으로부터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방어기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키고 훈련하는 진(鎮)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해안성들이 위치한 곳과 읍성들 사이 평지 곳곳에 진성(鎮城)을 축조하였고, 평지성(平地城)은 주요 지방도시에 축조된 읍성으로 농지 관리 등 지방업무를 지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속초성은 해안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피난성인 입보용산성이라고 하기에는 외적들을 피하기에는 전장지(戰場地)와 너무 가까우며, 외적이 해안으로 침입 시 1차적으로 그들을 막기 위한 전투성(戰鬪城)이나, 치소성(治所城)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 사진 - 6. 북쪽해안에서 바라본 속초리성지(출처 : 속초감리교회80년사) >

2. 치소성(治所城)으로서의 속초성지

앞서 말했듯이 속초성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한나라의 수도를 일컫는 말인 장안마을(長安, 일명 장골)이라 부르는데, 적어도 일시적이었거나, 현재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없는 한 주·군·현의 치소성(治所城)이었거나, 큰 규모의 성(城)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그 근거로는 속초성 발굴에서 ‘관(官)’ 또는 ‘관사(官舍)’자 명의 명문기와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신라통일기 영동지방의 주·군·현의 읍치성(邑治城)들은 주민집단 거주지에 속하는 충적지(充積地)나 평지(平地)보다는 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근접한 산야(山野)에 위치 “했던 반면, 고려시대 거점성은 평지성(平地城), 평산성(平山城)으로 고려사회가 안정되면서 행정적 기능을

증가시킨 성곽으로 거점성은 처음에는 토성(土城)으로 축조되었으나, 점차 외부세력의 침입으로 행정적 기능뿐 만 아니라 군사적 기능도 수행하게 되어 석성(石城)으로 변모하게 된다고 했다.

만약 속초성이 동여진 · 왜구 등 외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축조된 성이라면 산등성이나 성 맨 윗부분이 석성으로 축조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다만 그 옛날 석성이었을지도 모르나, 지금의 존재형태로나 『조사자료』의 기록상으로도 흙만으로 쌓은 토성(土城)이나 강돌로 기단을 만들고 흙을 쌓은 토성 혼축(土城混築)으로 성을 쌓았으며, 피난성처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점, 구릉이 높이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군사공급과 훈련을 담당하던 성이나, 농사를 관리하는 지방업무 등의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는 강릉 영진리 토성, 양양 대포령성 등이 있다



사진-7. 속초성의 위치

최종석은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에서 ‘조선시기에는 치소역할을 하고 있는 성(城)을 부를 때 □□군성(郡城), □□현성, □□읍성(邑城) 또는 군·읍·현을 생략하고 □□성(城)으로 불렸다고 했는데, 이전 고려시대에는 치소 역할을 하는 성을 지칭할 때 □□현(縣)·군(郡)·진(鎮)·부(府)성(城), □주(州)성(城) 등이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고려 공양왕 2년에 청주성(淸州城)에 물난리를 겪었을 때 청주성 내 관사(官舍)가 물에 잠겼다는 기록을 통해 관사(官舍)가 있는 곳은 치소성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다만 치소(治所)와 치소성(治所城)의 차이를 두어 주 군·현 치소와 달리 속현에도 치소성(長吏의 官府인 邑司)을 두어 주군현과 속현의 치소차이를 달리 구분하였다.’고 한다.

고려 말 이전 치소가 위치한 성(치소성), 즉 읍성은 대개 평지에 축조되거나 평지와 구릉을 연결하여 쌓는 등 기본적으로 평지를 토대로 축조되었다. 이와 달리 치소성은 속초성 처럼 평지에 연접한 높지 않은 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읍성은 외관청(外館廳)이 위치한 성으로 접한 높지 않은 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읍성은 외관청(外館廳)이 위치한 성으로 지방관(地方官)이 파견된 주현(州縣)에만 설치된 반면, 고려시기의 치소는 향리(鄉吏)층의 집무소(執務所)인 읍사(邑司)를 의미하였고, 치소성은 주현과 속현 구분 없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읍성은 일부 주현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읍성들조차 하삼도와 강원도 연해 지역 및 북쪽 국경 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치소성은 주현과 속현, 양계와 남도 지역의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사자료』에 소개된 각종 성지 중 영동지역의 장안성(長安城)으로 표기된 곳은 대부분 강릉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예국(瀛國)시대의 성지로 추정되거나, 명주성의 경우, 신라 통일기 때부터 설치·운영되어 오던 명주호족(溟州豪族) 김주원(金周元, 태종 무열왕의 아들

김인문 또는 김문왕의 6대손)의 성(城)으로 모두 군장국가나 한 주의 치소성 또는 호족의 거관(居官) 등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호족의 거관(居館)으로서의 속초성지

『동국여지승람』 간성군 단유(壇儒)편을 보면, 『설악(雪嶽)은 신라사전(新羅祀典)에 우성군(迁城郡=간성군의 옛 이름이나 수성군(守城郡)으로 오자로 여겨짐)에 속한 명산으로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고 한다.

“소사(小祀)”란 신라가 각 지역을 정복한 후 그 지역의 부족들이 이미 제사를 지내왔던 산천신(山川神)들을 신라의 신으로 흡수한 제사(祭祀)이다.

이 소사는 전국에 24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각기 고대부족들이 있어서 이들을 신라가 통합하면서 그들 조상신(祖上神)과 산천신(山川神)을 정치적 재편성을 위해 즉 그 지역의 반(反)신라적 감정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들 지역의 산천을 사전(祀典)에 편입시켜 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양양과 간성지역 일대에도 강원도의 실직국(悉直國, 지금의 삼척시)처럼 신라에게 위협을 줄만한 고대부족 또는 국가형태로의 발전 이전단계인 군장국가(君長國家), 성읍국가(城邑國家) 정도의 세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철기 시대 초기의 국가로 속초 청호동지역에서도 철기시대 유적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7세기 전·후 이지역의 지방호족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 ① “지금의 영동지역의 고성군, 간성군,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 등이 모두 고호(古號)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읍호(邑號)는 그 지역에 일정하게 세력권이 형성되어 공동체적 삶이 영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권은 적어도 삼국의 태동기 이전 시기로부터 파악되고 있다.”(「신라의 북방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이규대)
- ②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산 59번지 고분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금동관고리 7점을 유추해 볼 때 이 지역이 4~6세기 고구려 영토이었을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었음을 가능 해 본다.
- ③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연호를 가진 명문기와 「天慶三年癸巳四月日」 가 속초성과 양양 진전사(陳田寺)에서도 출토되었다는 점과 속초성, 진전사, 설악산 권금성의 출토 기와류의 등면에 새겨진 문양도 동일한 것은 지역 내 한 생산물을 사용한 결과로 여겨지며, 출토 유적의 성격이 사찰인 것을 고려해 보면 진전사, 권금성, 속초성이 하나의 세력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④ 『고려사절요』 충렬왕 9년(1283) 4월 기사에 실린 ‘원나라를 오고갔던 동계 간성(杆城) 사람 송번(宋蕃)과, 『세종실록지리지』의 간성군(杆城郡)의 토성(土姓, 그 지역을 본으로 하는 성씨)이 ‘송(宋)’과 ‘이(李)’, 양양군(襄陽郡)의 토성(土姓)이 ‘김(金)’, ‘이(李)’ 등 양양군과 간성군 사이에 위치한 속초지역까지 영향을 끼친 권세있는 지방호족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⑤ 1985년 속초시 교동 산199번지 교동택지개발구역의 한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자상감 우점문완(青瓷象嵌雨點文盃)과 청동 숫가락은 고려시대(14세기 말로 추정) 후기의 유물(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로 고려시대 이 지역에 상당한 지위가 있던 세력이 존재했음을 암시해 준다.

몽골의 침입이후 또는 조선시대 세종의 산성정비(1429년) 이후에 속초성이 성(城)으로서의 생명을 다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 속초리 성지의 남쪽언덕에는 묘(墓)가 하나 생겼는데, 묘의 주인은 강릉 최씨 충무공(忠武公, 일명 필달파 必達派) 비인공파(庇仁公派)의 최후태(崔厚泰- 강릉최씨 25대손)라는 분으로 족보를 해아려 볼 때 대략 1688년경에 태어나서 1750년경에 돌아가신 분이다. 강릉 최씨는 강릉김씨, 강릉 박씨 등과 더불어 영동지역의 세족(勢族)인데, 강릉 최씨의 시조 최필달(崔必達)은 고려 초기 왕건(王建)을 도와 삼한통합(三韓統合)에 공을 세워 삼중대광 삼한벽상 개국찬화공신(三重大匡三韓壁上開國贊化功臣)이 되었으며, 그 후손들이 강릉·양양·고성 지방에 세거하면서 중앙정부의 요직 또는 지방의 좌수·별감·호장의 역할을 하였다. 국가가 관리하던 성(城)이 있었던 곳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소유였을 텐데, 한 지방 유력가문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것이 의아하지만....

고려의 건국초기인 성종2년(983년) 이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종양에서 파견된 상주(常住) 지방관은 없었다. 지방은 각지에 저마다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城主) 혹은 장군(將軍)이라 칭하는 호족들의 손에 맡겨져 있던 실정이었다.

추정해 보건데 이 곳이 전투성(城)의 용도였다면 국가의 소유로 관리·운영되었을 것인데, 고려 초부터 중앙에 편입된 호족의 군사(軍士), 성(城)들이 성(城)의 용도가 폐해진 이후 또는 고려 중기이후 권문세족의 세력 하에 사족의 소유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확실한 것은 묘가 생긴 시점인 1750년경을 이후로 성의 용도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속초성에서는 유달리 ‘관(官)’자 명의 기와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홍성 월산리유적(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 발굴)과 영동 계산리 유적(2002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발굴)에서 ‘○官’, ‘官○’명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고, 두 곳 모두 지방호족의 거관일 가능성이 높다하였다.

4. 속초포(束草浦)의 배후성지로서의 속초성지

고려는 목종 8년(1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적의 침략에 대응하였다. 고려는 우선 동해안의 요충지에 성곽을 축조하여 방어를 꾀하였고, 해적을 해상에서 물리치기 위해 수군배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동여진 해적의 공세에 시달렸던 동해안지역의 전략적 요지에 성을 쌓음으로써 이를 해적에 대한 방어거점으로 삼고, 이와 함께 동해안에서 해적을 물리칠 수 군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도부서(都剖署)를 설치하였다.

강원도가 속한 동계의 경우 진명(鎮溟. 지금의 원산)에 진명도부서(鎮溟都剖署)가 설치되었는데, 진명현을 성을 쌓은 목종8년(1005)이후 늦어도 진명구(鎮溟口)에 대규모 함대가 배치되는 현종 즉위년(1009)이전에는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

『고려사』 병지에는 고성현, 간성현, 익령현, 명주, 삼척현, 울진현에 배치됨 주진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진군은 대체로 성(城)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전투단위부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산성(山城)과 읍성(邑城)을 제외하고도 수군영(水軍營)의 주변에 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1512년 석성을 쌓은 울진포영, 1520년에 석성을

쌓은 삼척포진(三陟浦鎮), 양양 대포영(大浦營) 등이 그 예(例)이다.

조선후기 편찬된 『대동지지』에는 각종 문헌 중에서 유일하게 ‘속초 청초호(青草湖)에 고려 때 설치한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세종실록자리지』에는 ‘태조 때 설치한 동해안의 수군(水軍) 6 포(六浦) 가운데서도 속초포(束草浦,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속초포(束草浦)의 수군만호(水軍萬戶)와 관련된 역사유적으로는 노학동 척산(청초호 서쪽 3km) 땐봉언덕에 수군만호의 관사(官舍)로 추정되는 수군만호첨사유허지(水軍萬戶僉使有虛址)가 있으며, 속초성이 피난성처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점, 구릉이 높아 비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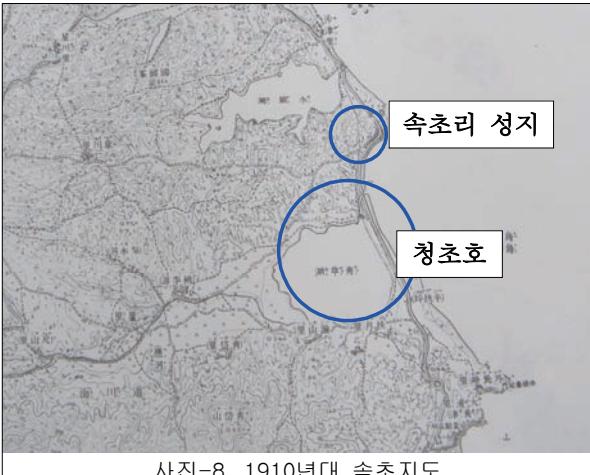


사진-8. 1910년대 속초지도

높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군사공급과 훈련을 담당하던 성곽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예로는 강릉 영진리 토성, 양양 대포영성 등이 있다. 속초성 또한 속초포(束草浦)의 배후성(背後城)일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속초포가 청초호 어느

‘속초포(束草浦)’는 일명 “산성포(山城浦)”라고도 불리우는데, 필자는 「세종·세조실록상 속초포와 산성포의 위치비정 연구」에서 속초포와 세종·세조실록 상에 나타나는 산성포를 당시 정세 및 위치분석 등을 통해 동일한 지명임을 피력하였고, 태조 6년인 1398년 설치되어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종 1462년경에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홍영호 또한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해와 하슬라(백산학보 제95호)』에서 동해안의 각종 수군기지(浦, 鎮)가 청초호와 같은 석호(潟湖)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여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다만, 그 넓은 청초호 어디에 속초포가 있었느냐는 게 관건인데,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성포 폐지된 것으로 보아 1928년 속초앞바다 사진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옛날 어르신들의 증언에 의하면 반부득(지금의 조양동)에서 속초, 속진리방면으로 오는 길은 지금의 부영아파트앞을 지나는 길이 아니라 사진처럼 호수를 가로지는 모래사구 위를 걸어오는 길이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초호의 범위가 현재의 청초호보다 속초성이 있는 속진리 앞바다까지 확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 9. 1928년 속초리 앞바다(시청앞 추정)
<출처 : 설악신문사>

지명	연대	주요내용	문헌
속초포 (束草浦)	1398년 (태종 6년)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
산성포 (山城浦)	1429년 (세종 11년 2월)	연해지역을 읍성위주로 운영하고 산성을 폐지 하도록...	세종 권43
	1422년 (세조 4년)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 (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세조 권15,
	1462년 (세조 8년 8월)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 (定泊) 하기가 어려우며... 산성만호(山城萬戶)·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	세조 43권,

< 표 - 3. 세종·세조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관련 기사 >

지금까지 속초성의 축조시기, 축성목적과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발견된 명문기와, 시대상황, 성의 위치, 주민들의 전하는 이야기 등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속초성의 축조시기는 다음과 같이 3시기로 유추할 수 있다.

순번	예상시기	추정근거
1	1007년 - (목종 10년)	흥화진(興化鎮; 평북 의주군) · 익령(翼嶺; 강원 양양군) · 울진현 (蔚珍縣; 경북 울진군)에 성을 쌓았다.
2	1046년 - (문종 원년)	병부랑중(兵部郎中) 김담(金擔)을 보내어 동해에서 남해에 이르기 까지 성곽과 농장을 만들어 왜구의 침입을 막았다
3	1113년 - (예종 8년)	속초성에서 발굴된 천경3년(天慶三年) 명문기와 기준

<표 - 4. 속초성의 축조시기(예상)>

속초성의 성격과 축성 용도는

첫째, 각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등을 거쳐 가면서 동해안의 군사적 용도로의 성의 대부분이 왜구와 여진족, 몽골족을 등을 막기 위한 성(城)임을 감안할 때, 본 속초성 또한 왜구와 여진족, 몽골족 등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속초리 성지가 해안선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한 군사적 용도로의 성이였거나, 마을사람들에 의해 구전되어 내려오는 ‘장안마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동안 속초성이 한나라의 수도는 아니지만, 중심 마을을 의미하는 장안(長安)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최소한 삼국~신라통일기동안의 역사상 위치가 비정되지 않은 한 주·현(州·縣)의 치소성(治所城) 또는 속현의 치소성(長吏의 官府인 邑司)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나

셋째, 지방호족의 거관(居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넷째, 대동지지에는 각종 문헌 중에서 유일하게 청초호에 ‘고려 때 설치한 수군만호기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동해안의 수군 6포(六浦) 가운데 속초포(束草浦)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좀더 문헌적·지리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속초성이 속초포(束草浦)의 배후성일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중요한 것은 속초포가 청초호 어느 위치에

있었나가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그에 대한 연구는 향토사학자들의 임무가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관(官)」자 명문기와가 다양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문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초성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건설된 곳이라는 것이며, 위의 세가지 용도 중에서 유일하게 한가지만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성(城)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위의 네가지 용도가 순차적으로 사용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속초지역 또는 속초리 성지의 지명 가능성은 높은 명문기와가 발견되었으나, 한국고전번역원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좌서(左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글)로 추정되며 장안(長安), 장란(長蘭), 이란(耳蘭) 등으로 읽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아시다시피 속초성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곳을 예전부터 장안(長安)마을이라 불렀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7월 속초리성지일대가 재난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재해방지를 위한 석축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유물발견 신고가 문화재청에 접수되어 전문가 입회 공사중 석렬이 발견되어 긴급 발굴조사를 8. 29 ~ 9. 13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재)예맥문화재 연구소의 『속초 동명동 속초리성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발굴조사를 통해 속초리성지의 실체를 일부 확인하였으며, 기단(집터를 잡고, 터를 반듯하게 다듬은 다음에 터보다 한층 높게 쌓은 단)석축과 그 상위로 판축(흙 쌓기)을 실시한 토성의 성벽구간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조사지역은 토성이 축조된 자연구릉에서 남쪽으로 갈라진 가지능선에 축조된 성벽구간으로, 주변일대의 지형이 완전히 변형되어 토성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벽의 끝이 확인되는 양상을 통해 볼 때 본 성벽은 돌출된 자연구릉을 이용한 치(雉, 성 입구에 위치한 고구려의 고유시설로 성 입구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됨)내지는 옹성(甕城)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10. 좌서체의 명문기와 (지명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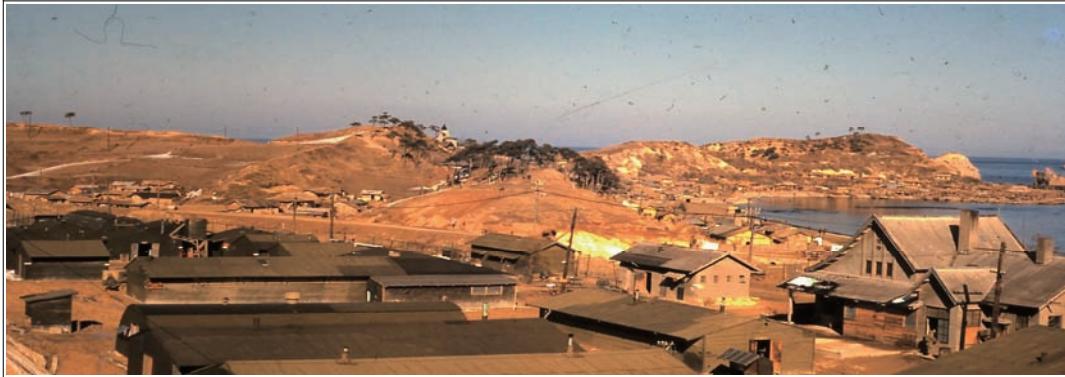
사진-11. 발굴조사중인 속초리성터(2012년)

- 위 사진의 동그란 구멍은 건물의 기둥을 세웠던 흔적(용정주)이며,
- 아래사진은 흙을 쌓으면서 석단으로 쌓은 모습

성벽의 축조시점은 이와 직접적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내벽과 외벽을 축조하기 위해 이용된 기와와 기존의 자문결과를 통해 추정할 때 그 상한은 12세기를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되며, 발굴성과로는 속초리 토성의 축조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성곽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백종오 충주대 교수(성곽전문)는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영정주흔(<사진-11> 윗사진의 동구란 흔적들)이 있다는 것은 판축 된 곳 위에 보루 등의 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치(雉)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가장자리 쪽으로 큰 기둥자리를 두고, 판축을 하였다는 목책토성이었을 가능성성이 높다고 하였다.

역사와 내가 사는 고향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록 발굴조사는 완료되었지만 용도조차 알지 못하는 속초성에 대해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도 과대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하루속히 전문가들에 의한 속초성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규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남쪽에서 본 동쪽 치(雉), 동벽, 북벽 모습(1953년)



남쪽에서 본 서벽 촬영한 모습(1953년)



각종 편축흔, 용정주 흔적 및 성곽경계



판축흔적(세로)

용정주 흔적(세로)



발굴조사구간 동쪽부분 석렬

발굴조사구간 서쪽부분 석렬



각종 판축흔, 용정주 흔적 및 성곽경계



판축흔적(세로)

용정주 흔적(세로)



월일우역초(月日右彌草)

경사면으로 추정되는 부위

참고자료

○ 장안마을 - 「내고향 속초」(김정우, 1984)중에서

<생략>

이곳은 동서남북 네 속에 문이 뚫려있던 성터였고, 남쪽은 오늘의 '단천마을'이라 불리우는 장골 출입구 형태의 고을입새였음을 상징케 한다. 동명동 뒷산 속초감리교회 세워진 곳이 옛 속초소방대 감시초소가 서 있었고 일제강점기 말년에는 속초경방단 초소(비행기 또는 시내돌발사태를 감시하던 곳) 소나무가 울창하였던 송림 속에 높이 세워졌었는데(현 감리교회 자리는 높은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든 곳에 건물에 세웠지만 옛날에는 동명동 천주교회 자리와 감리교회 자리가 모드 크나큰 송림 숲이 우거진 높은 지대였다.) <중략>

이 감리교회로부터 북서쪽으로 둥그런 원형 성터가 지금의 속초지방법원, 지방검찰청 세워진 쪽으로 쭉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었다. 지금의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건너편으로 바라다 보이는 교회 쪽으로 둥근형태의 성터 모양이 끝을 맺었는데 필자가 어려서 본 것은 현 동명동 감리교회 세워진 곳부터 죽 늘어선 법원 세워진 산 높은 현 주택 그 자리에서는 수복되기 까지만 해도 기왓장 깨진 것, 그릇 깨진 것 등이 무수히 발견되었고, 이 고장 주민 아낙네들은 명절 제사 때와 집집마다 기 제삿날에는 이곳 장골 성터에서 기와 부서진 보각을 주워다가 가루로 만들어 제사 그릇의 녹을 닦았었다. <중략>

특히 장골이 고을같이 느껴지는 것은 옛날 샘쪽 사람들이 농사 길로 또는 땔감나무를 구하러 다니던 길이 바로 법원과 검찰청 뒤로 통로가 있었고 이 길은 동쪽 영랑동 시장중심부로 연결되었으며 한쪽 길은 한국전력공사 뒷산을 거쳐 개안논 머리쪽을 지나 보광사로 넘나드는 오솔길로 다다르며 다른 한쪽은 개안논(현재 문화원과 동진리조텔) 앞쪽에서 장터쪽으로 이어졌으며 한 쪽 길은 샘치골 입구를 지나 범바위 쪽으로 통하던 길로서 장골 중심으로 동서남북 칼림길이 형성되었다.

필자는 법원과 검찰청을 건립코자 집터를 낚을 때 산등성(옛성터)을 마구 파넘긴 흙더미에서 옛날사람들이 절구질하던 둥근 돌절구를 발견! 그러한 생활도구가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장골이란 어떤 평범한 산골짜이나 주택 골짜도 아니고 고을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덧붙여 이곳 원주민 정태현씨(鄭泰賢, 원주민, 당시 84세, 1998년 작고, 동명동장 역임, 동명동 4동3반 거주)의 말에 따르면 장안고을이었던 것을 더욱 굳게 해준다.

鄭옹의 말씀에 따르면 속초리 2대 구장을 지낸 김해수(金海洙)옹의 생존 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장골이란 말이 틀렸다면서 장안고을에는 사대문(사대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내게 말을 건네주셨으며, 鄭옹이 현재(그당시) 살고 있는 당신의 집터를 낚을 때 그 집터가 옛 성터 자리였었다며, 대나무 숲을 헐어매치고 땅을 파보니 성터자리가 나타났는데, 진흙으로 땅 밑바닥을 다지고, 중간부분은 돌과 흙으로 성을 쌓아 올렸다고 하셨다.

이러한 사실과 또한 기왓장, 깨진 그릇 등등 증거품으로 미루어 추측해 볼 때 장골이란 것이 아니고 장안고을이라고 불려야 할 것 같다. 옛날에 분명히 성문(城門) 안에 주택이 존재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
- 《세종실록지리지》
- 《증보문헌비고》
- 《신동국여지승람》
- 《대동지지》
- 《현산읍지(峴山邑誌)》
- 『조선고적보물조사자료』, 조선총독부, 1942
- 『옛 기와』, 빛깔 있는 책들, 2005
- 『한국의 읍성』, 빛깔 있는 책들, 2005
- 『강원도사』,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 『강원도지』, 율곡학회, 2005
- 『양양군지』, 양양문화원, 2010
- 『고성군지명유래지』, 고성군문화원, 1985
- 『옛 문헌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 『내 고향 속초』, 김정우, 1984
- 『속초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박물관, 1997
- 『속초 권금성 지표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 『진전사지 발굴보고』, 단국대학교 박물관, 1989
- 『양양 진전사지 발굴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7
- 『춘천 봉의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 『강원감영 발굴조사보고서』,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1
- 『한국의 중세축성사 연구』, 유재춘, 경인문화사, 2003
- 『양양 석성산성-양양 상수도시설공사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 『순흥 비봉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98
- 『홍성 월산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 『영동 계산리 유적』,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 『고대 강릉의 읍호와 행정구역의 변천』, 『강원대학교 박물관지 제13호』, 2006
-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축성연구』, 유재춘,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 『신라의 북방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이규대, 2011
- 『나말여초기 강원지방의 평기와 연구』, 박동호,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영동지방 고려 성곽 연구』, 김진형,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 『양양 후포매리 신라산성의 고찰』, 흥영호, 2009
- 『<삼국사기>지리지의 삼척군 영현에 대한 위치비정 모색』, 『관동대학교 박물관지 제4호』, 2005
- 『관(官)자명 명문와의 사용처 검토』, 차순철, 『경주문화연구 제5호』, 2002
- 『한국 평와문양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연구』, 서오선, 충남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원 쌍청리 다중환호의 축조세력 검토』, 도문선, 『한국고대사연구』 제50권, 2008
- 『고려 전기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 권영국 『사학연구 제64호』

- 「고려시대 치소성 연구」, 최종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 「고려시기 양계 통치체제 연구」, 이정기,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고려 전기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 권영국 <사학연구> 제64호, 2002,
- 「고려 양계의 주진군」, 『고려 병제사 연구』, 이기백, 1968
- 「신라의 북방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이규대, 『사학연구 제111호』, 2011
-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김연옥,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9편』, 1986
- 「강원도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정장호,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13집』
- 「세종실록상의 속초포와 산성포의 위치비정연구」, 정상철, 『제18회 강원도향토논문발표집』, 2011

속초지역의 옛 지명과 변천과정 - 비선대, 외옹치, 조도 등을 중심으로 -

지명(地名)은 우리의 생활터전이 되는 장소의 지형(地形)과 지물(地物) 등을 다른 지점과 구분하기 위한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명명(命名)된 특수한 언어기호이다¹⁾.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명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주변에서 그 지역의 지형, 자연환경의 영향, 인문지명 등에서 유래한 지명이 많다²⁾.

지명의 어원을 찾고, 과거의 지명과 현재의 지명을 연결시키는 작업은 수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대한 작업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즉, 속초(束草)라는 지명이 문헌상에 최초로 기록된 것은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라는 기록을 속초 또는 우리 지역명칭-설악산, 영랑호 제외-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으나, 속초 지역의 ‘덕산(德山)’이라는 지역명칭은 고려시대 충선왕(1309년)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지역 명칭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속초지역이 언제 도천면과 소천면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는지 정확한 사료는 전해지지 않으나, 속초 청대리에 약 600여년간 세거하던 인동 장씨 족보에 의하면,

장서 長緒(1565?) 묘: 소천 온정안산 所川 溫井案山 온정리의 안쪽산
장례 長禮(1555?) 묘: 양양 소천 매문허 이목동 襄陽 所川 每文墟 梨木洞
장운기 長雲記 (1575?) 묘: 도문 주교리 道門 舟橋里

약 16세기경부터 속초지역이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분리되어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속초(束草)는 옛날에 양양군 소천면 속초리에 불과했던 곳이었지만, 일제강점기시절 어업의 발달로 인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터전을 이룬 곳, 광복이후 한국전쟁으로 함경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도천면 속초리(과거 소천면 속초리)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명(都市名)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는데, 이 때 양양군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도천면(道川面)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1) 김연록,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198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論叢 제49편 259p

2) 정장호, 「강원도지명의 유형별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13집, p42

형성되었다.

속초지역의 지명은 「조선지지자료」의 내용 외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마을 지명을 해석해 놓은 실정이며, 각종 문헌기록에 나와 있는 지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1921년에는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전국의 고유 지명을 개정하여, 순수한 토속적인 이름을 잊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인은 새로 발굴한 자료와 기존의 통설(通說)을 비교하여 속초지역의 고유지명을 찾고 그 변천과정을 연구·조사하여 고유지명으로 회귀(回歸)하고, 또한 지역 항토사학자들조차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고자하는 바이다.

1. 통설 : 비선대(秘仙臺) = 영금정(靈琴亭)
⇒ 비선대(秘仙臺)와 영금정(靈琴亭)은 별개이다.

옛 기록을 보면 속초지역에는 2곳의 비선대(飛仙臺, 秘仙臺)가 존재한다. 하나는 설악산에 위치한 비선대(飛仙臺)이고, 다른 하나는 청초호 동쪽 10리에 위치한 비선대(秘仙臺), 즉 지금의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 비선대(飛仙臺)

○ 여지도서 양양부 고적조

飛仙臺 설악산 동쪽 식당동에 있다.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흙은 펴져서 폭포가 되고, 흙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대의 북쪽 벽은 돌이 높게 솟아올라 빽빽하게 묶여있는 것이 칼과 창같이 삼엄한 기세였다.³⁾

□ 비선대(秘仙臺)

명칭	내용	문헌
秘仙臺	부의 북쪽50리, 쌍성호 동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앉을 만하며, 실 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와지면 건널 수 없다. ⁴⁾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 누정조, 《동국여지지》 권7 양양 누대조
秘仙臺	양양부 북쪽 50리에 위치. 쌍성호 동쪽에 있으며 석봉이 가파르고 경치가 뛰어남. 옛날에 정(亭)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⁵⁾	《여지도서》 양양부 누정조
秘仙臺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 ⁶⁾	《대동지지》 영로편
秘仙臺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불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읍지》 양양 누대조

3) 在府西五十里□(金)堂洞白石平鑄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渟而爲潭臺之北壁石嶂突□(慾)森束如劖戟樣

명칭	내용	문헌
秘仙臺	"	《관동지》 13 양양 누대조
秘仙臺	"	《강원도 양양읍지》 2
秘仙臺 ⁷⁾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	《현산지》 누대조

< 표 - 1. 각종 문현상의 비선대 >

비선대(飛仙臺)는 현재까지 같은 이름으로 불리어지는데, 청초호 동쪽의 비선대(秘仙臺)는 지금은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다만, 설악산의 비선대(飛仙臺)가 최초로 문현상에 등장한 것은 1760년대 간행된 『여지도서』이고, 청초호 동쪽의 비선대(秘仙臺)는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청초호 동쪽의 비선대(秘仙臺)가 더 빠르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과 일부 사학자들도 비선대와 영금정을 동일(同一) 지역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⁸⁾에서는 ‘영금정에 대해 속초(束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바다와 잇달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달은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일제시대(日制時代)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여기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으며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정자가 있어서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고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어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들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緋仙臺)라고도 한다.’고 하여 ‘비선대와 영금정’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각⁹⁾으로는 ‘속초(束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 면이 바다와 잇달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달은 석산(石山)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솔산이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만 남아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통칭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 불렸다.

4)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嶺拔上有獨松凝株望之如畫其上可坐有徑如線通陸海惡則不得渡

5)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峯嶺拔可觀舊有亭今廢

6) 在湖之東北石峯嶺拔其上可坐

7) 在府北五十里海上鑛石平寬可坐數十人

8) 『속초의 지명』, 32 ~ 33페이지, 1990년, 속초문화원

9) 『속초의 옛땅이름』, 20페이지, 2002년 속초문화원

비선대라고 불리게 된 것은 솔산 위에 비선대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시대에는 영금정(靈琴亭)이란 땅이름이 쓰이지 않았고, 일제 시대에 들어와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고, 주목할 것은 정자의 존재 여부를 지역에서 만든 『관동읍지』, 『관동지』, 『양양군읍지』 등의 책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데, 이는 비선대(秘仙臺)가 아닌 영금정(靈琴亭)의 존재로 보면 될 것이다.'라고 하여, 비선대와 영금정을 같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암 상서 이재가 일찍이 산을 유람하다 이곳에 도착하여 수일동안 시를 읊었다고 하여, 현수참의 이휘진이 호수인근에 정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완성 전에 침산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의 위치가 청초호 동쪽의 빼어나 해안 즉 비선대임을 예로 들어 정자(亭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한자(漢字) ‘대(臺)’라는 의미는 ‘놓고 평평한 곳’¹⁰⁾으로 건물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정(亭) 또한 정자라는 의미의 조망대, 관망대 건물일 수도 있지만, ‘우뚝 솟다’라는 의미도 있다. 즉, ‘정(亭)’이란 한자어가 있다 해서 무조건 정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영금정이란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 신비한 곡조의 음을 내므로 산이 거문고를 탄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영금정이라는 명칭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발간된 『면세일반』이라는 행정자료이다. 면세일반을 자세히 보면 비선대와 영금정은 다른 곳임을 알 수 있다.

1926년 발간된 『면세일반』에는

‘속초리 동쪽 끝 암초에 돌출해 기이한 형상과 묘한 그림 같은 것을 칭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 한다. 이곳에서 바위에 기대어 내려다 보면 동남쪽의 조도는 바다에 하나의 떨어진 산과 같이 구름 끝에 우뚝 솟아 송도부근에 크고 작은 돌단배가 있는 것 같다. (중간생략) 높이 쌓은 대의 영금정은 수십척의 석벽사이에 길이 7간 폭 7간이며 골짜기 가운데 한 개의 바위 봉우리가 돌출해 그 모양이 특히 신기하다고 한다.’

윗 지문에서 비선대와 영금정이 동시에 나온다.

비선대는 신비한 암초 전체의 형상을 일컫는 명칭이고, 영금정은 그중에 하나인 길이 7간 폭 7간이며 골짜기 가운데 한 개의 바위 봉우리가 돌출한 그 모양의 바위를 일컫는 듯하다.

즉 영금정을 석벽과 석벽사이에 위치한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길이 7간, 폭 7간을 지금의 단위(1간 = 1.8m)로 환산하자면, 144㎡(약 44평)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다. 『대동지지』 영로편에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는 기록이 신빙성이 가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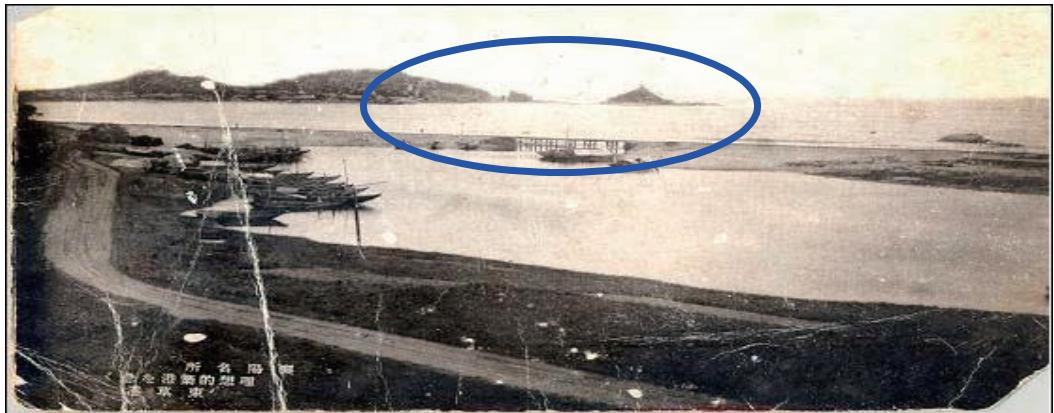
속초지역의 유학자인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선생께서 작성하신 매곡일기(梅谷日記)에는 ‘속초 영검정(靈檢亭)동북쪽 끝에 반석이 평평하게 깔려있고, 그 위에 반석 절반이 올려져 있는데 그 길이는 8척(24m, 1척 = 3.3m), 두께는 2척(6m), 넓이는 5척(15m)이다. 이는 신의 힘인지 사람의 힘인지 알 수 없다.’¹¹⁾ 하여 『대동지지』에 표현된 것처럼 영금정이 상당히

10) 다음 한자사전

넓은 바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비선대’라는 명칭은 신비한 암초가 있는 ‘지역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고, ‘영금정’이란 명칭은 ‘비선대의 많은 바위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사진-1) 비선대와 영금정 관련 사진



(1920년대 속초)



1950년대



(2000년대)

11) 1930. 4. 8일자 일기, 1011페이지,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2007, 속초시·속초문화원

2. 속초등대가 있는 산의 이름은? ⇒ 속진산(東津山), 원산(元山)

동명동 산1번지. 속초등대가 있는 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산은 조선시대 ‘속진산(東津山)’ 또는 ‘원산(元山)’으로 불리워졌다. 《대동지지(大東地志)》 간성(杆城)편 산수조(山水條)에는 ‘원산이 영랑호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元山 永郎湖東). 현재의 지리적 개념으로는 영랑호는 속초에 위치했으므로 대동지지(大東地志)》 간성(杆城)편이 아닌 양양(襄陽)편에 소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영랑호(永郎湖)는 간성군에 속해있었지만, 정확한 경계구분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 옛날 간성과 양양의 경계는 지금의 ‘영랑호 다리’인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원산이 영랑호 동쪽에 있다고 하여 간성의 속해있는 산은 아니다.

조선시대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하던 비변사(備邊司)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1745~1760년 사이 편찬》 양양(襄陽)편에는 속초등대가 있는 산을 ‘속진산(東津山)’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 《청구도》, 《동여도》에는 ‘원산(元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속진산(東津山)’과 ‘원산(元山)’이 동일한 산(山)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필자의 의견은 ‘속진산(東津山)’과 ‘원산(元山)’이 같은 산이라 생각한다.

‘속진산(東津山)’은 지리적으로 볼 때 영랑호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원산(元山)’은 문현에서도 영랑호 동쪽에 위치해 있다하였으며, 영랑호 동쪽으로는 이렇다 할 산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보광사 동쪽에 예전 국궁장(國弓場)이 있었던 곳에 산이 하나 있는데 높이가 30~40m에 불과하다. 예전에 그곳에 절이 있었다하여 지역사람들은 그곳을 ‘불당골’이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등대가 있던 산과 속초감리교회가 있던 산은 원래 하나로 연결된 산이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신작로(新作路)를 내기 위해서 지금의 영금정입구에서 영랑동쪽으로 산을 깎아내었기 때문에 2개의 산으로 보이는 것이다.

‘원산(元山)’이라 함은 간단히 얘기해서 ‘으뜸되는 산’, ‘중요한 산’을 의미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를 만든 곳이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담당하는 “비변사인(備邊司)”임을 감안하면, 위 지도에 표시된 ‘덕산(德山)’, 초진산(草津山), 죽도봉(竹島峰) 등 외적의 침임을 알리는 봉수가 있었거나, 정찰하기에 적합한 높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일면일신사(一面一神社)’ 정책을 펼칠 때에 속초면에 신사(神社)를 세우려고 허가받은(조선총독부 관보[昭和 - 4279호] 1941. 05. 02.) 곳도 이곳이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만큼 일본이 탐낼 만큼 정기가 흐르는 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내고향 속초』라는 책에도 ‘동명동 뒷산 속초감리교회 세워진 곳이 옛 속초소방대 감시초소가 서 있었고 일제강점기 말년에는 속초경방단 초소(마하리소, 적기, 비행기 또는 시내

돌발사태를 감시하던 곳) 소나무가 울창하였던 송림 속에 높이 세워졌었는데(현 감리교회 자리는 높은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든 곳에 건물에 세웠지만 옛날에는 동명동 천주교회 자리와 감리교회 자리가 모두 크나큰 송림 숲이 우거진 높은 지대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속진산(東津山)', '원산(元山)'은 동일한 곳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속초감리교회가 있는 지역은 고려시대(1113년 추정) 성터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3. 통설 : 내옹진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리 또는 옹진리 = 외옹치리 ⇒ 옹진리 = 내옹진 + 외옹진, 내옹진 + 대포리 ⇒ 대포리

양양에서 속초로 오는 7번국도상에서 대포항 있는 오른쪽을 보면 항아리모양처럼 생긴 언덕이 보인다.

이곳을 대표하던 지명은 '덕산(德山)'이다. 덕산이란 이름이 문헌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고성의 삼일포매향비(三日浦埋香碑)이다. 중국 원나라 연호인 지대 2년(1309) 충선왕 1년에 삼일포매향비 비문에 '용화회주이신 미륵이 하생하기를 기다리며 미륵보살이 하생할 때 우리들도 함께 태어나 용화회에 참석하여 삼보를 공양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원드리며 양양 덕산망(德山望) 등에 매향(향나무를 심음)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해진다.

기록상의 '덕산'에는 조선시대 봉수(烽燧)가 있던 곳으로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봉수로서의 덕산(德山)¹²⁾의 기록이 전해지며, 《현산지》 진보(鎮堡)조에는 덕산진(德山津)¹³⁾ 부(府)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덕산'이라는 명칭이 봉수(烽燧)가 위치한 산(山)이 아닌 배가 드나드는 진(津)의 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12) 在府 三十六里

13) 德山津 在府北二十五里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속초의 중심지는 옹진(龜津)¹⁴⁾이라 할 수 있다.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오만분의일 지도」를 보면 속초지역을 나타내는 명칭이 ‘옹진(龜津)’으로 되어있으며, 《강원도 양양읍지》의 지도에도 옹진과 속진이 대표적인 마을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역(驛)이 아니면서 옹진에 이참(里站)¹⁵⁾이 있던 곳으로 봐서 어업을 통한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곳으로 비교적 큰 마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가 도천면의 대표마을이 된 것은 속진(東津)이 항(港)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하기 시작한 것은 1934~36년경 부터이다. 이후 1937년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되고, 면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면서부터 당시 인구 1만 명의 도시로 번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1) 강원도 양양읍지 지도

『여지도서』방리에는 양양군 도문면¹⁶⁾에 상도문리(上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 물치리(勿編里, 勿淄 한자오류), 대포리(大浦里), 옹진리(龜津里)를 두었으며, 1921년에 발간된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를 보면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종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리로 되어 있는데, 1920년대에는 ‘물치리’가 ‘내물치리’로, ‘외옹진리’가 ‘외옹치리’로 이름이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4)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2007, 속초시·속초문화원 中

1912. 3. 7일자 일기, 옹진출장소(龜津出張所)로 내려가서 산일을 재판하였다. 556페이지

1912. 7. 8일자 일기, 큰비가 몹시 쏟아져 종일 쉬지 않았다. 농사를 해치는 것을 탄식하였다. 듣자하니, 옹진(龜津)에서 집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다. 어찌 괴변이 아니겠는가?, 564페이지

1915. 3. 6일자 일기, 옹진대로(龜津大路)의 경계를 나누기위하여, 629페이지

1915. 11. 4일자 일기, 옹진(龜津)에 내려가서 방파제에 부토하는 것을 보고.. 644페이지

1915. 11. 12일자 일기, 옹진주재소(龜津駐在所)에 갔다. 644페이지

15) 『현산지 이참조』 汝淄○ 二十里, 德山○ 二十五里, 栗阜○ 三十里, 束津地境○ 三十五里

16) 道門面|上道門里|下道門里|勿編里|大浦里|龜津里|

대포리에 대해서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는 ‘대포(大浦)의 ‘포(浦)’는 그 훈(訓)이 개(浦)이니, 옛 사람들은 큰 개라고 하던 것이 한자로 대포(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대포는 속초(束草)에서 양양(襄陽)의 물치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일대로 쌍천 하구의 큰 개를 말하는데, 큰 개(浦), 갯가라는 뜻의 한 개를 한자로 대포(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고하고 있으며, 대포리(大浦里)에 관한 기록은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 방리조》에 “대포리(大浦里) 관문으로부터 북쪽 25 리에 있다.¹⁷⁾”라고 하고 있고, 또한 ‘대포리(大浦里)는 조선 시대 내내 행정지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918년에 편찬된 《최신조선지리》에는 내옹진과 외옹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옹진은 오늘날 대포동을, 외옹진은 현재 외옹치(外瓮峙)를 지칭한다.’는 기록을 인용하여 ‘내옹진 = 대포리’로 보고 있다.

한편, 『속초의 지명』에서는 ‘대포(大浦里)’라는 큰 포구라는 뜻으로 한 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漢字)로 대포(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또 외옹치리(外瓮峙里)가 독재¹⁸⁾라는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는데, ‘밧독재’라고 하는데 대하여 대포리(大浦里)는 독재의 안쪽(육지쪽)에 있다고 하여 ‘안독재’ 또는 ‘독재’ 밑에 있는 큰 마을이라고 하여 ‘큰독재’라고도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를 살펴보면 옹진리(翁津里)는 오늘날의 대포(大浦)가 아니고, 외옹치리(外瓮峙里)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대포(大浦)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는 상당히 큰 항구로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리고 1916년~1937년까지 도천면(道川面) 사무소가 위치했었다.’고 하여 ‘옹진리 = 외옹치리’로 보고 있다.

옹진리에 대해서도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면, 리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외옹치(外瓮峙)의 행정지역 이름은 독 나루터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식으로 ’옹진(翁津)‘이었다.

이후 편찬된 지리서에서도 편호나 인구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행정 땅이름은 변함없이 옹진리(翁津里)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지방제도의 개혁에 따라 도천면(道川面)으로 통합되었고 여전히 행정구역으로는 옹진리(翁津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1918년 발간된 《최신조선지리》에 내옹진, 외옹진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을 인용하여, ‘내옹진은 오늘날 대포리, 외옹진은 외옹치(外瓮峙)로 추정된다.’고 하여 ‘내옹진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리’로 보고 있으며,

『속초의 지명』에서는 독재의 바깥쪽이므로 바깥독재, 또는 줄어서 밧독재라고 불리어졌고,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 등을 보면 조선시대 행정상 명칭은 옹진리(翁津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일제시대(日帝時代) 부터 외옹치리(外瓮峙里)로 바뀌었다‘고 하여 ‘외옹치리 = 옹진리’로 보고 있다.

즉,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는 ‘내옹진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리’로 보고 있으며,

17)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四男三十五口女六十九口

18) 『한국지명총람』에는 ‘독’라는 바위가 있었고 독바위 인근에 고개가 있어 ‘독재’ 또는 ‘독바우고개’로 불리우며 독재안쪽을 ‘안독재’, 바깥을 ‘밧독재’라 한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174쪽, 1967

『속초의 지명』에서는 ‘외옹치리 = 옹진리’로 비정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서는 대포리의 언문명을 ‘큰독재’로 표시하였으나, 지역에서는 ‘한 개’의 의미를 한자어로 바꾼 대포로 비정하고 있으며, 이는 두 향토사서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여지도서』 방리조에서는 옹진리가 도문면 관할(주16 참조)로 되어 있는데, 1919년경으로 추정되는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대포리는 도문면 관할이고, 외옹진리는 소천면 관할¹⁹⁾로 있다.

또한 포구명(浦口名)에는 도천면의 옹진(甕津, 비고 도문면 대포리), 소천면의 속진(束津, 비고 소천면 속초리)이 표시되어 있다. 리동명(里洞名)에 속진(束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속초와 속진이 합쳐진 후 항구명으로만 속진이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옹진리는 사라지고 외옹진리와 대포리로 나뉘지만 항구로서의 옹진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필자가 새롭게 찾은 종로도서관에 소장된 1918년 이전에 제작된 또 다른 지도<사진-2 참조>도 옹진리를 내옹진(內甕津)과 외옹진(外甕津)으로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또한 내옹진은 도문면 관할로, 외옹진은 소천면 관할로 되어 있다.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져 도천면이 된 것은 1914년이니 이 지도는 1914년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옹진리가 도문면 관할이었던 것을 일제가 1914 ~ 21년을 사이에 내옹진과 외옹진으로 분리해 내옹진을 대포리에 병합시키고, 외옹진을 외옹치리(外甕峙里)로 각각 변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매곡일기(梅谷日記)의 내용 중 ‘외옹치(外甕峙) 노순경이 와서’²⁰⁾의 부분을 통해 외옹치리라는 행정명칭이 생겼다고 해서, 외옹치라는 명칭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의 명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표-1>는 각종 문헌기록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외옹치리와 대포리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도표화한 것인데, 옹진리가 내옹진과 외옹진리로 분리되어 그 중 내옹진이 1918년 이후에 대포리에 흡수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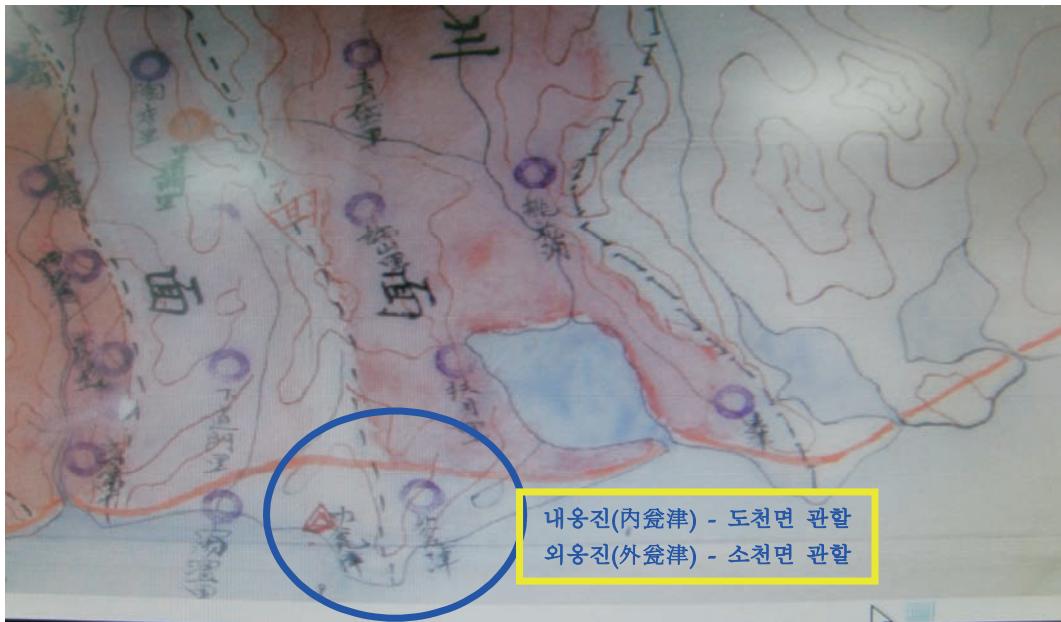
구분	1760년 (여지도서)	1870년 (관동읍지)	1887년 (양양읍지)	1910년 현산지	1914년 지도(?)	1918~ 1921년	1930년	1942년
외옹치리	옹진리	옹진리	옹진리		외옹진	외옹진리	외옹치리	외옹치리
					내옹진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 표 - 2. 외옹치리와 대포리의 분리·통합 과정 >

19) 415페이지, 양양편, 『조선지지자료』 강원도편, 2007년, 경인문화사

20) 1912. 5. 26, 562페이지,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 2007, 속초시·속초문화원

1913년 춘천현병대장 나스 타사부로가 강원도를 통치하기 위해 작성한 「강원도 상황경개」에서는 「양양항(襄陽港)」에 대해서 「양양읍에서 북쪽으로 3리 18정에 있다. 도문면 '옹진'이 '양양항'이다. 옹진은 소천면에 속하는 외옹진과 남북으로 표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내옹진이라고 부르는 본진은 북쪽에서 구부러져 들어온다.」고 하여 외옹진이 「외옹진」과 「내옹진」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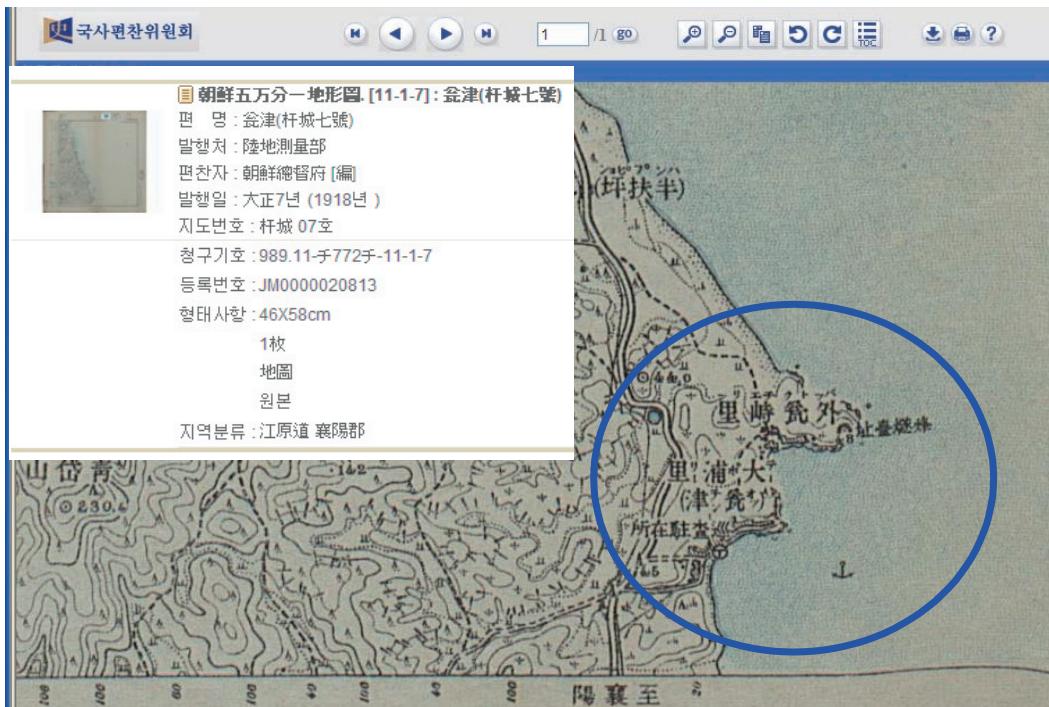


< 사진 - 2. 1918년 이전 도문면, 소천면의 행정구역 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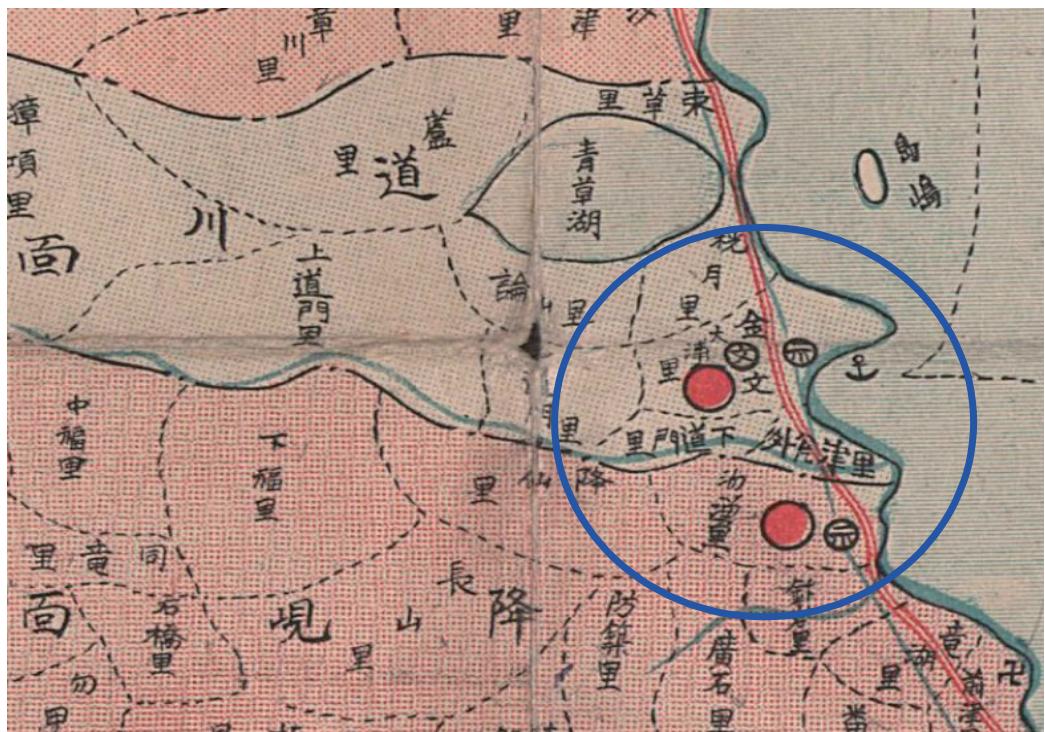


< 사진 - 3. 1914년 이전 도문면, 소천면의 행정구역 지도(복원)>

21) 『강원도 상황경개』 70페이지, 원주문화원, 2015(※원본 1913.12월 춘천현병대장 나스 타사부로 편찬)



< 사진 - 4. 조선오만의 일지형도 간성7호-옹진의 지도(1918년, 조선총독부) >



< 사진 - 5. 1930년 발간된 양양군세일반 도천면의 행정구역 지도 >



< 사진 - 6. 1920~30년대 속초지도 >



< 사진 - 7. 1960년대 속초지역 항공사진 >



< 사진 - 8. 2000년대 속초지역 항공사진 >

4. 조도(鳥島)의 원래 명칭은 ‘무로도(無路島)’이다.

속초에는 섬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흔히들 많은 갈매기들이 모여들어서 ‘조도(鳥島)’라고 불려 왔다. 그러나, 어느 누구하나 이 섬이 원래 이름이 조도가 아니었음을 궁금해 한 적이 없다. 당연히 ‘조도’라고 불리우니 ‘아! 조도였구나’ 한 것이다.

조도(鳥島)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현산지》에 전한다. 《현산지》 도서(島嶼)편에는 지금의 무로도(無路島)는 양양에서 북쪽으로 35리 떨어진 속초진의 동쪽에 있으며, 대나무가 난다.²²⁾고 하였다.

다만, 명칭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름일 가능성, 두 번째로는 가는 길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로도’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수 있다. 실례로 대동여지도, 청구요람, 동여도에는 무로도(無路島)를 ‘로도(路島)’, ‘무도(無島)’라도 표기하였다.

그런데, 무로도(無路島)²³⁾는 《청구요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쪽으로 옮겨져 표기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모든 지도가 전국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앞 시기에 편찬된 지도를 참고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예를 들어 무로도(無路島) 위에 표기된 괘도(卦島)는 지금의 문암리(옛 지명 괘진), 교암리 앞에 위치한 섬으로 지금은 가도(駕島)로 불리우고 있다. 죽도는 오흐리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봉포리 앞바다의 섬도 죽도로 불리운다. 즉 대동여지도상<사진 - 9 참조>의 황포(지금의 삼포) 앞바다에는

22) 無路島 在北三十里東草津東產竹

23) 무로도(無路島)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가는 길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붙인 경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죽도(竹島)가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지도상에는 꽈도(卦島)가 위치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동여지도, 청구요람, 동여도 모두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조도에는 예전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5.16 군사혁명 직후 이용(李龍)씨가 강원도지사로 재직시에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의 용(龍)자와 속초의 초(草)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없고 어부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등대만이 서 있을 뿐이다.



< 사진 - 9. 대동여지도 간성·양양(1861) >



< 사진 - 10. 청구요람 간성·양양(1834) >



< 사진 - 11. 동여도24) 간성·양양(철종, 고종 연간) >



< 사진 - 12. 조선오만분의일 지형도(1918년, 조선총독부) >

24) 동여도는 철종·고종 연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필사본의 전국 채색지도로,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는 분첩절첩식(分疊折帖式) 형태로 되어 있다. 지도는 산천표시와 함께 주현별(州縣別) 경계선을 그어, 주현간의 도로를 표시하였다. 그 바탕 위에 영진(營鎮), 주현(州縣), 진보(鎮堡), 역도(驛道), 목소(牧所), 방면(坊面), 창고(倉庫), 봉수(烽燧), 능침(陵寢), 성(城), 도로(道路), 파수(把守) 등을 표시하였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이상으로 우리는 속초지역의 지명에 대해 일제가 바꿔놓은 사례를 통해 변천과정 및 원래의 지명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1. 비선대(秘仙臺)와 영금정(靈琴亭)은 별개이다. 즉, 비선대라는 명칭은 지역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고, 영금정이란 명칭은 영금정은 석벽과 석벽사이에 위치한 공간으로 비선대의 많은 바위 중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을 수 있을 만큼의 바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2. 속초등대가 있는 산은 조선시대에 ‘속진산(束津山)’ 또는 ‘원산(元山)’라고 불렸다.
3. 옹진리(행정구역상)는 1910 ~ 20년 당시 속초지역을 대표하는 명칭과 지역으로, 내옹진(마을이름)과 외옹진(마을마을)으로 구분되었는데, 대포리와 내옹진이 같은 곳이 아니고 대포리와 내옹진이 병합되어 대포리가 되었고, 외옹진은 외옹치리로 바뀌었다. 또한 외옹치리로 새롭게 생긴 명칭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 명칭이다.

A설	B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옹진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진리 = 외옹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 옹진리(내옹진, 외옹진), 외옹치, 대포리가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 내옹진 + 대포리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 ⇒ 외옹치리	

4. 현재의 조도(鳥島)의 원래이름은 ‘무로도(無路島)’이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대관령이 있는 ‘용산면(龍山面)’이라는 지명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관령면(大關嶺面)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현재 영금정과 외옹치, 조도 모두 대포항과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지역명칭의 어원과 변천과정만큼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어떤 연유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김연옥,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198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論叢 제49편 259p
- 정장호, 42페이지, 「강원도지명의 유형별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13집
- 『속초의 지명』, 1990년, 속초문화원
- 『속초의 옛 땅이름』, 2002년, 속초문화원,
- 『면세일반』, 1942년, 일제강점기시절 자료
-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2007, 속초시 · 속초문화원
- 『조선오만분의일 지형도』, 1918년, 조선총독부
- 《조선지지자료》 강원도편, 2007년, 경인문화사
-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검색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여지도서》
- 《관동읍지》
- 《관동지》
- 《현산지》
- 《강원도 상황경개》

송시열과 속초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조선왕조실록』에 3000번 이상 언급된 조선 최대의 당쟁가!! 조선을 ‘송시열의 나라’라고 까지 연상하게 만든 그는 조선후기 정치계와 사상계를 호령했던 인물이다. 조광조와 더불어 조선을 유교(儒教)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었던 송시열은 우리나라 학자 중 ‘자(子)’자를 붙인 유일한 인물로 역사상 가장 방대한 문집인 일명 『송자대전(宋子大全)』을 남겼다.

현재 전국에 내놓으라하는 유학자들 중에서 송시열 선생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존하는 전국의 서원들 중에 수많은 서원들이 송시열 선생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후(死後), 덕원·화양동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서원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약 70여 개 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중 사액서원(조선시대에 설립된 서원 가운데 국가로부터 특별히 공인된 서원)만 37개소나 달하였다.



또한, 숙종 때를 제외하고는 역모가 아닌 경우 대신을 사형시킨 예가 없고 국문도 하지 않을 만큼 대신을 우대한 조선에서 그는 '죄인들의 수괴(首魁)'라는 애매한 죄목으로 사사(賜死) 당했는데, 그는 죽고 난 이후 다시 노론의 재집권과 함께 유학자로서의 최대 영광인 성균관 문묘에 공자와 함께 배향되고, 공자, 맹자, 주자처럼 송자로 불리는 영광을 누렸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저자인 이덕일¹⁾은 책머리에서 “우암 송시열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했을 때 지인(知人)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쓸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310여 년 전에 죽은 그는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라 하였는데 송시열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필자는 30여 년 전부터 김유의 『검재집(儉齋集)』에 실린 『유풍악기(游楓嶽記)』와 이해조의 『명암집(鳴巖集)』에 우암 송시열 선생의 영랑호(永朗湖) 친필 3글자가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영랑호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철책이 있고 수풀로 가려진 탓에 찾지 못하였다. 역시 주인(발견자)은 따로 있나보다.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이를 발견하고 신고해 주신 주민 덕분에 우암의 친필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필자에게 이와 관련 된 글을 쓸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 송시열의 생애

송시열²⁾(1607~1689, 이하 우암이라고 씀)은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九龍村) 외가에서 태

1)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

2) 조선 선조 40년(1607)에 태어나 인조, 효종, 현종, 숙종대에 걸쳐 활동한 학자이며 정치가이다.

어나 26세(1632년)까지 그 곳에서 살았다. 그러나 뒤에 회덕(懷德)의 송촌(宋村)·비래동(飛來洞)·소제(蘇堤) 등지로 옮겨가며 살았으므로 세칭 회덕인으로 알려져 있다. 8세 때부터 친척인 송준길(宋浚吉)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훗날 양송(兩宋)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되었다. 12세 때 아버지로부터 『격몽요결 擊蒙要訣』·『기묘록 己卯錄』 등을 배우면서 주자(朱子)·이이(李珥)·조광조(趙光祖) 등을 흡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1625년(인조 3년) 도사 이덕사(李德泗)의 딸 한산 이씨(韓山李氏)와 혼인하였다. 이 무렵부터 연산(連山)의 김장생(金長生)에게서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1631년 김장생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김집(金集) 문하에서 학업을 마쳤다. 27세 때 생원시(生員試)에서 <일음 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논술하여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2년 뒤인 1635년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 : 후일의 효종)의 사부(師傅)로 임명되었다. 약 1년간의 사부 생활은 효종과 깊은 유대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병자호란으로 왕이 치욕을 당하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좌절감속에서 낙향하여 10여 년 간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여 척화파 및 재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그에게도 세자시강원진선(世子侍講院進善)·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의 관직을 내리자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다.

이 때 그가 올린 <기축봉사 己丑封事>는 그의 정치적 소신을 장문으로 진술한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존주대의[尊周大義 : 춘추대의에 의거하여 종화(中華)를 명나라로 이적(夷賊)을 청나라로 구별하여 밝힘]와 복수설치(復讐雪恥 : 청나라에 당한 수치를 복수하고 설욕함)를 역설한 것이 효종의 북벌의지와 부합하여 장차 북벌 계획의 핵심 인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해 2월 김자점(金自點) 일파가 청나라에 조선의 북벌 동향을 밀고하여 우암을 포함한 산당(山黨) 일파가 모두 조정에서 물러났다. 그 뒤 1653년(효종 4)에 충주목사, 1654년에 사헌부집의·동부승지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1655년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수 년 동안 향리에서 은둔 생활을 보냈다. 1657년 상을 마치자 곧 세자시강원찬선(世子侍講院贊善)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대신에 <정유봉사 丁酉封事>를 올려 시무책을 건의하였다. 1658년 7월 효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찬선에 임명되어 관직에 나갔고, 9월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다음 해 5월까지 왕의 절대적 신임 속에 북벌 계획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1659년 5월 효종이 급서한 뒤, 조대비(趙大妃)의 복제 문제로 예송(禮訟)이 일어나고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 일가와의 알력이 깊어진 데다, 국왕 현종에 대한 실망으로 그 해 12월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송시열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구룡촌 외가에서 진사 송갑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송시열이 태어나기 전날 밤 그의 아버지는 종가의 제사를 모시러 청산에 가 있었는데,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한 제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을 그대에게 보내니 잘 가르치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송시열의 어릴 적 이름은 ‘성인이 주신 아들’이라는 뜻으로 성뢰(聖賚)였다. 자는 영보(英甫)이며 호는 우암(尤庵), 화양동주(華陽洞主)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송시열 (답사여행의 길잡이 12 - 충북, 초판 1998., 6쇄 2003., 돌베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이후 현종 15년 간 조정에서 융숭한 예우와 부단한 초빙이 있었으나 거의 관직을 단념하였다. 다만 1668년(현종 9) 우의정에, 1673년 좌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잠시 조정에 나아갔을 뿐, 시종 재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재야에 은거하여 있는 동안에도 선왕의 위광과 사림의 중망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림의 여론은 그에 의해 좌우되었고 조정의 대신들은 매사를 그에게 물어 결정하는 형편이었다.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인한 제2차 예송에서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었다. 우암은 『의례』의 소설에 “서자(庶子)가 대통을 계승하면 3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예외규정[四種說]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출처 : <http://blog.naver.com/richkoh/220816557529>

결국 1675년(숙종 1) 정월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뒤에 장기(長鬚)·거제 등지로 이배되었다. 유배 기간 중에도 남인들의 가중 처벌 주장이 일어나 한때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유배에서 풀려나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 해 10월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領中樞府事兼領經筵事)로 임명되었

고, 또 봉조하[奉朝賀], 조선시대 공신·공신적장(功臣嫡長)·동서반·당상관 등이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의 영예를 받았다.

1682년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등 훈척들이 역모를 조작하여 남인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한 임신삼고변(壬申三告變) 사건에서 김장생의 손자였던 김익훈을 두둔하다가 서인의 젊은 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또 제자 윤증(尹拯)과의 불화로 1683년 노소분당이 일어나게 되었다.

1689년 1월 숙의 장씨³⁾가 아들(후일의 경종)을 낳자 원자(元子: 세자 예정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했는데, 이 때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그 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1694년 갑술환국⁴⁾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자 그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제사가 내려졌다. 이 해 수원·정읍·총주 등지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졌고, 다음해 시장(謚狀, 업적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 쓴 글) 없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3) 희빈 장씨(禧嬪 張氏, 1659년 11월 3일 ~ 1701년 11월 7일 ~ 9일, 장희빈(張禧嬪))은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의 빈(嬪)으로, 제20대 왕 경종(景宗)의 어머니이다. 숙종 임금보다는 2년 연상이다. 본명은 장옥정(張玉貞)[3],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아버지는 역관 출신인 장형(張炯)이며, 어머니는 장형의 계실인 윤씨이다. 역관(驛官) 장현(張炫)의 종질녀이다. 조선 왕조 역사상 유일하게 궁녀 출신으로 왕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여인이다. 「위키백과」

4) 1694년(숙종 20) 기사환국으로 집권한 남인이 물러나고, 소론과 노론이 다시 장악한 정국(政局).

내려졌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파 간에 칭송과 비방이 무성했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丙申處分)과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되었다. 영조 및 정조대에 노론 일당전제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존중되었다.

2. 유배의 길

속종실록에 의하면 1675년 1월 7일(숙종 1년)에 장령(掌令) 남천한(南天漢)·정언(正言) 이수경(李壽慶)이 “우암은 2차 예송 이후로 산림(山林)에 은거(隱居)하여 명예를 탐내고 의리를 꾸며서 대의(大義)를 자기 임무로 삼고 효종께서 장차 크게 쓸모가 있을 때에 제 뜻이 펼쳐지기를 바랐거니와, 어찌 우암의 성질이 매우 어그러지고 간사하며 식견이 치우치고 완고하다”하여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숙종이 따르지 않다가,

1675년 1월 12일 사간(司諫) 김빈(金)·장령(掌令) 오정창(吳挺昌)·헌납(獻納) 이우정(李宇鼎)·정언(正言) 목창명(睦昌明)이 임금 앞에 나아가 김빈이 먼저 전에 아뢴 것에 따라 송시열(宋時烈)을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하고, 또 오정창과 함께 각각 지난에 아뢴 것에 따라 이유태(李惟泰)를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로 출송(黜送)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오정창이 우암에 관한 계청(啓請)을 윤허하기를 험껏 청하고 이우정 등이 사연을 같이하여 청하되, 진정(鎮靜)이니 인협(寅協)이니 하는 따위의 말로 임금에게 면대하여 속이니, 임금이 믿고 문득 말하기를, “그러면 송시열을 멀리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한다. 실록에서는 “이날 영두성(營頭星)이 서북으로 떨어졌다.”하여 결국 우암의 귀향은 오정창과 이우정 등의 간고로 귀향 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암의 귀향이 결정된 후 부제학 김석주의 상소, 좌의정 정치화의 상소, 김수항의 사표, 풍양군 장선징의 상소, 우암의 제자인 집의 윤증의 사직 등 우암과 뜻을 같이하는 신료들이 숙종을 설득하였으나 그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1675년 1월 13일에 우암은 함경도 덕원부(德源府)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전국의 선비들이 흄모했던 노론의 영수인 우암의 명성은 함경도지방에서도 자자하였다. 우암이 덕원에서 경북 장기(長鬱)-지금의 포항시 장기면 마현리-로 유배지가 바뀐 이유가 여기에 있다.

1675년 윤5월 15일, 대사헌(大司憲) 윤焞(尹鑄), 장령(掌令) 조사기(趙嗣基), 지평(持平) 유하익(兪夏益)·이항(李沆) 등이 말하기를, “송시열이 덕원(德源)에 이르매 문생(門生)들이 따라간 자가 많았으며, 북쪽 땅의 선비들도 또한 모여와서 배우는 자가 많았다. 송시열은 이러한 자들을 거절하여 보내지 아니하고 강론(講論)하기를 옛날처럼 하였으며, 귀향 가던 도중, 철령(鐵嶺)에 올라 시(詩)를 지었으니... 옛 정승 송시열(宋時烈)을 남변(南邊)에 안치

(安置)하고 옵소서.”하니, 임금이 즉시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우암이 덕원에서 장기(長鬚), 웅천, 거제 등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 이유는 장선정(張善激)이 판의금부사[判金吾]로 있을 적에 덕원(德源)은 장기(瘴氣)-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기-가 없는 곳이라 하여 우암의 배소(配所)로 정한 바, 당시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를 크게 한(恨)하고 다시 남쪽으로 옮기기를 청하여 웅천(熊川)으로 귀양을 보냈으니, 웅천은 장기가 가장 심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우암이 귀양을 가고 나서 한양의 정치판은 우암의 죄를 형률(刑律)을 더하여 사형(死刑)으로 처치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정(李楨)과 이연(李煙)의 일-숙종 원년(1675) 3월에 복창군(福昌君) 정(楨)·복평군(福平君) 연(煙) 형제가 궁중에 무단출입하면서 궁녀[紅袖] 상업(常業)·귀례(貴禮)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 오다가 함께 귀양 간 사건. 즉 흥수(紅袖)의 변(變)을 말함- 이 발각됨으로 인해 정지되었다.

우암이 철령에 올라 지은 시가 있는데⁵⁾,

‘귀양 가다가 철령 꼭대기에 오르니, 내 마음은 도리어 쇠 같다. 유기지 만큼의 정성은 부족하지만, 귀양 가면서 흘리는 피는 채서산의 피처럼 감당할 수 있다. 머리 돌려 임금 계신 서방을 바라보니, 검은 구름(자신을 유배지로 보낸 간신인 남인(南人)을 비유) 가리어져 걷히지 않고 있다. 서방 사람(임금)에게 말하노니, 붉은 노을에 밝은 달빛 차소서(밝은 마음을 지녀 시비(是非)를 잘 가려 달라).’

즉, 우암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함이 억울하며, 성군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곧 오리라는 희망을 암시한다.

우암은 그래도 정승을 지낸 사람이나 귀양 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수행원들이 그를 우대했을 것이다. 우암의 손자인 봉곡(鳳谷) 송주석(宋疇錫)은 우암이 덕원(德源)으로 귀양갈 때 동행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 유배의 원인, 정적에 대한 적개심, 노정기(路程記) 등을 엮은 유배가사인 북관곡[北關曲]을 짓기도 하였다.

또한 덕원에서 장기로 이배되는 동안 지나가는 고을의 여러 명소에 들려 흔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동해시에는 삼척 심씨의 시조 심동로가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제자를 가르치며 생

5) [登鐵嶺吟(乙卯正月二十四日)]

行登鐵嶺巔(행등철령전) 가다가 철령 꼭대기에 오르니	我心還如鐵(아심환여철) 내 마음은 도리어 쇠 같도다
縱乏器之誠(종핍기지성) 유기지의 정성은 부족하지만	却耐西山血(각내서산혈) 채서산의 피는 감당할 수 있다네
回首望西方(회수망서방) 머리 돌려 서방을 바라보니	陰雲壅不決(음운옹불결) 검은 구름 가리어져 걷히지 않네
願言西方人(원언서방인) 서방 사람에게 말하노니	丹霞佩明月(단하패명월) 붉은 노을에 밝은 달빛 차소서

* 출처 : [登鐵嶺吟(乙卯正月二十四日) 한국학술정보(주)]

활할 때 지은 정자인 “해암정(海巖亭)”이 있는데, 그 안에는 ‘초합운심경전사(草合雲深逕轉斜)’라는 글이 있다. ‘풀은 구름과 어우르고 좁은 길은 비스듬히 돌아든다(의역 : 구름이 풀을 안고 깊고도 좁은 길을 구불구불 돌아든다)’는 뜻으로 우암이 덕원에서 장기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에 들려 남긴 글이라고 한다.

3. 속초와의 인연

3-1. 영랑호를 지나며

우암은 덕원(德源)으로 유배 갈 때 그를 따라간 문생(門生)들이 많았고, 덕원 지방의 선비들도 그에게 와서 배우는 자가 많았는데 우암은 이러한 자들을 거절하여 보내지 아니하고 강론(講論)하기를 옛날처럼 하였으며, 가던 날 철령(鐵嶺)에 올라 시(詩)를 지었으니 유배지를 남변(南邊)으로 옮기라는 사간(司諫)들의 청에 따라 장기로 이배되게 된다.

때는 1675년 5월 25일 우암의 유배행렬은 장사동 고개를 넘어 영랑호 근처에 다다른다. 당시 우암이 도착한 영랑호 북쪽은 간성군 지역으로 윤세장(尹世章)⁶⁾간성군수(1672~1676)가 같이 왔었을 것이다.

고성의 삼일포, 청간정, 동해의 해암정 등을 거쳤듯이 우암은 고려 때부터 유명한 양양지방의 영랑호를 그냥 지나쳐 가지 않았다. 우암은 영랑호의 경치를 보며 생각에 잠겼을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후에 일이지만 우암은 1680년 유배에서 벗어난 후, 1689년 1월 숙의 장씨가 아들(후일의 경종)을 낳자 원자(元子: 세자 예정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했는데, 이 때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소(訴)를 올렸다가 또 다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 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압송되는 도중에 전남 보길도에서 옮은 시가 있는데⁷⁾, 이 시의 내용을

6) 간성군지(杆城郡誌) 선생안(先生案)

7) 八十三歲翁(팔십삼세옹) 83세 늙은 이 몸이 蒼波萬里中(창파만리중) 거칠고 먼 바닷길을 가노라.
一言胡大罪(일언호대죄) 한 마디말이 어찌 큰 죄가 되어. 三黜亦云窮(삼黜역운궁) 세 번이나 쫓겨가니 신세가 궁하구나.

北極空瞻日(북극공첨일) 북녘 하늘 해를 바라보며 南溟但信風(남명단신풍) 남쪽 바다 믿고 가느니 바람 뿐이네.

보면 세상에 대한 억울함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 희망이 남아 있으며, 위에 언급한 철령을 지나면서 짙은 시에도 같은 감정이 드러나 있다.

다시 영랑호에서 서쪽에 우뚝 솟은 울산바위와 동쪽의 푸른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우암을 상상해본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재상출신이 이 고을에 왔으니, 당연히 양양도호부사는 간성군(杆城郡, 지금의 고성군)과의 접경지역에서 우암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⁸⁾는 안명로(安命老)⁹⁾로인데 마음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양양관아에서 40리나 되는 길을 달려 우암을 맞이하러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명로는 남인(南人, 우암의 서인과 적대적 관계)으로 1680년 경신대출척(경신환국, 남인이 대거 실각한 사건)으로 유배 중 사망하였는데, 경신대출척으로 기사회생한 서인의 영수인 우암에게는 냉소적이었지 않았을까? 우암을 양인(良人)의 집에 기거하게 한 것도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우암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있는 호수에 대해 마중 나온 사람에게 ‘이 호수는 영랑호라고 불리는 호수인데, 신라시대 때 ’영랑(永郎)’이라는 화랑(花郎)이 전국 유명산천을 다니다가 이 곳에 매료되어 일정보다 며칠 더 머물다 간 곳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글을 쓰기를 청하였다.

영랑호(永郎湖)!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영랑호(永郎湖)의 한자는 ‘밝은 랑(朗)’이 아닌 ‘사내랑(郎)’을 쓰는 영랑호(永郎湖)이다. 잘못 쓰여진 것이다! 유풍악기 《游楓嶽記》의 저자 김유(金柔, 우암의 제자)도 이 상황을 그의 글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어찌 이런 뜻이 있겠는가?’하며 한탄하고 있다.

반면 이해조(李海朝)는 그의 저서인 명암집 《鳴巖集》의 「영랑호(永郎湖)」라는 시에서 주석으로 ‘영랑호(永郎湖) 석자가 새겨서 있는데, 우옹(尤翁)¹⁰⁾의 글씨이다.’라고만 썼으며, ‘랑(朗)’자도 원래의 ‘랑(郎)’자로 표현했다.

저 서	유풍악기 《游楓嶽記》 – 김유 ¹¹⁾	명암집 《鳴巖集》 – 이해조 ¹²⁾
내 용	巖上刻永朗湖三字。云是尤菴先生筆而易郎以朗。豈有其意歟。바위위에 영랑호 석자가 있는데 이는 우암선생의 글씨이다. 랑(郎)이 랑(朗)으로 바꿔어있다. 어찌 이런 뜻이 있겠는가?	刻永郎湖三字。尤翁筆也 영랑호 석자가 새겨서 있는데, 우옹의 글씨이다.
	우암(尤菴)은 송시열의 호이다.	우옹(尤翁)은 송시열을 가리킨다.

貂舊萬恩在(초구만은재) 초구(임금이 하사한 담비 갖옷)에는 옛 은혜 서려있어
感激泣孤衷(감격읍고충) 감격한 외로운 속마음 눈물 지우네.

8) 정4품 벼슬이 다스리는 고을의 수장

9) 조선 종기의 문신이다. 1660년경 제가의 설을 통합한 병서인 《연기신편》을 저술하였고, 1664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양산군수·서천군수·연서찰방·인동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78년 우통례로 있으면서 군제를 개혁할 것을 상소하였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변방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명로 [安命老] (두산백과) 양양군읍지 선생안에는 1673.12 ~ 1675. 7월까지 재임 기록이 있다

10) 우암 송시열을 치칭

그런데, 같은 글을 보고도 왜 두 사람은 다른 글자(朗, 郎)를 자신들의 글에 남겼을까? 또, 김유(金樣)와 이해조(李海朝)는 왜 자신들의 문집에 우암의 훈적을 남겼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 모두 우암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김유는 우암의 직속제자이고, 이해조는 우암의 직속제자인 김창협(金昌協)의 동생인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으로부터 천재라는 호칭을 들은 인물인데, 1703년 7월에 지평, 정언(사간원, 사헌부의 관직이름)이 되었을 때 대사성 김진규(金鎮圭)가 우암의 죄를 사면하는 상소(尤庵伸救劄子)를 지어 성균관 유생(泮儒)들의 이름으로 올리려 한 일로 반유(泮儒)들과 갈등을 빚자 친 우암파인 김진규(金鎮圭)의 파직을 청하기도 한 사실로 보아 우암을 존경하지 않는 인물로 보이나, 이해조가 죽었을 때 그의 신도비를 지은 이관명(李觀命), 표지석을 쓴 이해조(李海朝) 모두 우암의 사람이니 참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만, 속종실록 33년 1707년 2월 2일 기사에는 왕에게 청하는 내용 중에 자신이 우암의 제자임을 스스로 얘기한 점과 실록에 전개되는 기사를 봄서는 우암의 제자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해조는 시인(時人)으로 1709년에 양양부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재직시절에 현산30영 〈峴山三十詠〉을 짓기도 하였다.

김유가 영랑호에 들른 것은 1709년 5월 9일이다¹³⁾.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암의 영랑호 관련 시를 남긴 이해조가 양양부사(1709년 2월 ~ 1710년 3월)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이니, 두 사람이 서로 같이 만나 영랑호를 유람했을 가능성성이 높다. 비록 7살의 나이차가 있지만, 두 사람이 요즘말로 ‘절친(친한 친구)’일 가능성은 김유가 이해조의 제문(祭文, 죽은 사람이나 천지 산천의 신에 대해 애도의 뜻, 또는 어떤 목적의 생각을 표한 글)을 지었기 때문이다. 제문은 평소 돌아가신 분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쓰는 것이 보통이다.

김유의 『검재집』 해제에도 두 사람이 교우했다고 적혀있다. 설악산 봉우리(울산바위)가 영랑호 호수에 투영된 모습을 보며 한사람(이해조)은 시(時)를 짓고, 마지막에 ‘영랑호에 우옹(尤翁, 송시열을 가르킴)이 쓴 글자가 있다’는 주석을 달았고, 또 한사람(김유)는 랑(郎)이 랑(朗)자로 바뀌었다며 ‘어찌 이런 뜻이 있겠는가?’ 하며 한탄하는 문장을 기행문에 남겼다.

11) 김유(金樣)[1653~1719]는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사직(士直), 호는 검재(儉齋). 할아버지는 극형(克亨)이고, 아버지는 관찰사 징(澄)이며, 박세채(朴世采)-우암의 문인이다. 일찍이 학문에 조예가 깊어 박세채가 그의 후계자로 지목하였으며, 우암도 그의 재주를 종히 여겼다. 1674년(현종 15)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로 박세채·우암이 화를 당하자 이천에 은거하기도 하였다. 1689년 금강산 유람하였으며, 김창흡(金昌翕), 김창협(金昌協), 이관명(李觀命) 등과 교유했다.

12) 아시다시피 김창흡(金昌翕)은 설악산에 영시암(永矢庵)을 짓고 일시 기거한 인물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해조(李海朝)[1660~1711]는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 대제학 일상(一相)의 아들로 1681년(숙종 7)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1689년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벼슬을 단념하였다가 1694년 왕후가 복위된 뒤에 빙고별검(氷庫別檢)이 되었다. 이어서 공조·호조낭관을 거쳐 전주통판(全州通判)을 지내다가 1702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가독서(賜暇讀書, 조선시대에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文運)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 뒤 응교·부교리·집의·대제학 등을 역임하고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고, 할아버지 아래 3대가 대제학을 지냈으며, 시문에 뛰어나 김창흡(金昌翕)으로부터 천재라는 격찬을 받았다. 저서로는 『명암집(鳴巖集)』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13) 「유풍악기(遊楓嶽記)」

필자가 ‘랑(朗)’자의 오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것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송자(宋子)로 불리울 만큼 그의 학식이 고귀한데 설마 ‘영랑호(永郎湖)’라는 한자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우암 혼자 영랑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따라 다니는 많은 유생들과 영랑호를 잘 아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양양지역을 벗어난 우암의 행적이긴 하지만 우암의 유배길이 양양을 지나 강릉의 경포호에 다다랐을 때 호수 한 가운데 있는 바위에 각종 철새들이 찾아와 노는 곳으로 ‘새바위’라고 한다며, ‘조암(鳥岩)’이란 글씨를 남겼다. 또한 동해의 해암정(海巖亭)에 들렀을 때에는 정자 안에 ‘초합운심경전사(草合雲深逕轉斜)’라는 글을 남겼다. 그만큼 각 고을을 지날 때마다 글을 남겼고, 각 지방 관리로부터 읉송한 대접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암이 유배 길에 이르면서 흔적(자신의 심정)을 남긴 것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덕원의 철령에서 ‘머리 돌려 서방을 바라보니 검은 구름 가리어져 걷히지 않네. 서방 사람에게 말하노니 붉은 노을에 밝은 달빛 차소서.’라며 아직 자신에게 희망, 빛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동해의 해암정¹⁴⁾에서도 ‘풀은 구름과 어우르고 좁은 길은 비스듬히 돌아든다’(의역 : 구름이 풀을 안고 깊고도 좁은 길을 구불구불 돌아든다)’라며 혐난한 역경을 이겨나가려고 희망찬 (밝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1680년 전남 보길도에서도 ‘초구(임금이 하사한 담비 갖옷)에는 옛 은혜 서려있어 감격한 외로운 속마음 눈물 지우네.’라며 비록 자신은 억울함에 당해 유배당했지만, 아직 임금에 대한 사랑(빛)은 남겨놓았다.

즉, 유배 길에 깃든 우암의 마음은 비록 자신의 현재 신세는 보잘것없이 변해버렸지만, 내일(성군)에 대한 희망(다시 불러줌, 빛)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암이 지은 시문에서 빛(희망)을 광(光), 화(火), 명(明)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암은 영랑호 ‘랑(郎)’의 음을 빌어 ‘밝을 랑(朗)’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둘째 김유의 한탄적인 문장에서 우암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어찌 이런 뜻이 있겠는가? (豈有其意歟)’

앞서 언급했듯이 김유는 박세재(朴世采)·우암(宋時烈)의 문인(文人)이다. 문인(文人)이란 즉, 절대적인 스승이며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찬수낭관(纂修郎官) 재직 시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한 인물로 그만큼 지리에도 밝은 인물이다.

김유는 1674년(현종 15)년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로 자신의 스승인 우암이 화를 당

14) 정면 3칸, 측면 2칸의 출처마 팔작지붕 건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3호. 동해안의 기암(奇岩)이 솟아 절경을 이루고 있는 추암(湫岩) 앞에 세워진 정자다.

이 건물은 1361년(공민왕 10)에 심동로(沈東老)가 처음 세웠으나 소실되고, 1530년(중종 25)에 심언광(沈彦光)이 중건하였다. 그 뒤 1794년(정조 18)에 중수하였는데, 후에 송시열(宋時烈)이 덕원으로 유배가는 도중에 이곳에 들려 ‘草合雲深逕轉斜(초합운심경전사)’라는 글을 남겼다.

전면을 제외한 3번이 모두 4척(尺) 정도의 높이까지 벽체를 세우고 개방되었다. 10개의 둥근 기둥으로, 주두(柱頭) 위의 형식은 초익공(初翼工) 양식으로 수서 [垂舌]로 이루어졌으며, 창방(昌枋)에 소로 [小累]를 놓고 장혀 [長舌]와 도리(道理)가 여기에 놓여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북평해암정 [北平海岩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하자 벼슬을 버리고 이천에 은거하기도 하였다

의미심장한 건 김유가 우암의 실수를 지적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감히 스승의 실수를 한탄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한탄을 해야 한다면 ‘이런 뜻(意)’이 있겠는가? 아니라 ‘이런 실수(失手)’가 있겠는가? 하고 한탄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유의 표현은 반어적(反語的)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듯 싶다. 즉 영랑호(永朗湖)를 ‘영원히 밝은 호수’로 자신에게 불어 닥친 펑박(무고)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왕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해석함이 바로 실수(失手)가 아닌 그 뜻(意)! 우암의 심경인 것이다.

2. 내물치에서 비를 피하다

1675년 5월 25일 우암은 영랑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속진, 속초를 거쳐 외옹치 고개로 넘어 들었다.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암의 일행은 비를 피하기 위해 내물치촌[(內勿淄村), 탄촌선생(灘村先生)의 문집에는 현산 수차촌(峴山 水次村)으로 되어있다.]의 정립(鄭峈)이라는 양인(良人)의 집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의 양양도호부사(襄陽道護府, 정4품 벼슬이 다스리는 고을)는 안명로(安命老)이었는데, 안명로는 남인(南人, 서인인 우암과 적대적 관계)으로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유배 중 사망하였는데, 경신대출척으로 기사회생한 서인의 영수인 우암에게는 냉소적이었지 않았을까? 우암을 관아나 지역유지의 집이 아닌 양인(良人)의 집에 기거하게 한 것도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우암의 영랑호(永朗湖)



1970년대 내물치(설악산 입구)

※ 출처 : 속초문화원

속초시지(束草市誌)에 의하면 내물치리(內勿淄里)는 조선조 때 우암 송시열이 이곳에 왔다가 폭우로 머물게 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물치(勿淄)'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 곳에는 물치주시(勿縊柱詩)라는 내용이 전하는데¹⁵⁾

정립(鄭峈)이 우암에게 말하기를, 지난해(1674년) 5월에 승려도 아니고 세속 사람도 아니며 선비 같기도 하고 천인(賤人) 같기도 한 어떤 사람이 이 글씨를 써 두고 가면서 내년 5월 5일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귀하신 걸음이 기약에 맞춰 와서 보시게 되니 이상스럽다고 하였다.

15) 삼전시호인개신(三傳市虎人皆信), 일철군봉부역의(一鐵裙蜂父亦疑), 세상공명간목안(世上功名看木雁), 좌중담소신상구(座中談笑慎桑龜)라 한다. 속초문화원 홈페이지

이 글의 의미는

‘삼전시호인개신(三傳市虎人皆信)’은 저잣거리(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고사로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며,

‘일월군봉부역의(一撥裙蜂父亦疑)’의 의미는 ‘자식이라도 어미의 치마 속에 들어간 벌을 잡으려고 옷을 들추면 아비마저도 자식을 의심한다’는 의미로, 중국 춘추 시대 진(晉)나라 왕 현공(獻公)의 애첩이자 태자 신생(申生)의 계모인 여희(驪姬)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하여 현공과 신생 사이를 이간질시키고자 자신의 치마에 꿀을 바르고 벌이 모이자 신생으로 하여금 쫓아내게 하여 멀리서 지켜보던 왕 현공이 아들을 의심하게 만든 고사(古史)에서 유래하였다.

‘세상공명간목안(世上功名看木雁)’의 고사는 『장자(莊子)』 「산목(山木)」 편에 나오는데 산에 있는 큰 나무[木]는 쓸모가 없어서 도끼에 찍히는 재앙을 면하고, 반면에 울지 못하는 기러기[雁]는 쓸모가 있다고 하여 요리상에 오르는 것을 보고, 장자의 제자가 처신의 도리를 물으니, 장자가 웃으면서 “나는 재(材)와 부재(不材) 사이에 처하련다[어찌보면 세상의 선과 악의 중간, 중용(中庸)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에서 연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좌중담소신상구(座中談笑慎桑龜)’에 대해서는 『송자대전』에서 김연지(金延之)에게 답하는 편지글에서 우암 자신이 “외서(外書)에 동해(東海)의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신령한 거북을 얻었는데 그 거북의 말이, ‘천하의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삶아 죽일 수 없을 것이다.’고 하자, 이를 들은 어느 도인의 말이, ‘아무 곳에 있는 마른 뽕나무로 삶아도 죽지 않으랴.’고 하였다. 거북이 이 말을 듣고 곧 머리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네. 그러니 오늘날 좌중에서 한가하게 담소하는데 있어서도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우암의 전집인 『송자대전』과 권구[1672(權榘, 현종 13)~1749(영조 25) 조선 후기의 학자]의 탄촌선생(灘村先生) 문집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첫번째 우암이 이숙고[(李叔固]16)의 편지에 답하기를 “시호(市虎, 삼전시호인개신(三傳市虎人皆信) 글귀는, 여기에 오다가 소낙비를 만나 간성(杆城) 물치촌(勿縚村)의 양인(良人) 정립(鄭立)의 집을 뛰어 들어 갔을 때 기둥에 쓰여져 있었던 것이네.

정(鄭)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5월에 승려도 아니고 세속 사람도 아니며 선비 같기도 하고 천인(賤人) 같기도 한 어떤 사람이 이 글씨를 써 두고 가면서 내년 5월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귀하신 걸음이 기약에 맞춰 와서 보시게 되니 이상스럽다고 하였네. 그 필치도 매우 기이하였지만 위 구절은 위에서 차례로 내려 쓰고 아래 구절은 밑에서 위로 거꾸로 써 간 것도 알 수 없는 것이었네. 다만 아래 구절의 이른바 상구(桑龜)는 바로 오늘날 마땅히 가슴에 새겨 담아야 할 것이었네. 북쪽에 있을 때 서울 친구들에게 온 편지를 두 번이나 구동(狗洞-윤휴의 무리들)이 가로채 갔고 그의 심복들이 안팎에 두루 깔려 있으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은 그 시(詩)를 하암(虛菴) 정희량(鄭希良)이 유자광(柳子光)이 득세한 때에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하였다.

16) 이름은 대(垈). 호는 방수와(傍隨窩).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예

두 번째로 ‘현산(峴山, 지금의 양양)에 조선운(趙莘雲)이라는 자가 있는데, 조선이 훈란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절개를 지킨 지제(止齋) 조직(趙澤)의 아들이다. 병자년(1696) 봄에 우리 집에 수일을 머물렀는데, 전해들은 얘기에 의하면 선친께서 양양에 있을 때 조선이 어지러운 시기에 죄인들의 하소연과 귀양살이 당시의 일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상소를 올렸는데 장황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어떤 것은 해석이 불가능하다.

所記何事此則絕無此筆者不過今日叔固併書當
爲三晉始矣事希虎之句來時逢急雨馳入於杆
城勿縉村良人鄭立家則書在柱上矣鄭云前年五
月有人非僧非俗若士若賤者書此而去云明年五
月復至云而今貴行如期而來看可異云余其筆迹
亦甚奇而上句則順寫下句則倒亦未可知也只下
句所謂參照正今日之所蓄服膺者也在北時宗裏
知舊書再被狗洞購取而其心腹耳目遍布中外豈
非可憚也哉或云其詩是鄭處菴當子光時所作云
未知然否也文谷誠爲敬服石室先生真有捺美擇
之誠可念聞其舊館於草原以奉大夫而渠則坐
在瘞瘞中以渠情弱何能支久也然狗烹正欲其如
此也何可逃也佳味珍禽明春之示易勝翹首而第
不見嘉事也鄭老自記後復授示切仰
早晚人耳者惟素來潮聲自謂如此卒歲諸賢食客
與崔善餘癸卯四月二十二日

물치주시의 내용이 담긴 글-『송자대전』 중

다만, 조선운이 이르기를 세상공명동목안(世上功名同木鴈)。좌중담소신상구(坐中談笑慎桑龜)。삼전시호인개신(三傳市虎人皆信)。일철군봉주역의(一掇裙蜂主亦疑).'이라 하였다. 이 시는 기묘년(1519) 정암(靜庵) 조광조의 ‘사운중량구(四韻中兩勾)’이다. 갑인년(1674년) 전에 어떤 사람이 현산의 수차촌의 정립(鄭立)이라는 백성의 집 기둥에 적었는데, 송상이 남쪽으로 유배갈 때 물에 막혀 낙산(洛山)에 이르지 못하여 이 집에 머무르다 이 시를 보았는데, (그 뜻을 두고) 사람들마다 다르다하였다. 후에 우암을 흡모하던 유진사 회일이 그 집에 기거하면서 그 시를 제거하였다¹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권구의 글 중에서 ‘이 시는 기묘년 정암(靜庵) 조광조의 사운중량구이다.’라는 문장 중에서 기묘년은 기묘사화가 일어난 1519년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한데, ‘정암(靜庵) 조광조의 사운중량구이다’라는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조선운의 의견인지 권구의 의견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조광조가 직접 쓴 사운중량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광조와 관련된 사운중량구’라는 이야기인지 불분명하다.

『송자대전』과 『탄촌선생(灘村先生) 문집』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물치주시의 작자(作者)가 누구이냐가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우암은 이숙고의 답장에서 ‘허암 정희량’이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권구는 ‘정암 조광조’가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먼저 『송자대전』과 『탄촌선생(灘村先生) 문집』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문장의 순서가 다르다.

문집명	내 용	물치주시의 주인공
송자대전	삼전시호인개신(三傳市虎人皆信), 일철군봉부역의(一鐵裙蜂父亦疑), 세상공명간목안(世上功名看木雁), 좌중담소신상구(座中談笑慎桑龜)	허암(虛菴) 정희량(鄭希良)
탄촌선생 문집	세상공명동목안(世上功名同木鴈). 좌중담소신상구(坐中談笑慎桑龜). 삼전시호인개신(三傳市虎人皆信). 일철군봉주역의(一掇裙蜂主亦疑).	정암(靜庵) 조광조

17) 권구(1658~1731)의 『탄촌선생문집(灘村先生遺稿卷之七)』의 「만록(謾錄)」

물치주시의 문장순서가 아래로 내리쳤다 다시 위로 올려쳤다고 하였으니 이글의 비상함을 염두해 두고 문장의 앞글자만 보자면 『송자대전』의 글은 “삼일세좌(三一世座)” 즉 삼일천하, 짧은 기간의 권력이요, 『탄촌선생(灘村先生) 문집』은 “세좌삼일(世座三一)” 즉 천하의 권력도 3일(짧음, 부질없음)이라 문맥은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송자대전』에서는 삼전시호인개신(三傳市虎人皆信)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세상의 야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탄촌선생(灘村先生) 문집』에서는 세상공명동복안(世上功名同木鴈)이 먼저 나오므로 세상의 공명이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물치주시(勿緇柱詩)의 주인공

또한, 『송자대전』과 『탄촌선생(灘村先生) 문집』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1. 정희량(鄭希良, 1469 ~?, 이하 허암)

먼저 우암이 물치주시의 주인공으로 추측한 정희량(鄭希良)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선로[신선로(神仙爐) 또는 열구자탕(悅口子湯), 한국의 궁중 음식에 속하는 전골요리]’라는 음식을 알려준 인물로 전해지는데, 음양학(陰陽學)에 능통하였다고 한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김시습으로부터 선도(仙道)를 전수받았다.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은 자가 순부(淳夫)이다.

일찍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말하기를 “아무 간지(干支)에 태어났다면 흉할 것이다.” 하고는 매양 세상을 피해 은둔하려는 뜻이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이 되었는데 무오사화 때 의주(義州)에 유배되고 김해(金海)로 이배(移配)되었다가 갑자년(1504, 연산군10)에 석방되었다고 한다.¹⁸⁾

1502년 모친상을 당하여 고양(高陽)에서 시묘살이를 할 때 하루는 갑자년에 사화가 있을 것을 알고 말하기를, “무오년보다 심하리라.”하며 종들을 여기저기 보내어 어른은 땔나무를 해 오게 하고, 아이는 나물을 캐 오게 하였는데, 종들이 돌아오니 정공은 집에 없었다. 살살이 자취를 찾았는데 단지 모래사장에 벗어 놓은 신발만 발견되었으므로 강에 빠졌는가 의심하였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이날이 5월 5일(물치주시에서 언급한 날짜와 같음)이다. 죽자가 연산군에게 정희량을 물색할 것을 아뢰자, 연산군이 말하기를 “미친놈이 도망가 죽었는데 뭐 하러 찾는단 말인가.” 하여 찾지 아니 하였다고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가천원(加川院) 벽 위에 적혀 있던 시 두 구절이 필시 허암이 지은 글이라고 하였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새는 무너진 담 구멍을 엿보고 / 鳥窺頽院穴	종은 석양에 물을 긋는구나 / 僧汲夕陽泉
산수로 집을 삼은 나그네이니 / 山水爲家客	천지간 어느 곳에 있으랴 / 乾坤何處邊
비바람이 전날 세상을 놀래더니 / 風雨驚前日	운명이 이 시대를 저버렸구나 / 文明負此時
쓸쓸히 지팡이로 천지를 떠도니 / 孤筇遊宇宙	시끄러움이 싫어 시마저 그만두네 / 嫌鬧并休詩

김倫(金倫)이라는 점쟁이가 묘향산(妙香山)에서 어릴 적에 방외(方外)의 도사 이천년(李千年)이란 자를 만나서 솔수를 배웠는데, 김倫이 하직하고 돌아올 적에 그가 다음과 같이

18) 《성호전집》 제8권 해동악부(海東樂府)

시를 적어 주었다.¹⁹⁾

김륜이 일찍이 그를 따라 다니다가 그가 기록한 생년월일시의 오행(五行)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신경광(申景光)이 선비와 현달한 관인들의 오행을 적어 놓은 책을 보다가 허암의 오행에 이르러서 깜짝 놀라며 “이는 우리 스승 이천년(李千年, 허암의 가명)의 팔자이다.”라고 하였다.

또, 《연려실기술》에는 수재(秀才) 혹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라고 한다. 수재가 산중에서 《주역(周易)》을 읽고 있었는데, 한 늙은 중이 곁에 있다가 그 태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 이따금 구두의 틀린 것을 고쳐 주었다. 수재는 그 중이 허암(정희량의 호)인가 의심이나서, “당신이 주역을 아시오?” 하니, 중은 “모르오.” 하고 사양하였다. 또 “주역의 내용은 매우 깊어서 읽기 어렵소.” 하니, “선비의 주역 읽는 것을 보니 능히 통달하였소.” 하였다.

또 문답하기를, “당신이 정허암을 아시오?” 하니, “모르오.” 하였다. “허암은 정희량의 호입니다.” 하니, “그 성명은 자못 듣고 있으며 그 사람된 품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허암이 종적을 숨기고 나오지 않으니, 아까운 일입니다.” 하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정아무(鄭某 정희량을 말한다)는 어버이의 상중에 시묘살이를 하다가 상례를 마치지 못했으니 불효요, 임금의 명을 피해 도망갔으니 충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여 죄가 크니 무슨 낯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겠습니까.” 하고, 조금 후에 작별하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전한다.

허암이 강물에 빠져 죽은 뒤에 서쪽 지방(평안도)의 산승(山僧)들이 혹은 괴이한 종이 이 산저 산을 왕래한다고도 하고, 혹은 허암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분명히 보았다 하기도 하고, 혹은 장발(長髮)의 방사(方士)가 자취를 숨기고 왕래하면서 승려들에게 시를 지어 주면 사람들이 다투어 외운다고도 했다. 즉, 허암은 모래사장에 벗어 놓은 채 사라졌고, 자기의 신분을 감춘 체 전국을 유랑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시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전파하게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주정(海州鄭씨) 종친회(海州鄭氏宗親會)에 의하면, 정희량은 1530년에 전국을 떠돌아 다니다가 죽었다고 한다.

2. 권구(權穎, 1658~1731)

『탄촌선생(灘村先生) 문집』의 저자인 권구는 강원도 고성출신으로 우제(迂齋) 조지겸(趙

19) 팔순 된 산속의 늙은이 / 八十山中老

삼彭[도교(道教)에서 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으면서 수명·질병·욕망 등을 좌우한다는 세 마리의 별레]을 이미 쓸어 없애고 / 三彭已掃除

인간 세상을 꿈꾸지 않으니 / 人間應不夢

학과 짹할 뿐 다른 뜻 없네 / 鶴伴意無餘

눈 쌓인 의자엔 달빛이 차고 / 雪榻蟾光冷

구름 낀 창엔 햇볕이 성글다 / 雲牕日影疏

뉘 알리오 티끌 없는 거울은 / 誰知無累鑑

만대토록 절로 청허하다는 것을 / 萬代自清虛



인천 허암지(虛庵址)의 시비

持謙)과 명제(明齋)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김창협(金昌協), 이세필(李世弼), 최석정(崔錫鼎) 등과 교유하고, 학행(學行)으로 천거받아 감역(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학문에서는 장구(章句)를 분석하고 해석하기보다 근본원리를 통찰하고 실천하는 데 힘썼다. 특히 예학에 뛰어나 「오복편람(五服便覽)」, 「예요오자고(禮要誤字考)」, 「상복편고(喪服便考)」 등의 저술을 남겼다. 중요한 것은 권구의 스승인 조지경은 우암과 경쟁관계이자 원수 지간인 윤선거(尹宣擧, 1610~1669)의 친구이고, 윤증(尹拯, 1629~1714)은 윤선거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3. 조직(趙澤, 1555~1645)²⁰⁾

권구가 물치주시에 대해 들었다는 조신운(趙莘雲)의 아버지 조직(趙澤)은 국조인물고에 의하면 광해군당시의 인물로 조수륜(趙守倫, 성흔의 문인) 밑에서 공부하고, 다시 문위(文緯)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1613년(광해군 5) 광해군의 폐모사건이 일어나자, 나라의 기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아우 옥(沃)에게 부모의 봉양을 부탁한 다음 분연히 폐모반대의 항소(抗疏)를 올렸는데, 그 때 나이 22세였다.

광해군은 크게 노하여 반드시 뒤에 사주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국(庭鞫)을 열어 엄히 신문하였지만, 끝내 조정의 그릇된 처사를 바르게 하려는 뜻에서 옆음을 진술하고, 이듬해 남해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석방되어 호조좌랑에 제수되었다가 형조좌랑으로 옮기고 이어 형조정랑으로 승진되었으며, 1631년 간성(杆城)군수, 1634년(인조 12년)에는 양성 현감(陽城縣監)에, 1635년(인조 13년) 가을에 그만두고 돌아와 1637년(인조 15년)에 양친(兩親)을 모시고 관동(關東)에 들어가 양양(襄陽) 땅에 우거(寓居)하여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칠 뜻을 가졌다 (1637년 7월부터 1643년까지는 양양 거주). 1643년 고성(高城)의 군수를 지냈으며, 시문과 서화에 능했는데,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렸다. 1658년(효종 9) 좌승지로 추증되고, 그 이듬해 대사헌으로 추증되면서 한천군(漢川君)에 추봉된 인물이다. 권구의 친구인 조신운(趙莘耘)은 조직의 막내아들이다.

4.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조광조(趙光祖)는 역사의 기본상식만 있어도 아는 인물이니, 너무나 곧은 사람이었기에 일찍 부러진 표본이었다. 과거시험을 없애고 천거제(薦舉制)를 실시하고, 소격서(昭格署, 조선시대 도교의 행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를 폐지한 그는 유교 국가임을 내세운 조선 왕조가 유교적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광조는 평생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다. 조선 중종(재위 1506~1544) 때 사림파의 대표로 급진적인 사회개혁정치를 추진하다가 기묘사화로(己卯士禍)로 죽음을 당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물치주시를 썼을까? 더불어 누구를 빗대어 쓴 글일까?

20)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울치주시의 내용이 기존의 『한비자(韓非子)』, 『장자(莊子)』에 나오는 글귀이며, 장자(莊子)의 좌우명이라는 설도 있기에 새롭게 창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연관된, 누구를 빛댄 글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먼저 글쓴이의 그 주인공을 찾고자 한다면

첫 번째, 우암이 추측한 “정희량설”과 권구의 “조광조설”로 좁힐 수 있다.

또 다른 설로는 양동창²¹⁾님의 「한자이야기」에서는 문동재(文東在)²²⁾씨와 물치리 이덕우(李惠雨)씨에 의하면 이 시는 “송강 정철(鄭哲, 1536~1593)이 우암 송시열을 칭고하려고 쓴 시라고 하는 설”과 “영의정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썼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정철설”은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을 유람하다 이곳에 들려 울치주시를 썼는데, 그 중 ‘좌중담소()상구[座中談笑(愼)桑龜]’문장에 ‘신(愼)’자가 들어갈 곳을 비어놓아 후에 우암이 그 글을 보고 ‘신(愼)’자를 적어 넣었다고 한다는 설이다. 이 설이 맞다면 우암의 상구(桑龜)관련 글에 이 내용이 나와야하는데 송자대전에는 그 내용이 없다.

“이산해설”은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인물로 보자면 토정 이지함의 조카이다. 당대의 문장가이며 동인(東人)의 영수로 영의정(領議政)시절 한때 친구였던 정철을 탄핵한 장본인이며, 조광조의 사후(事後) 1583년에 조광조의 비문(碑文)과 비음기(碑陰記, 비석 뒷면에 새긴 글)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정희량은 무오사화 때 사초문제(史草問題)로 윤험상(尹弼商) 등에 의해 신용개·김전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았는데, 난언(亂言)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장(杖) 100대, 유(流)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이배되었다. 1502년 어머니상을 당했을 때 갑자사화를 예견하고 갑자기 사라진 인물이다. 세상의 권력을 누렸다보다는 세상을 내다보고 희망이 없음을 예견하여 자신의 삶을 위해 세상을 등진 사람이다.

“정희량설”에 힘을 실어준다면 첫 번째, 정희량은 김전(金誼)·신용개(申用溉)·김일손(金駟孫)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 : 문흥을 일으키기 위해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만 전념케 하던 제도)에 등용될 정도로 문명(文明)이 있었고, 음양학(陰陽學)에도 밝은 인물이다. 또한 설악산에서 기거했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으로부터 선도(仙道, 신선의 도)를 전수받았으니, 기록에는 없지만 이 고을에 다녀갔을 확률 또한 높다.

울치주시의 출처가 『한비자(韓非子)』, 『장자(莊子)』이니 한비는 반유가(反儒家)사상의 선봉인 법가사상(法家思想, 인간의 모든 활동은 통치자와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상)의 대부이고, 장자는 노자와 함께 도교의 사상인 노장사상(老莊思想)을 완성시킨 사람이니, 음양학과 주역에 밝은 정희량이 위의 책들을 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정희량은 1502년 사라진 후 승려도 아니고 도인도 아닌 행색으로 전국을 유랑하다 승려들에게 시를 지어 주면 사람들이 다투어 외워서 자신의 생각을

21) 前 양양군 부군수, 前 양양문화원장 역임

22) 前 양양문화원 이사 역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고, 가천원(加川院)의 벽과 김륜(金倫)에게 남긴 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대화내용처럼 이 곳 물치촌에 들려 인생무상(人生無常)의 글을 적어놓았을 것이다.

두 번째, 쓰여진 연대가 확실한지 봐야 할 것이다. 물치주시가 쓰여진 집주인 정립이 말하기를 “1674년(갑인년) 5월에 승려도 아니고 세속 사람도 아니며 선비 같기도 하고 천인(僕人) 같기도 한 어떤 사람이 이 글씨를 써 두고 가면서 내년 5월 5일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는데....”하였다. 그렇다면 이 글의 1674년경에 이곳을 다녀간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674년이라는 집주인의 증언을 연대의 절대적인 증거로 채택한다면, “정희량설(1469~?)”과 “조광조설(1482~1519)”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두 사람 모두 1674년 이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정희량이 설마 도인(道人)이라 할 지라도 200세 이상 살 수 있을까? 송강 정철(1536~1593)과 이산해(1539~1609)의 생몰년도 마찬가지이다.

권구의 글에 나오는 조선문의 아버지인 조직이 양양에 있을 때 유배당한 죄인들의 하소연과 귀양살이 당시의 일들을 모아 쓴 것으로 보이는 상소를 올렸으니, 조직이 양양에 있을 때가 1637년 7월부터 1643년까지이고, 갑인년 전에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다고 하였으니 물치주시는 적어도 1674년(갑인년)보다 60년 전인 1614년(갑인년) 이전에 쓰여진 글이 된다.

따라서, 1674년에 썼다는 집주인의 말은 물치주시 일화를 미화하는 과정에서 현실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확률이 높다.

다음 물치주시가 누구를 훈계하는 글인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물치주시와 관련된 인물은 우암으로, 우암을 거북이에 비유하여 천하의 혼인이나 권력자인 우암도 헛소문과 모략에 휘말려 결국은 왕의 의심을 받고 불행한 최후를 맡게 될 것이라고 교훈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우암과 빗대어 얘기한다면 우암을 존경하거나 우암이 걱정되어서 쓴 것이 아니라 우암의 운명을 조롱하고 훈계하는 또는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암이 지나간 후에 우암을 흉모하던 물재 유회일이 그 집에 기거하면서 글씨를 지웠다는 것을 봤을 때도 우암의 칭송하는 글은 아니다. 물재가 자신의 스승을 모독하는 글을 그냥 놔 둘리 없었을 것이다.

우암 또한 김연지와의 오고간 편지에서 “그러니 오늘날 좌중에서 한가하게 담소하는데 있어서도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야 이미 술에 든 고기가 되었으니 털을 태워도 곧 익어 문들어지게 되었네. 어찌 뽕나무까지 쓸 필요가 있겠는가.....<중략>

아시다시피 물치주시와 관련된 인물은 우암으로, 우암을 거북이에 비유하여 천하의 혼인이나 권력자인 우암도 헛소문과 모략에 휘말려 결국은 왕의 의심을 받고 불행한 최후를 맡게 될 것이라고 교훈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우암과 빗대어 얘기한다면 우암을 존경하거나 우암이 걱정되어서 쓴 것이 아니라 우암의 운명을 조롱하고 훈계하는 또는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암이 지나간 후에 우암을 흉모하던 물재 유회일이 그 집에 기거하면서 글씨를 지웠다는 것을 봤을 때도 우암의 칭송하는 글은 아니다. 물재가 자신의 스승을 모독하는 글을 그냥 놔 둘리 없었을 것이다. 우암 또한 김연지와의 오고간 편지에서 “그러니 오늘날 좌중에서 한가하게 담소하는데 있어서도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야 이미 술에 든 고기가 되었으니 털을 태워도 곧 익어 문들어지게 되었네. 어찌 뽕나무까지 쓸 필요가 있겠는가.....<중략>	間有人言先生有北 句者其否詩曰三傳市虎人皆信一報祖峰父亦疑詩 世上功名看不屬座中談笑懷桑龜其事頗異云未知其然否 宋子大全書卷五十一 自北南遷也猝遇大雨走入襄陽勿繼村民人鄭立 家其屋柱有詩果知來示而但上句則順畫下句則 倒畫問于主人則曰前年五月有過客似富漢亦似 兩班者書此而去云其筆朴野而頗熟矣發題處亦似 會見否外書東海人得一靈龜題自言盡天下之才 亦不能烹殺我矣有道人曰烹之以某處枯桑之木 死子鵠頭流涕云今日坐中間談笑者亦不知 以知戒矣然如我則已成鼎魚雖燒之以毛而即可 糜爛矣何至必用桑子其日卽閏五月廿七日也鄭 立父言其人書此而去曰明年此日賓來相訪云而 尙不來也云大槩此事甚真而亦不須浪說也。 答金延之乙卯十二月二十八日 十月廿五日三十日兩度惠書大承拜極慰懸念 穀託先狀拜受莊誦第有難承之懼耳極欲此筆忘 稟而賊病遇寒增劇朝夕茶飯亦幾停廢當俟少間 氣竭別紙縛體病裏奉玩不勝欣幸蓋久間 宋子大全書卷五十一 而鄭立父言其人書此而去曰明年此日賓來相訪云而 尙不來也云大槩此事甚真而亦不須浪說也。 答金延之乙卯十二月二十八日 十月廿五日三十日兩度惠書大承拜極慰懸念 穀託先狀拜受莊誦第有難承之懼耳極欲此筆忘 稟而賊病遇寒增劇朝夕茶飯亦幾停廢當俟少間 氣竭別紙縛體病裏奉玩不勝欣幸蓋久間
--	--

송자대전에 실린 물치주시 관련 이야기

이 일은 몹시 이상하나 또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는 말게.”라고 말하였으니 우암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이고 참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는가?

또한, 조광조를 빗대어 얘기한다면 그의 물락과정을 보면 물치주시의 내용과 거의 들어맞는다.

조광조를 물락시킨 기묘사화(己卯士禍)는 1519년(중종14년) 11월에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의 훈구파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상정치(理想政治)를 주장하던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등의 신진파를 죽이거나 귀양 보낸 사건인데, 수세에 몰리던 훈구파는 마침내 조광조를 몰아낼 무고(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고발하거나 고소함)를 꾸몄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출처 : <http://cafe.daum.net/pukyng.forest/>

홍경주 · 남곤 · 심정 등은 경빈 박씨(敬嬪朴氏) 등의 후궁을 움직여 궁중의 나뭇잎에다 ‘주초위왕(走肖爲王)’[주초를 합하면 조(趙) 자가 됨. 곧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란 글씨를 쓰고 꿀물을 무수히 바르게 하여 벌레로 하여금 깃아먹게 하고, 궁녀들이 이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모아 임금에게 바쳤다. 또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한다고 무고했다. 곧 공신들을 훨뜯어 몰아내고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끊임없이 모략질을 해댄 것이다.

물치주시의 내용과 조광조, 송시열의 물락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치주시	조광조	송시열
삼전시호인개신 (三傳市虎人皆信)	조광조가 왕이 되려한다는 훈구파의 무고	1. 2차 예송의 상대방(남인)
일철군봉 부역의 (一掇裙蜂父亦疑)	벌레들이 깃아먹은 ‘주초위왕(走肖爲王)’이 적힌 나뭇잎을 본 중종(中宗)의 실망	남인들의 계속된 공격과 숙종, 경종의 결단
세상공명 간목안 (世上功名看木雁)	귀양 후 사사	귀양, 이배 후 병사
좌중담소신상구 (座中談笑愼桑龜)	천거제(薦舉制) 실시, 소격서 폐지	2차 예송 - 서자(庶子) 세자책봉 반대(경종대)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조광조와 송시열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이 글을 보게 되더라도 이 글의 교훈에 들어맞는 인생을 가졌다면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그 누구도 이 글의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우암의 속초여정을 돌이켜보면

우암은 함경도 덕원에서 경상도 장기로 이배도중 영랑호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인근바위에 ‘영랑호’라는 글을 쓴다.

영랑호(永朗湖)!!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영랑호(永朗湖)의 한자는 ‘밝은 랑(朗)’이 아닌 ‘사내랑(郎)’을 쓰는 영랑호(永郎湖)이다. 우암의 제자인 유풍악기《游楓嶽記》의 저자 김유(金柂)도 이 상황을 그의 글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어찌 이런 뜻이 있겠는가(豈有其意歟)?‘하며 한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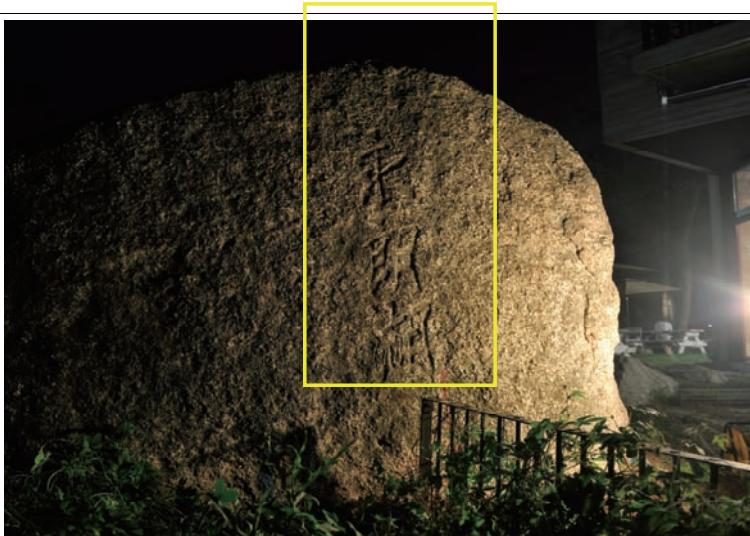
우암이 유배길에 이르면서 흔적(자신의 심정)을 남긴 것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덕원의 철령에서 ‘머리 돌려 서방을 바라보니 검은 구름 가리어져 걷히지 않네. 서방 사람에게 말하노니 붉은 노을에 밝은 달빛 차소서.’라며 아직 자신에게 희망, 빛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동해의 해암정에서도 ‘풀은 구름과 어우르고 좁은 길은 비스듬히 돌아 듦다’(의역: 구름이 풀을 안고 깊고도 좁은 길을 구불구불 돌아든다)’라며 험난한 역경을 이겨나가려고 희망찬(밝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1680년 전남 보길도에서도 ‘초구(임금이 하사한 담비 갖옷)에는 옛 은혜 서려있어 감격한 외로운 속마음 눈물 지우네.’라며 비록 자신은 억울함에 당해 유배당했지만, 아직 임금에 대한 사랑(빛)은 남겨놓았다.

즉, 유배 길에 깃든 우암의 마음은 비록 자신의 현재 신세는 보잘것없이 변해버렸지만, 내일(성군)에 대한 희망(다시 불러줌, 빛)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암이 지은 시문에서 빛(희망)을 광(光), 화(火), 명(明)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암은 영랑호 ‘랑(郎)’의 음(音)을 빌어 ‘밝을 랑(朗)’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김유의 표현은 반어적(反語的)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듯 싶다.

즉 영랑호(永朗湖)를 ‘영원히 밝은 호수’로 자신에게 불어 닥친 팁박(무고)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왕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해석함이 바로 실수(失手)가 아닌 그 뜻(意)! 우암의 심경인 것이다.



우암의 영랑호(永朗湖) 글씨가 새겨진 바위

- ‘영(永)’자와 ‘랑(郎)’자 왼쪽으로 우암(尤庵)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물치주시의 글쓴이로는 “정희량설”이 가장 유력하고, 조광조와 송시열을 조롱하는 글이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광조는 글쓴이의 후보자이자 교훈의 대상이기도 한다. 정희량과 조광조의 공통점은 모두 사화(史禍)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사실 본 글의 목적이 속초와 송시열과 연관된 사연을 쓰고자함이므로, 물치주시 또한 송시열과 연관시켜 끝을 맺는 것이 좋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물치주시가 주는 교훈이

너무 크기에, 송시열만이 교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조광조를 같이 넣고자 하려는 것이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실록은 원본(元本)과 수정본(修政本)이 있다. 후대의 정치인들에 주도세력에 의해 다시 쓰여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송시열 또한 그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였으나, 1716년의 병신처분[(丙申處分)], 윤증의 부친인 윤선거(尹宣擧)가 사망하자, 우암에게 묘갈명을 부탁하여 받았는데, 이에 대해 윤증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시작된 논쟁에 대해 국왕이 윤증의 잘못으로 판정한 정치적 처분]과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였다. 영조 및 정조대에 노론 일당전제가 이루어지면서 송시열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되고 존중받게 된 것이다.

또한, 유배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많았으니, 영랑호에 우암의 글씨가 있다는 기록을 남긴 김유나 이해조 뿐 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유명한 처사(處士)인 물재(勿齋) 유회일(柳晦一)이 그 중 한 사람이다.

물재 유허비(勿齋 遺墟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갑인년(1674년)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역적(逆賊) 윤휴(尹鐫) 곁에서 머뭇거리면서 선비의 이름을 빌려 사화(士禍)에서 광대노릇을 하였다. 그 무리들이 성균관(成均館)을 혼란케 하려고 하니, 공은 뜻을 함께한 동지(同志)들과 통문(通文)을 돌려 그들의 죄를 성토(聲討)하고 심지어 윤휴의 이름을 사적(士籍)에서 지워버리고자 하였다.



1960년대 내물치 전경<출처:속초시지>

이때부터(1674년~1689년) 공은 벼슬길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이 마을에 은거하였다. 이곳은 바로 양양(襄陽)에서 다스렸던 곳으로, 이 마을의 이름은 물치(勿縕)이고 우암(尤菴) 송 선생(宋先生)이 귀양 가던 길에 머무셨던 곳이다. 공은 그 자리에 거처하며 흠모하였으니, 높은 산과 큰길처럼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를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있었던 것이다. 그 집에 ‘물재(勿齋)’라고 편액(扁額)하였는데, 이는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물치(勿縕)의 마을 이름에서 의미를 취한 것이다’.

호를 짓는 기준에 대해 이규보(李奎報)는 그의 『백운거사어록(白雲居士語錄)』에서 “거처하는 바를 따라서 호로 한 사람도 있고, 그가 간직한 것을 근거로 하거나, 혹은 얻은 바의 실상을 호로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였다.

정희량의 호는 허암(虛菴), 조광조의 호는 정암(靜庵), 송시열의 호는 우암(尤菴)이다.

세 사람 각각 욕심 없는 바위(허암 : 인천 계양산의 허암봉에 유래), 고요한 바위[논어에 이르기를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靜) 한다], 뛰어난 바위, 동떨어진 바위!. 그들 모두 외로이 서있는 바위나 암자로 비유하면서 겸허하게 조용하게 세상을 바꾸고자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고, 그들의 적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암의 ‘영랑호(永朗湖)’라는 글씨의 발견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난 ’16년 9월말 문화재청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진위여부를 확인하려 현장에 와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랑호(永朗湖)’라는 각자와 그 글자가 우암의 것이라는 김유의 유풍악기 《游楓嶽記》의 기록고증을 통해 우암의 필체라는 것은 확실히 밝혀졌다.

그러나, 고성 가학정(高城 駕鶴亭), 해산정(海山亭), 간성 선유담(仙遊潭), 강릉 해운정(海雲亭)의 「정부자영당기(程夫子影堂記)」, 경포호의 조암(鳥巖), 동해의 해암정(海巖亭), 전남 보길도 등 전국에 우암의 글씨가 많이 산재해 있어서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지는 못했다.

다만 철령, 양양, 동해 울진, 장기 등 우암의 귀양길만을 종합하여 하나의 스토리텔링 소재로 자리 잡아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길 바라며, ‘영랑호(永朗湖) 각자(刻字)’와 ‘물치주시(勿緇柱詩)’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 속에 바로 새겨 우리의 삶에 지표가 되기를 바란다.



<전남 보길도의 우암의 ‘글쓴바위’>

청초호(青草湖)의 정자(亭子)

- 침산정(浸山亭)과 청초정(青草亭) -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물을 짓고, 시와 노래를 읊으며 인생을 즐겼다. 그 ‘건물’이란 것을 통상 “정자(亭子)”라 일컬는데, 산수가 수려한 곳에 사방인 트인 벽이 없는 집을 지어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한 건축물로 낮은 마루로 형성된 것이 많다.

이규보의 사륜정기(四輪亭記)에 따르면, 일찍부터 정자는 손님을 접대하고 학문을 토론하며 풍류가 벌어지는 공간이다.¹⁾라고 기록하고 있다.

“관동팔경(關東八景)”의 경우도 주로 정자가 설치된 곳이다. 대관령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관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²⁾. 그 명승지들은 관동지방의 수많은 경승지 중에서 특히 예로부터 손꼽혀 온 경승지로, 고성의 청간정(淸澗亭), 강릉의 경포대(鏡浦臺), 고성의 삼일포(三日浦), 삼척의 죽서루(竹西樓), 양양의 낙산사(洛山寺), 울진의 망양정(望洋亭),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평해(平海)의 월송정(越松亭)이 그것이며, 월송정 대신 흡곡(歎谷)의 시중대(侍中臺)를 넣는 경우도 있다. 종래 강원에 속했던 망양정과 월송정은 현재 경북에 편입되었고, 또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지역에 속해있다.



<사진 1 고성군 청간정의 원경>

“관동팔경”은 예로부터 칭송되어 온 명승지인 만큼 이곳을 노래한 시가(詩歌)와 이곳에 얹힌 전설들이 많은데, 특히 조선 선조(宣祖) 때에 정철(鄭澈)이 관동팔경과 금강산 일대의 산수미(山水美)를 읊은 《관동별곡(關東別曲)》이 유명하고, 또 신라시대에 영랑(永郎) ·술랑(述郎) ·남석랑(南石郎) ·안상랑(安祥郎)이 삼일포와 월송정에서 놀았다는 전설도 널리 알려져 있다³⁾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이 유행하던 시기에 선비들이 정자에서 유희를 즐기며 시를 쓰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양양도호부 관내에도 많은 정자들이 있었다. 관란정(觀蘭亭), 영월루(詠月樓), 강선정(降仙亭) 등의 정자에서 이 지역으로 유람 온 많은 선비들이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며 수많은 시문(詩文)을 남겼다.

1) 출처 : 네이버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 조선 초 경기도지역을 “관내도”라 일컬었고, 강원도는 관내도의 동쪽이라 하여 “관동”이라 불리어졌다고도 한다,

3) 두산백과

속초지역에는 어떠한 정자들이 있었을까? 각종 기록과 전설에 의하면,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 지금의 속초관내에는 대한제국이전에 영금정(靈琴亭), 영랑정(永郎亭), 침산정(浸山亭), 청초정(青草亭)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도문동(道門洞⁴⁾)에 거주하시던 매곡 오윤환(吳允煥) 선생이 사비(私費)를 내어 1934년에 건립한 학무정(鶴舞亭)⁵⁾이 있는데, 현재도 존재하여 속초8경(束草八景)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경치를 자랑한다. 1960년대에 조도(鳥島)에 “용초정(龍草亭)”이 생겼었는데, 당시 강원도지사 이용의 ‘용(龍)’자와 속초의 ‘초(草)’자를 따서 이름지었다고 한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금정(靈琴亭)”은 속초시 동명동에 위치한 곳으로 정자가 있던 것이 아니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야금을 타는 소리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금정에 “비선대(秘仙臺)”라는 넓은 바위가 있어 바위위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앉아있을 수 있다고 한다. “비선정(秘仙亭)”이라고도 하며, “화험정(火驗亭)”이라고도 한다.

- 4) 속초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속초에서 가장 오래전에 형성된 마을로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에 설악산 입구에 위치한 이 마을을 지나다가 “도의 길로 들어가는 곳”이라 하여 도문(道門)이라 지었다 한다.
- 5) 속초8경의 하나로서,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쌍천(雙川) 옆 소나무 숲 사이에 있다. 한말의 성리학자 오윤환(1872~1946)이 1934년에 건립한 6각 정자인데, 6각 모양이라 하여 ‘육모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건물의 4면 모두 현판이 걸려 있는데, 남쪽에는 학무정, 북쪽에는 영모제(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제(敬義齋)라고 쓰여 있다. 정자 안쪽으로는 11개의 시판(詩板)과 학무정기가 걸려 있으며, 6면에 분합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정자 옆에는 1955년에 건립한 충효강릉박공휘지의지비와 1971년에 세운 학무정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오윤환은 이 마을 출신으로 본관은 해주, 호는 매곡(梅谷)이다. 일찍부터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3·1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제에 붙잡혀 근축을 치렀으며 삽발령과 창씨개명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학무정 [鶴舞亭] (두산백과)

“비선대(秘仙臺)”라는 명칭은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내려와 목욕을 하면서 신비한 곡조를 들으며 즐기던 곳이라는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18세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처음으로 표기된 명칭이지만, 문헌상으로는 성현(成僕, 1439년~1504년)의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에서 “청초호(青草湖)⁶⁾”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미 15세기에 많은 선비들이 찾던 것으로 여겨진다.

영랑정(永郎亭)은 단어 그대로 통일신라시대 화랑 중에 ‘영랑(永郎)’이란 화랑이 무리를 이끌고 수련을 하러다니다가 영랑호의 경치에 매료되어 수일간 기거하였다는 영랑호⁷⁾에 위치한 정자로 정확한 사료를 찾지 못해 설립 시기는 모르지만 현재 영랑호 범바위 바로 밑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그 자리로 추정되는 곳⁸⁾에 복원해 놓은 상태이다.

침산정(浸山亭)과 청초정(青草亭)은 청초호(青草湖) 주변에 있었던 정자로 영랑호(永郎湖)와 더불어 수많은 유람객들이 칭송한 시문(詩文)의 대상이자, 유희(遊戲)의 대상이기도 했다. 수많은 역사를 가진 영랑호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쓰기로 하고 청초호에 있었던 침산정과 청초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청초호⁹⁾는 속초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면적 1.38km². 둘레 5km의 호수로 진성호(震成湖)라고도 하며, 쌍성호(雙城湖, 雙城湖 혼용)라고도 한다. 좁고 긴 사주(砂洲)에 의해 동해와 격리된 석호(潟湖)로 북쪽에 입구가 열려 있다. 이 호수는 선박들이 외해(外海)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려시대 때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두고 병선(兵船)을 정박시킨 일도 있다¹⁰⁾.

조선초기에는 강원도 수군만호가 주둔하던 6개소 중 속초포(束草浦)¹¹⁾가 있었던 곳으로 동해안의 주요 군사요충지로서의 역할의 하기도 했다.

현재는 속초의 2개항(속초항, 청초항)중 하나이며, 어업항구로 유명하고, 근처에 엑스포유

6) 쌍성호 [雙城湖]

하늘 높이 솟은 설악은 활화가 기괴하여라 / 雪嶽凌空活畫奇 이산은 험준하고 내봉 또한 우뚝하구려 / 篲山
嶒崿聳峯危 심 리나 펼쳐진 호수는 평야를 감싸 안았고 / 湖開十里包平野 대숲 어둑한 쌍성은 옛터가 그대로
있네 / 竹暗雙城有古基 속초도는 넓은 바다 가까이 쑥 내밀었고 / 束草島侵滄海近 비선대는 소나무 숲 가지에
가려져 있구나 / 祕仙臺隱亂松枝 춘풍에 채찍 드리고 말 가는 대로 가노라니 / 春風信馬垂鞭去 풀 파랗고 모래
흰 곳에 해가 한창 길구려 / 草綠沙明日正遲

7) 조선시대에는 영랑호는 간성군(지금의 고성군)에 속하였고, 청초호는 양양도호부에 속하였다.

8) 현재 속초시 영랑호에 있는 ‘범바위’라는 곳 오른쪽에 복원을 해 놓았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불당골로 불리우는 곳도 유력하다.

9) 태백산맥의 미시령(彌矢嶺:826 m) 부근에서 흘러나오는 청초천이 동류하면서 학사평(鶴沙坪)과 소야(所野)평 야를 이루고 조양동(朝陽洞)에서 청초호로 흘러든다. 잘록한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호수는 현재 속초항의 내항으로, 500 t급의 선박이 내왕할 수 있다. 북쪽에 영랑호(永郎湖)가 있고, 남서쪽에는 속초해수욕장이 있다. 청초호[青草湖] (두산백과)

10)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양도호부편

11)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 태조 6년 정족에 비로소 진(鎮)들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留防軍)이 없어서, 일이 있으면 시위대로 충당한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영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都觀察使)가 겸한다. 수군만호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¹⁾ 60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원지가 있어 관광명소로도 유명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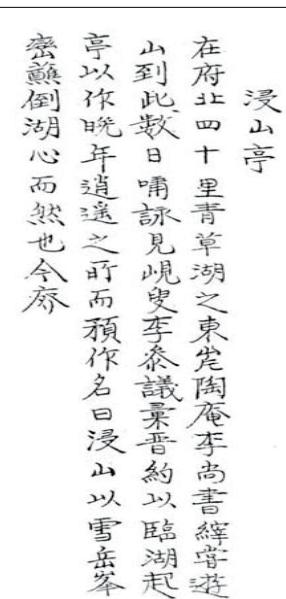
북쪽의 영랑호와 더불어 삼국시대부터 화랑들의 수련장소가 될 정도로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수많은 선비들의 유람기(遊覽記)와 시문(詩文)의 대상인 된 곳이다. 영랑호에는 암컷용이 청초호에는 수컷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이와 관련된 설화¹²⁾도 존재한다.

조선시대에 성현(成峴, 1439~1504), 구사맹(具思孟, 1531~1604), 유희경(劉希慶, 1545~1636), 정엽(鄭暉, 1563~1625), 조위한(趙緯韓, 1567~1649), 허균(許筠, 1569~1618), 이경여(李敬輿, 1585~1657), 오준(吳浚, 1587~1666), 이현경(李獻慶, 1719~1791), 이해조(李海朝, 1660~1711),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채팽윤(蔡彭胤, 1669~1731) 등¹³⁾ 수많은 선비들이 이곳 청초호를 찾아 많은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1. 침산정(浸山亭)

침산정(浸山亭)은 조선중기에 청초호 동안(東岸)에 건립된 정자로 『현산지(峴山誌)』¹⁴⁾에 의하면, 상서(尙書)를 역임한 도암(陶庵) 이재(李梓)¹⁵⁾가 이곳을 유람했을 때 청초호의 경치에 감동 받아 수일동안 기거하다가 양양도호부 출신으로 참의(參議)¹⁶⁾를 역임한 평창이씨 이휘진(李彙晉)¹⁷⁾을 만나서 이곳에 정자를 지어 줄 것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설악의 봉우리가 호수에 잠긴다하여 “침산정(浸山亭)”으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택리지(擇里志)》에 이르기를, 간성의 화담(花潭)은 달이 맑은 شب에 빠져 있는 것과 같고, 영랑호(永郎湖)는 구슬이 큰 못에 갈 무리된 것과 같다. 양양의 청초호(青草湖)는 거울 앞의 화장대와 같다고 할 정도로 청초호의 물이 맑았으며, 설악산의 모습이 호수 물위에 잘 투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사진 2 현산지>

12) 전설에 따르면 청초호와 영랑호에 두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청초호의 수컷 용과 영랑호의 암컷 용이 지하통로를 오가며 살고 있는데, 한 어민의 실수로 청초호 주변의 솔밭에 불이 나자 수컷 용이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이에 격노한 암컷 용이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 등의 별을 내렸다. 농민들은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용의 죽음을 위로하고 나룻배들의 무사고를 기원하며 한 쌍의 나룻배끼리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만들었다. 싸움에서 진 마을은 이긴 마을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쪽은 풍어와 대풍을 맞는다고 믿었다. 영랑호와 청초호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8 : 강원도, 2012. 10. 5., 다음생각)

13) 한국고전DB의 각 문집을 찾아 조사하였음.

14) 『峴山誌』(在府北四十里 青草湖之東岸 陶庵李尙書縡 試遊山到此 數日誦詠 見峴叟李參議彙晉 約以臨湖起亭 以作晚年 逍遙之所 而預作名曰浸山 以雪岳峯嶽 眇倒湖心 而然也 今廢)

15) 1680(숙종 6)~1746(영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庵)·한천(寒泉). 유겸(有謙)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숙()이고, 아버지는 진사 만창(晚昌)이며, 어머니는 민유중(閔維重)의 딸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16)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직. 판서-참판-참의순

17) 1680(숙종 6)~175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종진(仲進). 천규(天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찬원(贊元)이고, 아버지는 경화(景華)이며, 어머니는 최주명(崔柱溟)의 딸이다. 임오(壬午)년 진사, 무자(戊子)년 문과급제

또한 이상질(李尙質, 1597-1635)이 1618년 여름, 장인(丈人)인 양양부사(襄陽府使) 정영(鄭暉)을 따라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러 가면서 이곳에 들러 지은 “청초호를 지나면서(過青草湖)¹⁸⁾”라는 시(時)의 절구 중에 ‘서쪽의 산 그림자가 푸른 물결에 이른다(西來山影倒清波)’면서 청초호에 비치는 설악산의 비경을 극찬하였다. 이처럼 침산(浸山), 투영(投影)등으로 일컬어지는 청초호의 비경은 예로부터 선비들의 시의 대상(對象)이자 소재(素材)였음을 말해준다. 도암(陶菴) 이재(李梓)¹⁹⁾ 또한 택리지의 묘사와 와 이상질의 느낌처럼 같은 생각으로 정자를 지어줄 것을 약속한 것이다.

다시 현산지로 돌아가 두 사람이 만난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와 이휘진은 모두 1680년생으로 나이가 같다. 도암(陶菴) 이재(李梓)¹⁹⁾는 1702년(숙종 28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가주서·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예문관 겸열이 되어 『단종실록』 부록편찬에 참여한 인물이다. 1721년(경종 1) 대사헌·동지춘추관사를 겸하다가 실록청당상에 임명되었고, 이조참판에 제수되면서 실록청도청당상으로 승진하였다.

같은 해 예조참판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으나 소론의 집권으로 삭직되었다. 1722년 임인옥사²⁰⁾ 때 종부(仲父) 만성(晚成)이 옥사하자 은퇴하고, 인제에 들어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1725년(영조 1) 영조가 즉위한 뒤 부제학에 복직해 대제학·이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대제학에 재임되었다.

이휘진(李彙晉)²¹⁾은 1708년(숙종 34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19년(숙종 45)에 장령(掌令)²²⁾을 지냈으며, 1721년(경종 1)에도 장령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장령으로 활동하면서 1722년 임인년(壬寅年)의 옥사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18) 家州集卷之一, 七言絕句 “過青草湖” 青草湖邊白日斜。西來山影倒清波。海棠開遍鳴沙路。放馬徐行踏落花。

19)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로, 윤봉구(尹鳳九)·송명흠(宋命欽)·김양행(金亮行)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이간(李柬)의 학설을 계승해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의 입장에 섰다. 이재[李緯]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 1721년(경종 2년) 당시 실권을 장악한 노론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연잉군(숙빈 최씨의 아들, 후일 영조)을 왕세제 책봉하고 이어서 대리청정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 서인 세력을 주도하던 대신들이 유배형을 받게되었던 사건.

[네이버 지식백과]신축옥사 [辛丑獄事] (두산백과)

21) 이휘진 [李彙晉]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22) 조선건국 직후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4품의 시사(侍史) 2인이 있었는데, 이 시사가 뒤에 장령으로 바뀌었다. 즉, 1401년(태종 1) 관제개혁 때 시사를 장령으로 고쳐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사헌부는 고려시대에 사헌대·어사대·금오대·감찰사 등 여러 이름을 거쳐, 1298년 1월 충선왕 때 사헌부라고 고친 것이 조선시대로 계승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사헌부의 직책은 시정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풀어주며, 남위(監偽)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백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단핵감찰권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아울러 행사하는 동시에 불복공소(不服控訴)에 대한 고등법원으로서의 구실까지 겸하는 등 왕지(王旨)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人事)와 법률개폐의 동의 및 거부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 등 국정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장령을 포함한 대간은 사헌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직무가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젊은 엘리트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직배(直拜)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장령 [掌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했으며, 자신의 삼수설(三手說)을 피력하였다.

1725년(영조 1)에도 장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잠(李潛)의 추증 직책을 삭탈하고 역적들을 훈적(勳籍)에서 제거하여 임인년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것을 주청하였다. 음악에 일가견이 있음이 인정되어 이듬해에는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의 낭청(郎廳)²³⁾으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양(襄陽), 강릉(江陵)지역의 유림들은 이휘진의 발의에 의하여 양양과 강릉의 문인이 회동하고 우의돈독과 양행의 문화교류를 도모코자 명첩(名帖)을 작성하고 양호수를 옮는 모임인 “경락회(鏡洛會)” 조직하였다고 한다.²⁴⁾

현산지의 기록된 이재 선생과 이휘진 선생이 만난 시기를 추정해 보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1723년경으로 추정된다. 이재선생이 1722년 임인옥사 이후 가솔을 이끌고 인제에 내려온 이후 1723년 4월에 설악산을 유람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⁵⁾. 이재의 나이 43살 때이다.

이휘진(李彙晉)은 승정원일기의 1725년 1월 13일에 유복명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대사헌 김흥경(金興慶)은 현재 충청도 서산(瑞山)에 있고, 집의 김고(金槔)는 현재 함경도 경성(鏡城)에 있고, 장령 이휘진(李彙晉)은 현재 강원도 양양(襄陽)에 있고,…… 모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숙종, 경종, 영조대의 기록을 살펴 보건데, 이휘진 또한 1722년 임인옥사 이후 실록에 등장하지 않다가 영조 1725년 1월에 다시 장령으로 제수 받은 이후 다시 실록에 등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양양체류의 중복되는 연도가 1723년이 되는 것이다.

임인옥사를 계기로 1723년 당시 인제에 머물던 도암 이재가 설악산에 놀러와 이휘진과 함께 청초호를 유람하다가 침산정을 지을 것을 약속한 것 같다. 아니 실제로 지어져서 전국의 많은 선비들이 침산정에서 교우했을지도 모른다.

침산정의 폐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음이 아쉽다. 양양 현산지가 발간된 시기에 기록을 보면 ‘금폐(今廢)’라 되어있으니 현산지가 발간된 시기이전에 이미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현산지의 발간시기를 알 수 없어 아쉬울 뿐이다. 다만 한 논문에 의하면²⁶⁾ 현산지는 영조재위 기간 중에 편찬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침산정도 시기 이전에 길게 봄에서는 영조재위기간 이전에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23)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에 의하면, 1744년(영조 20) 11월 인정전현가악기조성청(仁政殿軒架樂器造成廳)이 설치되어 편종(編鍾) 두 틀(32매), 편경(編磬) 두 틀(32매), 어(敔) 하나, 축(祝) 하나, 건고(建鼓) 하나, 응고(應鼓) 하나, 그리고 쟈고(溯鼓) 하나 및 휘(麾) 하나와 조촉(照燭) 하나를 제작할 때 그는 이연덕과 함께 악기제조의 감독을 맡기도 하였다.

24) 양양군지

25)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H&url=/itkcdbs/text/nodeViewframe.jsp?bizName=MH&seoJild=kc_mh_a485&gunchalId=&munchalId=&finId=&NodeId=&setid=680260&Pos=0&TotalCount=1&searchUrl=ok

26) 강원도 양양의 지방지 현산지연구, 이상익, 강원지역문화연구회, 2003 현산지에 사용된 “금상(今上)”이라는 용어를 통해 영조 재위기간 중으로 추측

한편 이도현(李道鉉)²⁷⁾의 계촌선생문집²⁸⁾에는 ‘청초호(青草湖)’라는 시가 남아있는데

巖石奇怪、東有小峯半入湖心、其上有古亭基蓋

‘청초호에 암석이 기괴한데 동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의 반이 호수에 잠겨있으며, 그 위에 오래된 정자가 있던 곳’이라 하였다. 침산정이 청초호 동안(東岸)에 위치해 있다는 『현산지』의 기록과 계촌문집의 기록이 같은 것으로 보아 침산정의 존재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도현이 양양지역에 왔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기록에 없지만 1767년²⁹⁾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쓴 관동잡영(關東雜詠)으로 보아 관동잡영을 저술할 때 이 지역을 유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도현은 그의 아들 이응원(李應元)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폐사의 원통함을 밝혀 달라고 상소를 올렸는데, 1776년(정조 즉위년)에 이 일을 계기로 함께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유배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침산정은 1723년경에 건립되어 이도현이 금강산을 유람한 해인 1767년 이전에 폐허가 된 것이 된다. 길게 잡아봐야 43년의 역사를 가진 침산정이 된다.

무슨 이유로 침산정이 폐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었기에 이 지역 주민들조차 침산정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2. 청초정(青草亭)

『속초시지』에 의하면 청초호 주변에 청초정(青草亭)이 있었다는 기록만 전할뿐 사료부 족으로 건립시기나 존재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설악산의 그림자가 청초호에 비치면 나그네는 청초호 인근마을에 잠자리를 정한다’라는 옛 선비들의 시구가 전해온다면서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도 관동8경에 “양양의 낙산사”가

27) 1726년(영조 2)~1776년(영조 52). 조선 후기 성리학자. 자는 치문(稚文)이고, 호는 계촌(溪村)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온녕군(溫寧君) 이정(李星)의 후손이다. 놀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의 아들 이응원(李應元)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폐사의 원통함을 밝혀 달라고 상소를 올렸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 이 일을 계기로 함께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유배되었다. 그의 저서인 <청사도세자신설소(淸思悼世子伸雪疏)>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임금의 총명을 가지고 국권을 농락한 간사스런 권력가에 의해 저질러진 착오이니, 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처벌하고 그 원통함을 씻어줄 것을 청한 소이지만 저자는 이 상소로 멸문의 화를 입었다. 잡저의 <본기>는 <항우본기(項羽本紀)>의 예에 따라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경종조까지 약 4,000년의 역사를 중요한 사건과 특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정리하였다. 또한, <칠음청탁삼십육모차서(七音淸濁三十六母次序)>는 음계를 궁, 상, 각, 치, 우와 반치, 반상 등 일곱 개로 구분하고, 그것을 순음, 설음, 아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으로 분류한 뒤, 청탁에 따라 36개 모음으로 구분해야만 바른 음색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계촌문집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8) 青草湖[襄州北三十里、有大湖……東有小峯半入湖心、其上有古亭基蓋、亦永郎仙徒、遊賞之地、是湖爲嶺東諸湖之最大者、故取巴陵青草湖之名、以名之然巴陵之湖、回數百里、則此固不能侔矣。- 출처 : 계촌선생문집 (溪村先生文集)

29) 關東雜詠 丁亥仲秋 유교넷 <http://www.ugyo.net>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청초호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기록으로 보아 청초호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³⁰⁾

일제강점기 시절 제작된 속초면(束草面)의 현황을 소개한 『면세일반』에는 소야팔경(所野八景)을 소개하는 지면에서 ‘청초호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청초정(青草亭)을 두어 전국의 시인묵객들이 계절에 따라 왕래하고 정자에 올라와 술잔을 기울이며 물가에서 시를 읊었다’면서 청초정이 많은 유랑자들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서쪽 가까이 태백산계의 주봉우리인 설악산 꼭대기를 갈아 흡사 화병과 같고, 청초호수면에 웅장한 모습이 거꾸로 비춘다’하여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초정은 언제 건립되어서 도문면과 소천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유람한 전국의 수많은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다행히도 청초정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각종 사료와 문헌들이 남아있어 다행이다.

청초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근거로는 『양와집』³¹⁾에 실려 있는 <동유록(東遊錄)>으로 ‘청초호수 서남쪽에 청초정이 있고, 동북쪽에는 비선정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湖之西南有青草亭。東北有飛仙亭

비선정(飛仙亭)은 현재의 속초시 동명동의 ‘영금정(靈琴亭)’을 가리키는데, ‘비선대’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자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다. 영금정을 일컫는 비선대는 ‘비선대(秘仙臺)’이고, 설악산에 위치한 비선대는 ‘비선대(飛仙臺)’이다. 위의 기록이 현재의 영금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청초호를 기준으로 영금정의 비선대(秘仙臺)가 동북방향에 있으며, 설악산의 비선대(飛仙臺)는 남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즉, 동유록에 쓰인 비선정(飛仙亭)은 비선정(秘仙亭)의 오류인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성현³²⁾의 “쌍성호³³⁾”라는 시에도 비선정(秘仙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동유록>의 저자인 이세구(李世龜)는 인조시대 사람으로 1646년 태어나 1700년에 사망하였다. 동유록은 이세구가 45세 때인 1691년 가을에 관동지방을 유람하면서 쓴 유람기행문인데, 청초정은 1691년 당시 존재했었다고 봐야한다.

30) 1989. 5. 29일자 경향신문 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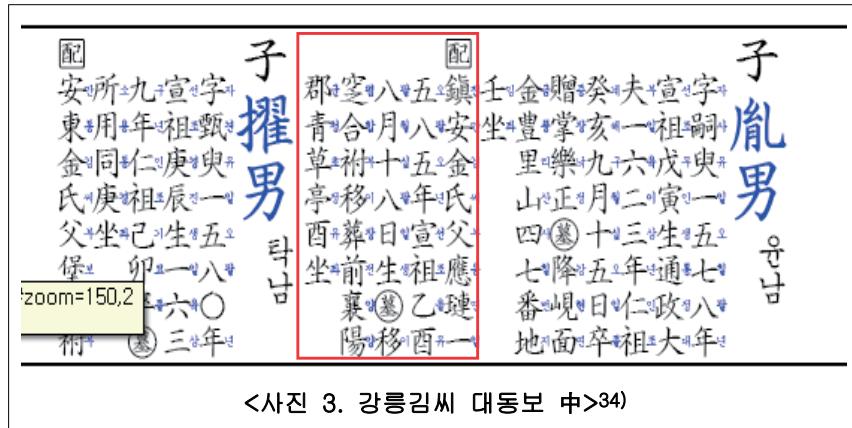
31)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이세구(李世龜)의 시문집, 册十二, 雜著[上] 又穿過蘆葦逕。湖之西南有青草亭。東北有飛仙亭

32) 성현(成僕, 1439년~1504년)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료 문인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지종추부사(知中樞府事) 영조(憲祖)의 셋째 아들이다. 자는 경숙(磬叔), 호는 용재(慵齋)·허백당(虛白堂)·부휴자(浮休子)·국오(菊塢), 시호는 문대(文戴)다. 경연관, 예문관수찬, 대사간, 청지종추부사, 강원도관찰사, 대사헌,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주요저서로는 『허백당집』·『악학궤범』·『용재총화』·『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등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3) 雪嶽凌空活畫奇 篦山崎岸竚峯危 湖開十里包平野 竹暗雙城有古基 束草島侵滄海近 祕仙臺隱亂松枝

다음은 2차 사료지만 『강릉김씨 대동보』에는 29세 통정대부 김윤남(金允男)의 처(妻)인 진안김씨 부인의 묘에 대해 양양군 청초정 앞에 있던 것을 이장하여 남편과 합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씨부인의 기일(忌日)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남편 김윤남이 1623년에 돌아가셨으므로 김씨부인의 묘는 1623년 이전에는 청초정 근처에 있었다고 봐야한다. 즉 청초정은 1623년 이전에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유록>보다 68년이 앞선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청초정의 존재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사료로 조선 후기의 학자·정치가인 오윤겸(吳允謙, 1559년~1636년³⁵⁾)의 시문집인 『추탄집(秋灘集)』³⁶⁾에도 청초정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청간정(淸磽亭)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청간정(淸磽亭)에서 오윤겸이 거쳐 온 여행길을 회상하면서 청초정과 영랑호를 거론했거나, 청초정을 인근의 청간정과 혼동하여 잘못 지어진 제목인 것 같다.

青草亭中盡意遊。永郎湖畔更遲留。

오윤겸은 1611년 10월부터 1612년 11월까지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분이다. 오윤겸이 영랑호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는 설화가 있는 만큼 청초호를 유람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청초정에 대한 시를 남겼다면 청초정의 존재는 1611년 이전으로 <동유록>의 기록보다 80년이 앞서게 된다. 즉 청초정은 1611년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청초정과 침산정의 위치

34) 강릉김씨 서울종친회 인터넷 족보 <http://www.kangkim.or.kr/>

35) 조선 중기의 문신, 이조, 형조, 예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북인의 등용문제로 서인이 노서, 소서로 분열될 때 노서의 영수가 되어 남인, 북인의 고른 등용을 주장, 민심의 수습을 꾀하였다

36) 1692년(숙종 18)에 손자 도일(道一)이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간행하였다 清磽亭 二首 (청간정 이수)
青草亭中盡意遊。永郎湖畔更遲留。日暮始尋清磽路。笙歌移入海棠洲。

淸歌長笛月黃昏。徙倚朱欄酒半醺。休道海涯遊宦苦。客行隨處盡君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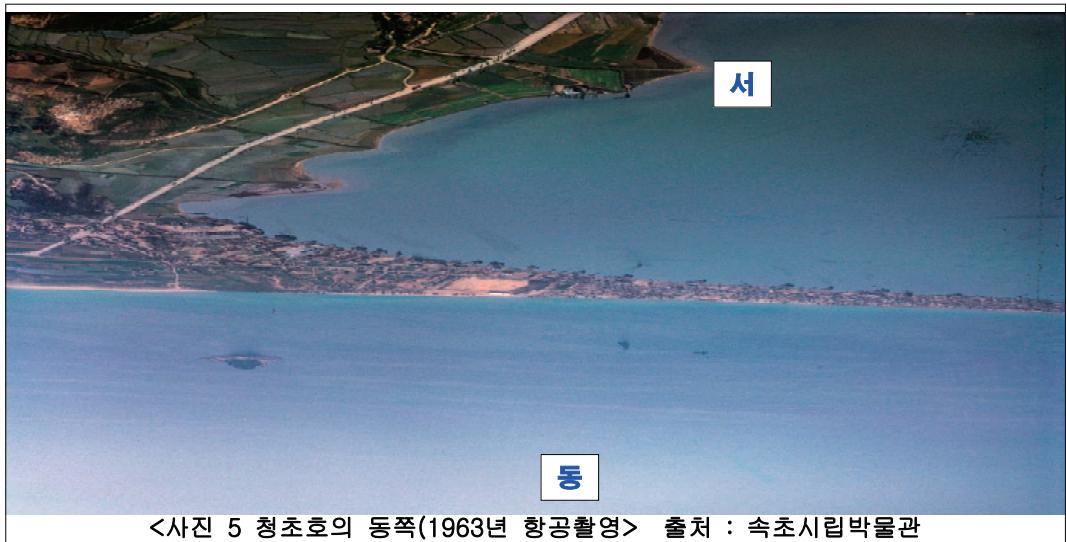
그렇다면 침산정과 청초정은 청초호의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자는 절벽 위나 언덕위에 설치되어 주위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침산정은 현산지와 이도현의 계촌선생문집에서도 나타나듯이 호수의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사진4의 침산정 표기 아래)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1999년 국제관광EXPO 개최를 위해 청초호 주변의 상당부분을 매립하여 면적이 축소되었지만, 예전에는 청초호가 E마트 주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부월리까지 갯벌이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의 정확한 방위개념으로는 청초호의 동쪽이 이마트 부근이지만, 그 옛날 나침반도 없는 시대에서 어찌 정확한 방위를 알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동쪽방향에 위치한 정자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로 언덕이나 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진 4 1960년대 초 청초호의 전경과 침산정과 청초정의 추정위치, 출처 : 속초시지>



<사진 5 청초호의 동쪽(1963년 항공촬영)>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청초정이 있는 서남쪽은 현재의 ‘석봉도자기미술관’에서 ‘엑스포타워’부근이 된다. 지금은 청초호가 개발되어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지만, 1960년대 촬영된 속초항공사진(동근원 부분)을 보면 청초호의 서남쪽에 20~30여 미터 정도의 일자형 언덕 또는 산이 존재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산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내려오다가 다시 동남방향으로 구부러진 언덕을 이루는데 이 언덕의 끝(정자사진의 밑 부분)쯤에 청초정이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릉 김씨 김윤남(金允男)의 처(妻)인 진안김씨 부인의 묘가 청초정의 **유좌(酉坐)**³⁷⁾ 즉 청초정의 서쪽방향에 위치해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곳에 청초정이 있었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면세일반에도 ‘호수면 북쪽 7,8리 우뚝 솟은 것을 “용암”이라한다.’하여 필자가 비정하는 곳에 높은 산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6 청초호의 서남쪽(1967년 항공촬영)> 출처 : 속초시지

그런데 침산정과 연관된 도암(陶菴) 이재(李梓)와 양양도호부 출신으로 참의(參議)를 역임한 평창이씨 이휘진(李彙晉)과 후대에 침산정의 유적(遺蹟)을 찾아온 계촌(溪村) 이도현(李道鉉)은 서로 어떠한 인연이 있는 관계일까?

이는 속초 내물치에서 학문에 전념했던 물제(勿濟) 유회일(兪晦一)선생 소고(小考)에서 차차 자세히 기록하겠지만 이재와 이휘진, 유회일 모두 송시열을 영수로 한 노론³⁸⁾계통의 인물들이다.

특히, 이재는 송시열의 호락론³⁹⁾의 제자인 권상하(호론), 김창협⁴⁰⁾(낙론)중 김창협의 직속

37) 積. 12지(支)의 열째. **방위로는 서쪽**, 계절로는 가을, 시각으로는 오후5시에서 7시사이에 해당됨

38) 소론(少論)과 함께 앞시기의 서인(西人)에서 갈라져 나왔다. 17세기 말엽 숙종 초기에 서인 내부에는 정치운영 방식, 훈신(勳臣)-척신(戚臣) 등 특권세력과의 제휴, 남인(南人)에 대한 처리 등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거기에 지도자인 송시열(宋時烈)과 그 제자 윤증(尹拯) 사이의 불화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파를 이루어 남구만(南九萬) 등을 중심으로 결집한 소론과 대립하였다. 노론 [老論] (두산백과)

39) 호락 시비 혹은 인물성 동이 논쟁이라고도 한다. 처음 이 논쟁은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서 발생하였다.

한원진(韓元震)은 인물성(人物性)의 이(異)를 주장하고, 이간(李柬)은 인물성(人物性)의 동(同)을 주장하였다. 권상하는 한원진의 이론(異論)을 지지했으므로 이간은 권상하·한원진을 상대로 논변하였다.

그러나 권상하는 더 이상의 논변은 무익하다고 생각, 한원진에게 중지하도록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한원진과 이간의 사이에는 두 차례의 왕복 논변을 끝으로 직접적인 논변은 없었지만 서로의 주장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이간의 인물성 동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낙하(洛下 : 지금의 서울 지방)에 살고 있었으므로 낙학(洛學)

제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재와 이휘진의 최초 만남은 아마도 임인년(壬寅年)의 옥사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노론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임인옥사(壬寅獄事)는 1722년(경종 3년) 신축옥사로 노론의 4대신이 유배형에 처해지자 모처럼 실권을 장악한 소론은 기세를 모아 영수 김일경(金一鏡) 등이 목호룡(睦虎龍) 등을 시켜 노론이 경종을 암살하거나 폐위시키기 위해 일으킨 역모사건으로 일어난 옥사이다.

누구나 그러했듯이 그들은 동문이나 스승들이 기거(起居), 은둔(隱遁)하였던, 유람(遊覽)하였던 곳을 찾아 스승, 동료, 제자에 대한 존경,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송시열[1607(선조 40)~1689(숙종 15)]이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인한 제2차 예송에서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었는데, 1675년(숙종 1) 정월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뒤에 장기(長鬢)·거제 등지로 이배되는 과정에서 속초 지역을 지나다가 영랑호를 보며 영랑호 큰바위 위에 '영랑호(永郎湖)' 석자를 남겼는데, 후에 제자인 검재(儉齋) 김유(金樣)⁴¹⁾가 이곳을 거쳐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지은 유풍악기(游楓嶽記)에 스승 송시열을 회상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해조[1660(현종 1)~1711(숙종 37)]⁴²⁾ 또한 이곳을 유람하면서 자신의 저서인 명암집(鳴巖集)⁴³⁾에서 같은 기록을 남겼다. 후에 이해조는 도암 이재의 신도비명을 지었다.

저 서	유풍악기 《游楓嶽記》 - 김유	명암집 《鳴巖集》 - 이해조
내 용	巖上刻永郎湖三字。云是尤菴先生筆而易郎以朗。巴位위에 영랑호 석자가 있는데 이는 우암선생의 글씨이다.	刻永郎湖三字。尤翁筆也。영랑호 석자가 새겨져 있는데, 우옹의 글씨이다.
비 고	우암(尤菴)은 송시열의 호이다	우옹(尤翁)은 송시열을 가리킨다.

이들이 양양지역을 유람한 이유는 자신들의 스승인 송시열, 김창협, 김창흡 등이 이 곳을

또는 낙론(洛論)이라 불리게 되었고, 한원진의 인물성 이론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호서(湖西 : 지금의 충청도 지방)에 살고 있었으므로 호(湖學) 또는 호론(湖論)이라 칭하게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0) 金昌協(1651~1708), 경기도 과천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 좌의정상헌(尙憲)의 증손자이고,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의 아우이다. 아버지는 영의정수향(壽恒)이며, 어머니는 안정 나씨(安定羅氏)로 해주목사성두(星斗)의 딸이다. 설악산에서 일시 은거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형이다. 『

41) 김유(金樣) [1653(효종 4) ~ 1719(숙종 45)] <《游楓嶽記 儉齋集卷之二十》 歷雙成湖至永郎湖。泛舟沿洄。
<중략>巖上刻永郎湖三字。云是尤菴先生筆而易郎以朗。

42)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 대제학 일상(一相)의 아들이다. 1681년(숙종 7)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1689년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벼슬을 단념하였다가 1694년 왕후가 복위된 뒤에 빙고별검(氷庫別檢)이 되었다.

이어서 공조·호조낭관을 거쳐 전주통판(全州通判)을 지내다가 1702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가독서(賜讀書)한 뒤 응교·부교리·집의·대제학 등을 역임하고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시문에 뛰어나 김창흡(金昌翕)으로부터 천재라는 격찬을 받았다. 저서로는 『명암집』이 있다. 이해조 [李海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3) 《鳴巖集卷之四》 湖邊石上。刻永郎湖三字。尤翁筆也。

유람하였기에 발자취를 따라 온 것도 있지만, 송시열이 장기로 이배(移拜)될 때, 이곳을 지나다가 내물치(지금의 설악산 입구)에서 비가 와서 정립(鄭立)이라는 양인의 초가집에 피신했는데, 그 집 기둥에 쓰여진 글귀에 얹힌 유명한 일화⁴⁴⁾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각종 문헌과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침산정(浸山亭)은 1723년경에 건립되어 1767년 이전에 사라졌으며, 청초정(青草亭)은 대략 1611년 이전에 건립되어 1691년 이후에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정자문화의 꽃을 피웠던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이 유행하던 시기인 1580년대 후반에 전국적인 정자건립의 유행과 더불어 건립된 청초정에서 각종 시문과 음악이 울려 퍼졌을지도 모른다.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침산정의 건립(1723~) 이전	침산정의 소멸(~1767) 이후
1723년경-이재와 이휘진의 만남	1767년 이전-이도현의 『계춘문집』의 『관동잡영』

청초정의 건립(1611년 이전)	청초정의 존재(1691)	청초정의 소멸(1691~) 이후
1611년 이전-오윤경의 『추탄집』	1611년 이전 : 오윤경의 추탄집 1623년 이전 : 김윤남의 처의 묘 1691년 이전 : 이세구의 『양와집』	1691년 이후 : 이세구의 『양와집』

그 옛날 청초호에서는 양양도호부 부사가 새로이 부임하게 되면 소천면 주민들이 청초호에 횟불을 띠어 부사의 부임을 축하해 주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논외호 불꽃놀이”라고 한다. 한자어로 낙화유(落火遊)라고도 하는데, 1907년 한서(翰西) 남궁억(南宮憶) 선생도 양양군수로 발령받은 당시 주민들이 낙화유를 선사하였다.⁴⁵⁾ 1908년경 최종락 양양군수 부임 때에도 예전처럼 소천면 주민들이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배를 띠워 불을 밝히다가 그만 여러 명이 호수에 빠져 죽어 그만두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이 앓아서 낙화유(落火遊)를 즐기던 곳이 침산정과 청초정이-그 당시에는 정자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있었던 곳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사망사고로 그 끝은 좋게 끝나지 않았지만, 청초호는 유희를 사랑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이었던 곳이었다.

44) 내물치리(內勿淄里)는 조선조 때 우암 송시열이 이곳에 왔다가 폭우로 머물게 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물치'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곳에는 물치주시(勿緇柱詩)라는 내용이 전하는데

삼전시호인개신(三傳市虎人皆信: 시내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을 세번하면 모두 믿는다),

일월군봉부역의(一鐵裙蜂父亦疑: 계모가 계획적으로 속옷에 벌을 넣고 소리지르니 벌을 쫓는 아들을 아버지도 의심한다).

세상공명간목안(世上功名看木雁: 나무 기러기를 만드는 데는 곧은 나무보다 구부러진 나무가 소용된다),

좌중당소신상구(座中談笑愼桑龜: 좌중의 당소는 신중해야 하는데 거북이가 자리를 삶아 죽이는데 봉나무로 불을 때야 된다고 퍼뜨려서 죽었다)라 한다. [송자대전 제106권 이숙고(李叔固)에게 답함]

45) 속초면세일반(束草面勢一般)

석양이 질 무렵 청초호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설악산(울산바위)의 모습이 청초호반에 잠기는 것을 볼 수 있다.

※ 참고사진(영랑호와 청초호에 잠긴 설악산, 출처 : 속초시 관광 홈페이지)



참고문헌

- 두산백과
- 『강원도 양양의 지방지 현산지 연구』, 이상익, 강원지역문화연구회, 2003
- 《대동지지(大東地志)》
- 한국고전종합DB
- 《현산지(峴山誌)》
- 『관동잡영(關東雜詠)』
- 《계촌선생문집 (溪村先生文集)》
- 『동유록(東遊錄)』
- 『游楓嶽記 儉齋集卷之二十』
- 《鳴巖集》
- 강릉김씨 서울종친회 인터넷 족보 <http://www.kangkim.or.kr/>
- 네이버 지식백과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 계촌문집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학 중앙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 『영랑호와 청초호』,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8 : 강원도, 2012. 10. 5., 다음생각)
- 1989. 5. 29일자 경향신문 13면
- 속초문화원 홈페이지
- 양양군지(襄陽郡誌)
- 면세일반(面勢一般)

후릿그물 이야기

지금은 어종고갈로 인해 사라졌지만, 여름 피서철 조양동에 위치한 속초해수욕장에서는 수년 동안 피서객들의 즐길거리를 위한 이벤트가 개최된 적이 있었다. 배 한척이 백사장에서 그물의 한쪽을 끌고 바다로 나아가 고기가 모여든 자리를 돌아 다시 백사장으로 그물을 가져오면 그물 양쪽에 체험객들이 붙어 그물을 끌어당겨 고기를 잡아보는 “후릿그물 체험”이었다. 끌어당긴 그물 안에는 각종 고기, 조개 등이 넘쳐나 체험객들이 한 마리 이상씩 나눠 가져가 구워 먹기도 하고, 회를 떠서 먹기도 하였다. 알미운 것은 그물당기는 것이 힘들다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고기가 많이 잡히니 양체처럼 줄을 서서 고기를 타가는 사람들이 그 옛 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본고(本考)에서는 후릿그물의 어원과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대중잡지 『별건곤(別乾坤)』 제10호(1927. 12. 20. 발간)에 소개된 우리 지방의 ‘후릿그물 이야기(메리치 잡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후릿그물’이란 명칭 중 ‘후릿’의 어원으로 추정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휘두르다’라는 의미로 팔 휘젓는 모양이 후릿그물의 작업방식과 유사하다.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큰 그물로서,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지인망(地引網)’의 일종으로 그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법도 간단하여 이미 원시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후릿그물(Seine Net)은 자루의 양쪽에 길다란 날개가 있고, 그 끝에 끌줄이 달린 그물을 기점(육지나 배) 가까이에 투망해 놓고, 끌줄을 오므리면서 끌어당겨, 그물을 기점으로 끌어들여서 잡는 데 쓰이는 어구·어법으로 ‘인기망(引寄網)’이라고도 하며, 이 어법은 그물이 투망된 위치부터 기점까지의 사이에 있는 대상물밖에 잡을 수가 없는데, 후릿그물은 표층과 중층어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후리(浮引網)와 저층어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방(底引網)으로 나눌 수 있다.

후리는 해안 가까이 얕은 곳에 있는 대상물을 잡는 어법이며, 간후리(地引網)에서 시작하여 배후리(船引網)로 발달했다. 방(손방)은 후리보다는 조금 깊은 곳에 있는 대상물을 잡는 어법이며, 1척의 배로써 어구를 마름모꼴로 투망한 후 배를 고정시켜 놓고 양쪽 끌줄 끝부터 가지런히 사람의 손으로 끌어당겨 고기를 자루그물에 흘려모아서 잡는 방법이다.‘ 이라고 한다.

후릿그물과는 별도로 ‘배후리(Boat Seine)’라는 것이 있는데, 배후리어법은 후리 또는 간후리라고 한다. 그물을 해안에서 끌어올리는데 배후리는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물을 반씩 나누어 실은 두 척의 배가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자루그물을 먼저 투입한 후 서로 떨어지면서 날개 그물을 투입하면서 어군을 둘러싸고 배가 해안에 도착하면 배에서 밧줄을 내려 해안의 바위나 나무 등에 묶어 그물을 당기는 힘에 배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고, 갑판 중앙의 물레로 줄과 그물을 감아올린다고 한다.

속초시 노학동 속초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4척이 배가 사각형모양으로 마주보며 그물에 잡힌 멸치를 끌어올리는 모형이 배후리의 한 종류이다.

문헌상으로 후릿그물이 ‘휘리(揮罹)’라는 명칭으로 자주 등장하게 된 시기는 조선 후기부터였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의하면, 1752년(영조 28)에 제정된 『균역사목 均役事目』 해세(海稅, 어업관련 세금)조에는 경상도의 어업 중 어장(漁場)을 설명함에 있어서 강에는 ‘강어휘리장(江魚揮罹場)’이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강에서 후릿그물을 쳐서 담수어나 ‘소하’성(溯河性 : 바다에서 육지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성질) 어류를 잡는 어장을 말한 것이다. 후릿그물은 과거 하천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배후리 방식모형(속초시박물관)

『경세유표(經世遺表)』,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행정 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책』에는 경상도의 해세를 논하는 가운데 ‘강구(江口)에서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역시 어장이라고 부르는데 방언은 ‘휘리’라고 한 것이 보인다. 역시 하천에서 후릿그물을 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후릿그물은 해안에서 각종 어류를 어획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균역사목(均役事目)』, 1752년(英祖 28)에 均役廳의 「原事目」이 頒布된 후 이듬해에 原事目을 修正補完한 「追事目」이 반포된 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게 되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 권은 책』의 함경도 해세에 관한 것을 보면 ‘덕원청어휘리세(德原青魚揮罹稅)’라는 것 이 있는데, 이는 덕원지방에서 청어를 후릿그물로 잡고 있었음을 전하는 것’이고,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에 서영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 등이 왕명에 의해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해 편찬한 책』 해세조에는 강원도의 어업에 대하여 적으면서 ‘휘리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세금은 많은 것은 10냥, 적은 것은 4~5냥이 라고 하고 있다. 강원도 연안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은 자연적 조건이 후릿그물과 같은 지인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므로 과거 지인망을 많이 사용하였던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임원경제지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실학자 서유구(徐有榘)가 편찬한 조선 후기에 농업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에서는 당망(塘網)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속명이 ‘휘리망’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해중(海中)의 대망으로서 헉덩굴을 벗겨 가는 새끼를 꼬아 만드는데 길이가 수 장(數丈), 너비는 누백파(累百把)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너비라고 말한 것은 땅처럼 기다랗게 생긴 후릿그물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다.

후릿그물을 강이나 해변에서도 사용하는데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어류를 잡는다고 하였다. 특히, 부호(富豪)는 명주실로 만든 대형 후릿그물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발달된 후릿그물이 19세기 전반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908년에 발행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產誌)』 제1집에는 각종 어구의 설명에서 ‘지예망(地曳網: 地引網)’이라는 것을 들고 그 밑에 ‘휘리망’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전자는 일본식 명칭이다. 이 지예망에는 ‘온지예망(鰐地曳網)’과 ‘대지예망’ 두 종류가 있는데 어포부(魚捕部)에 낭망(囊網, 자리 그물)이 달려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드물게 그것이 달려 있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후릿그물 당기기 체험모습

출처 : <http://www.gbprim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70>

그러나 원래 ‘후릿그물’이라 하면 다른 지인망과 구별되는 것이 낭망이 없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에도 낭망(자리그물)이 없는 지인망을 후릿그물이라고 하였다.

‘온지예망’은 우리말로 ‘멸치휘릿그물(滅魚揮羅網)’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망지(網地)’는 면사제인데 종전에는 자가제 면사를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일본산 망지를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어망의 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이다. 이는 그 이름이 표시하듯이 멸치를 잡는 데 사용되었다. 어법은 4, 5명의 어부가 어망을 어선에 싣고 나가 해변에 몰려든 멸치떼를 포위한 뒤 육지에서 어망을 끌어올려 멸치를 잡는 것인데 어부 총수는 14~15명이었다.

한말에 이르러 멸치후릿그물 어업은 가장 중요한 어업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멸치의 대군을 포위하였을 때에는 서로 눌려 폐사하여 해저에 가라앉는데 심한 경우에는 그 두께가 수 촌에 달하고 해저가 온통 은백색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대지예망’은 강원도 연안 특유의 어망으로서 방어·도미·삼치·청어 등 비교적 큰 어류를 어획하는 데 사용되었다. 망지는 삼 껍질로 만든 실과 마사(麻絲)와 흉덩굴섬유를 혼용하여 만든 것, 그리고 순전히 일본산 면사로 만든 것이 있었다. 이것은 어망의 규모가 멸치후릿그물보다 컸으므로 조업에 있어서는 25명 정도의 어부가 상시 종사하였다.

후릿그물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수백 통이 사용되고 있었고,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사용하였으나 효율적인 다른 어구가 발달함에 따라 그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오늘날에는 연안 가까이로 오고가는 어류 자원이 격감하여 후릿그물어업은 산업으로 성립

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다만 경상북도 울진, 영덕 등 일부 지방에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1926년 11월 1일자로 창간된 대중잡지 『별건곤(別乾坤)』 제10호(1927. 12. 20. 발간)에는 「메리치잡이, 江原道 襄陽郡, 地方色(강원도 양양군 지방색)」라는 제목으로 후릿그물작업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당시 양양에 사는 박관옥(朴寬玉)이라는 분이 기고한 글인데 당시 후릿그물잡이 모습을 상상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리치잡이(멸치잡이), 江原道 襄陽郡, 地方色

필자 양양 박관옥
襄陽 朴寬玉

때는 맛침(때마침) 멜치때니 한마듸(한마디) 이약이(이야기) 하고저(하고자) 합니다. 江原道沿岸 襄陽(강원도 연안 양양)에서 멜치(멸치)가 만히(많이) 나는데 우리 지방(地方)에서 한 일을(일어난 일을) 이약이(이야기) 하고저 합니다.

요 멋칠전(몇일 전) 일이였습니다(일이였습니다). 아침밥 먹고 뜰에 나와 놀고 있는 중 멀니서(멀리서) 들려오는 급한 소리가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귀를 기우리고(기울이고) 자세히 들은즉 황급한 듯이

“후리꾼아 나오나라 나오나라,
후리꾼아 나오나라 나오나라” 하는 급한 소리였습니다.

나도 후리꾼의 한몸이니(일원이니) 나가자 나가자 장관(長官)의 명령(命令)에 후리꾼은 일제히 바다스가(바닷가)에 나가서 배에 후리를(후리그물을) 실을려고 하였습니다. 사령장관(司令長官)은 청기(青旗)를 바다로 향하야 치면서 빨니빨니(빨리빨리) 나오라는 신호(信號)를 합니다. 우리 부하(部下)들은 후리를 실으면서 애내성(欸乃聲, 어부가 배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을 합니다.

“후리꾼아 정신차려 앵에,
압(앞)바다에 고기논다(고기 들어왔다) 앵에” 하면서 후리(魚網)를 다 씻고 사령장관(司令長官)이 노으라는(놓으라는) 한마듸에 ”맥여라 노아라” 하며 후리를 노아 한끗흔(한끝은) 이쪽에 한끗흔(한끝은) 저쪽에 대엿습니다.

사령장관은 또다시 적기(赤旗)를 육지(陸地)로 향하야 칩니다. 후리를 빨니(빨리) 다리는(당기라는) 신호(信號)였습니다. 후리꾼들은 땅을 뚝뚝 떨구면서 힘을 다해야 다리고 나니(당기고나니) 후리는 육지로 분(分)에 80(약 80%가) 나왔습니다. 배에서는 고기를 먹엇다고(그물안으로 고기가 들어갔다고) 꼬리가 길다란 백기(白旗)를 담니다.

사령장관은 청색기(青赤旗)를 급히 휘둘누면서(휘두르면서) 고기를 육지(陸地)로 퍼올니라고(퍼올리라고) 명령(命令)합니다. 우리는 명령이 뚝 떨어지자(떨어지자) 고기 퍼내는 쪽때를 들고 퍼내면서 또 한마듸의 소리가 나옵니다.

“가래로세 애양에,

가래로 세 예양에 “하고 퍼냅니다.

그가 온대도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안洞里(안동네)의 남녀노소(男女老少)들은 싸리 바굼이(싸리 바구니)를 들고 고기 주으러 나옵니다. 남자(男子)보다도 여자(女子)가 속고 의만(속옷만) 넓고(입고) 고기 쪽노라고(줍느라고) 대활동(大活動, 난리법석)이지요. 우리는 후리꾼의 한 사람이나 모래를 끼언저서 쪽차보내려고 하나(쫓아보내려고하지만) 어듸 가줌니까?(어디 물려난들 하겠습니까?)

모래를 맛던지(맞던지) 물에 빠지던지 사생을(죽고사는 것을) 생각(生覺)치 안코(않고) 고기 쪽는(줍는) 것이 꼭 자미잇지요(재미있지요).

우리는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먹을 타령이 나오지요. 『막걸리』 생각이 나서 여기서 저기서 “어추어 어추어(어! 추워”라는 소리가 연방(연달아) 들리지요.

장관(長官)은 추으면 막걸리 한동의(한통자) 간다(갖다) 먹으라고 하지요. 우리는 조타고(좋다고) 멜치국(멸치국)에 막걸리 잔이나 어더먹는(얻어먹는) 것이 참으로 큰 자미(재미)울시다.

이것도 우리 어촌(漁村)의 특색(特色)이라 할 낸지요(할 수 있는지요).<161> 끝.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 각 지역에서도 후릿그물방식의 조업은 흔히 이루어졌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흥해, 장기, 연기, 울산 등에서 청어를 잡는데 후릿그물을 사용하였고, 동해안에서는 멸치를 잡는데 후릿그물을 사용하였다. 당시 양양지역에서는 속초리, 속진리, 동호리, 수여리, 후진 등에서 후릿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울산 멸치후리 그물당기기는 모래가 깔린 해역에서 그물을 당겨 멸치를 잡던 방식으로 흔히 '후리'라고 불린다. 이 어로방식은 길이 800m에 이르는 긴 그물을 U자형으로 둘러치고 80여명이 끌어당겨 멸치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온산 지역 공단화와 어획량 부족 등으로 인해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속초시 동명동 450-40번지에 사시던 故정영호(鄭永浩, 1938~2011)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부 정수동(鄭守同, 1873~1953)께서는 1930~40년대 속초리의 유명한 후릿그물 사령장관(司令長官)이셨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선선을 팔아 배 2척을 사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연해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불법어업행위로 인해 극동수비대에 잡혀 선원들은 내보내고 선주인 조부만 2년간 옥살이를 하다 천신만고 끝에 함흥으로 탈출하여 다시 1년 여만에 속초로 돌아오셨다고 한다.

속초로 오신 조부께서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다가 엄청나게 큰 목소리와 멀리 보는 시력덕분에 사령장관(司令長官)이 되었다고 한다. 사령장관은 보통 배 선주에 의해 선택되는데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물을 당기는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빨리 행동하므로 고기 잡는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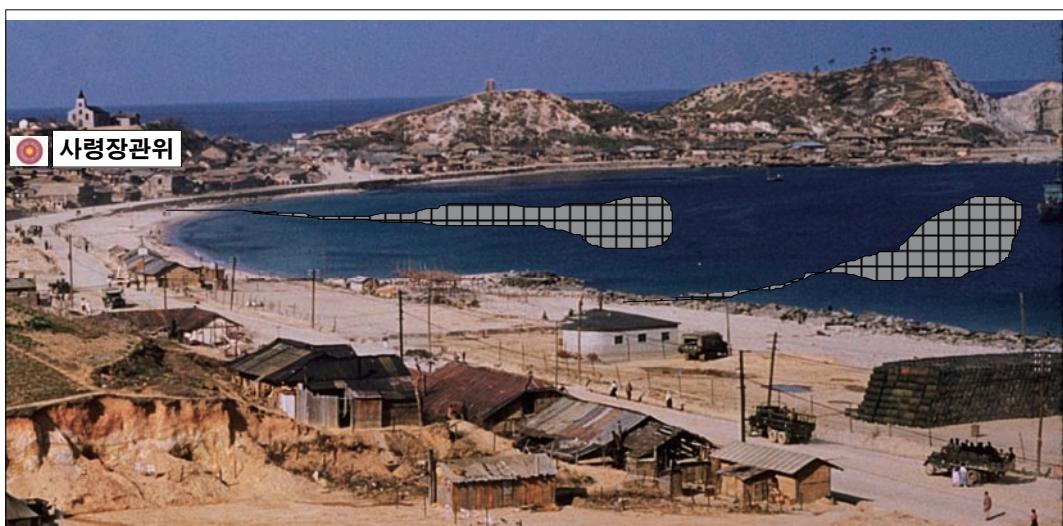
지금의 동명동 산361번지(속초감리교회 언덕, 구. 동명동 성황당 앞)와 동명동 450-191번지(구. 속초시장 관사 동쪽)의 바닷가 쪽 언덕에 올라 고기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미리 정해진 문장을 큰소리와 깃발로 후리꾼들에게 작업행동을 시달하였다고 한다.

전(前) 현대극단 단원이셨던 김정우씨는 그의 저서 『내 고향 속초, 1984년 출판』에서 ‘현재 동명동 속초감리교회 자리는 높은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든 곳에 건물에 세웠지만 옛날에는 동명동 천주교회 자리와 속초감리교회 자리가 모두 크나큰 송림 숲이 우거진 높은 지대였다.

경방단 초소(화재나 공습을 감시하는 초소)가 세워지기 전에는 해변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후릿배) 고기떼 보는 장소(사령장관의 근무위치)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감리교회 자리는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였다.’고 하여, 이곳이 후릿그물 사령장관이 위치했던 곳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회상하고 있다.



<구. 속초리의 후릿그물 어업활동장소>



<1953년 사진을 배경으로 한 후릿그물 장소 - 속초리 수복탑 앞바다(사진 : 폴팬쳐 기증)>

잡은 고기는 역할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배 선주가 수확량의 30~40%를 갖고, 후릿사령(사령장관)이 10~20% 갖게 되고 나머지 그물을 끈 사람들이 분배를 한다고 하였으며, 위의 『별건곤(別乾坤)』에 소개된 것처럼 후릿그물이 올라오면 야낙네들이 어디 있다가 나타났

는지 소리소문 없이 달려들어 잡은 고기를 행주치마에 넣어 출행령을 쳤으며, 구경나온 꼬마들도 한 마리씩 얻어가는 것이 재미였다고 한다.

속초지역에서는 동명동, 청호동, 외옹치리 주변지역에서 후릿그물이 성행하였다고 하니, 그리고 보면 속초지역에서도 후릿그물의 꽂인 사령장관이 여러 명 있어 그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였음을 엿 볼 수 있다.

양양군 동호리, 포항 월포리 해수욕장, 도구 해수욕장, 울진 등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여름 피서기간에 후릿그물체험을 즐길거리로 개최하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어종의 고갈로 인해 이젠 속초지역에서 후릿그물체험이 어렵게 된 것이 아쉽기만 하다.

참고문헌

-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 『한국수산지(韓國水產誌)』 (농상공부, 1908)
- 『한국수산업사』 (박구병, 태화출판사, 1966)

속초는 80년 전부터 역사(驛舍)의 도시였다.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과 속초역(束草驛)

2016년 7월 11일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서 속초의 30년 한이 풀렸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에서 화천-양구-인제를 지나 종착역인 속초까지 92.34km 구간에 걸쳐 고속화철도를 신설(사업기간: 2016~2025년)하게 되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는 1시간 15분, 인천공항에서는 1시간 51분이 걸린다. 바야흐로 속초가 실질적인 ‘수도권 1일 생활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속초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속초는 원래 기차가 다니는 역사(驛舍)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세대가 바뀌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

80여 년 전인 1937년! 속초에는 이미 기차가 다니고 있었다.

양양에서 원산까지 192.6km를 달리는 동해북부선은 일제가 1928년 한반도의 동쪽의 남과 북을 잇는 동해북부선 공사에 착수하여, 1929년 안변-흘곡 구간이 먼저 개통·운영되었고, 1937년 12월 1일에 간성-양양구간을 개통하여 양양에서 원산까지 철로를 이용해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동해북부선은 일본강점기 시절 양양의 철광석을 군사기지였던 원산으로 수송하려는 제국주의적 수탈의 목적에서 건설한 철도이다.

당시 원산으로 가는 기차는 양양역(襄陽驛)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낙산↔물치↔대포↔속초↔천진↔문암↔공현진↔간성↔현내↔초구(통일전망대 바로 아래)↔고성·삼일포(이후 북한 지역)↔외금강↔장전↔통천↔원산역(종착역)까지 연결되었고 29개의 역사(정차역 18개소, 간이역 9개소, 무인역사 2개소)가 있었으며, 양양에서 하루 4번(05:00, 10:00, 16:00,



동해북부선의 속초노선(지금의 부영아파트앞-조양로-수복로-법대로를 지나 고성으로 이어짐)

좌측하단 사진의 동해북부선 철로공사모습(양양지역)

21:00)씩 원산으로 출발했는데, 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한국전쟁 전 동안에는 일제 심상소학교, 인공지하 인민 소·중학교나 속초감리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는 이 노선을 이용하여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오인환선생도 이 노선을 이용하여 친척들과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했다는 내용이 『매곡일기(梅谷日記)』에 적혀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노선이 금강산과 같이 먼 거리를 여행 할 수 있는 기쁨이자 삶의 애환이 깃든 노선이기도 하다.

1949년, 동명동에 거주하시는 이정자(李貞子, 1945년생, 당시4세)님은 양양출신 부모님께서 1941년 원산으로 이주하여 포목상을 운영하실 적에 시주를 받던 금강산 유점사[楡岾寺, 강원도 고성군 서면 백천교리에 위치, 서기 4년(유리왕 23)에 창건, 일제강점기에는 31본산 중의 하나.] 스님께서 “여기에 있으면 요절할 운명이니 ‘아명(兒名)’을 ‘복덕(福德)’으로 바꾸고, 남쪽으로 가서 살게 하라”고 하여 당시 양양 둔전리에 사시던 작은 이모가 동해북부선 열차를 이용해 외갓집인 조산리(연안김씨 집성촌)에 데려다 놓은 것이 다음해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평생 부모님과 언니, 남동생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비운(悲運)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국전쟁기간동안에는 미군 군수물자 수송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일부구간이 폭격으로 인해 유실되었고, 1953년 이후 양양-고성 현내 구간이 다시 운영되다가 1963년 현내-간성구간이 폐지, 1965년 간성-속초구간이 폐지되고, 1967년 1월 1일이 철도청고시에 의해 속초-양양구간 및 전 구간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1953년 38선을 중심으로 북한과 남한의 군부대에서 조금씩 철로를 뜯어가면서 실질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해당연도에 서류상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영동선의 강릉에서 최북단 역까지 개통하려 했으나 국토 개발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무산되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는 내용에 합의, 2007년 남한의 제진에서 북한의 온정리까지 27.5km만 연결된 상태이다.

한편 당시 속초에는 2개의 역이 운영 중이었는데, 하나는 속초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포역인데 간이역(簡易驛)으로 그 위치는 지금의 대포농공단지 입구 인근지역으로 추정된다.

□ 속초역 역사(驛舍)

속초역 역사(驛舍)는 속초시 동명동 450-195번지에 1941년에 프랑스식 고깔형 건축 구조로 세워졌던 동해북부선 철도의 한 역사(驛舍)이다.

해방 이후 속초역사는 38선 이북지역에 속해 북한의 통제 하에 있었고,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규모 폭격으로 철로가 파괴되어 역사(驛舍)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며, 국군이 북진할 때는 화장장(火葬場)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속초역 역사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속초 지역에는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속초역사는 미군항만사령부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당시 가난했던 속초 지역의 청년과 아이들은 댄스홀에서 ‘슈 사인보이(Shoes-shine Boy, 구두닦이)’와 미군의 개별 심부름꾼 등을 하며 초콜릿, 건빵, 먹다 남은 스테이크(부대찌개의 원조)를 얻거나 2~3일에 1달러를 받았으며, 음악에 재능이 있던 아이들은 이 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활하였고, 미군이 철수하자 의정부, 동두천 등지의 미군부대에서 노래와 춤을 추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56년 4월에 명신고등공민학교(비정규 중학과정의 학교)가 입주하여 불우학생의 배움터가 되었다가 1957년부터는 벽돌공장인 ‘고려산업사’가 입주하였다.

동해북부선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속초역사는 1978년 4월 10일에 철거되었었는데, 2005년 속초시에서 속초시립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박물관 터 안에 역사를 복원해 놓아 그 옛날의 풍미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역(驛)이 있으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인근지역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엔 주막(酒幕)이 있었다.

《양양읍지》 이참(里站,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조에는 속초지역에 속진리(束津里, 지금의 동명동)과 옹진(甕津, 지금의 대포동)에 이참이 있었는데, 이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변화가였음을 알 수 있다.

철도가 지나던 그 당시에도 지금의 번영로(교동 기업은행~중앙시장 4거리~동명동 신선익 법무사) 일대에는 속초 최고의 변화가라 할 정도로 많은 상점, 술집(일명 니나노 집)들과 인파들이 넘쳐났다고 한다.

과거 속초역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가 완성이 되면 속초에는 역세권이 생기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 될 것이다. 과거 선조들의 삶을 거울삼아 속초사람들이 사랑하는 속초역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속초(束草)의 탄생 및 ‘각동 명칭(各洞 名稱)’ 의 유래

청동기시대 영동지역과 북방지역의 교류를 확인할 있는 청동도끼가 발견된 조양동 선사유적지!
신라시대 화랑 영랑(永郎)의 영랑호 유람!

고려시대 강릉존무사(지금의 도지사) 안축(安軸)의 관동별곡!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束草里)!

조선시대 청초호에 속초포(束草浦)라는 해군기지 주둔!

일제강점기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束草里)!

1937년 7월 1일자 부령(府令) 제104호로 ‘도천면’을 ‘속초면(束草面)’으로 개칭하고 ‘속초리’를
‘속초 1구~4구’로 분리하여 ‘구제(區制)’를 실시!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을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

1945년 8월 24일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38선 이북지역으로 북한지역으로 편입
되면서 ‘속초면(束草面)’으로 격하! 소련군 주둔!

1953년 8월 18일 남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군정(軍政)실시! 군정사령부(軍政司令部)를 속초에
설치, 속초면이 ‘속초읍(束草邑)’으로 다시 승격!

1954년 11월 17일 민정(民政)이양!

1963년 1월 1일자로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

속초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청초호를 항구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속초리에 전국의 노동인부,
어부들이 모여들어 규모가 커진 동네이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1785년 도문면과 소천면(지금의 속초시 구역, 이하 속초)의 인구는
1,274명으로 이중 281명(전체 22%)이 속초리에 살고 있었다. 속초리 인구 281명 중 남자는
99명, 여자는 182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를 보아 추측컨대 속초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
분이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고 풍랑을 만나 죽은 사람
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항구마을인 대포(남자35명, 여자 69명)와도
비슷하다.

18세기 와 20세기초 속초의 리(里)별 인구														
구분		장항리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물지	대포	외옹지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	속진리	합계
1785년	호 구	20	20	-	35	18	34	78	18	20	-	86	58	387
	인구수	승49	66	-	126	52	104	238	86	97	-	281	175	1,274
1925년	호 구	50	129	92	27	86	155	93	84	95	119	189	-	1,119
	인구수	214	741	541	174	468	777	463	476	572	735	1,058	-	6,219

출처 : 여지도서, 면세일반

여하튼 속초리는 예전부터 속초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속초리와 속진리가 합쳐진 이후이지만 1925년 속초리의 인구는 1,05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23년 9월 1일 속초수협의 전신(前身)인 속초어업조합(束草漁業組合, 현 동명동주민센터 앞도로 위치)이 설립·운영되고, 1937년 일제가 본격적인 속초항개발을 시작하면서, 9월 12일에는 속초면사무소가 속초로 이전·신축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양양~간성간 동해선이

개통되어 속초역(束草驛)이 생기는 등 속초리는 속초지역에서 최고로 번성한 마을이 되기 시작했다.

또한, 1939년 5월에는 아직 유명세를 타지 않았던 설악산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속초~신흥사간 2등도로가 개설되어 지금의 ‘관광도시 속초’가 등장하는 사전초석이 마련되었다.

속초가 급약적으로 발전하고 돈벌이가 좋아지자, 강도(強盜)도 성행했었는데 1938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강도 한 명이 여관, 양주소(釀酒所) 등을 훔들고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사건을 소개하면서 ‘요사이 거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인구가 급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에 대한 규모도 커지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1956년 2월 18일에 속초읍 속초리 산5번지(지금의 영랑동)에 ‘속초제일시장(束草第一市場)’이, 471번외 6필지에는 ‘속초중앙시장(束草中央市場, 지금의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상설시장으로 인가를 받아 상설시장(이전에는 3, 8일이 장날이었음)으로서의 면목을 갖췄고, 같은 해 2월 20일에는 대포동의 ‘대포시장(大浦市場)’이 인가를 받았다.

이후에 속초리 6구(지금의 청호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청호시장’이, 속초리 6구(지금의 청학4거리에서 항구쪽)에는 ‘청학시장(일명 6구시장)’이 개설되어 상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속초제일시장은 5,144㎡(1,583평)부지위에 8개동(176개의 점포)가 운영되었고, 속초중앙시장은 10,627㎡(3,270평)에 30동(272개 점포)가 운영되어 규모상으로는 속초중앙시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1937년 7월 1일자 조선총독부 부령 제104호로 ‘도천면’을 ‘속초면(束草面)’으로 개칭하고 ‘속초리’를 ‘속초1구~4구’로 분리하여 구제(區制)를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후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의 증가로 ‘5구’와 ‘6구’가 신설되고, ‘부월리’에서 ‘온정리’가 분리되고 ‘논산리’에서 ‘청대리’가 분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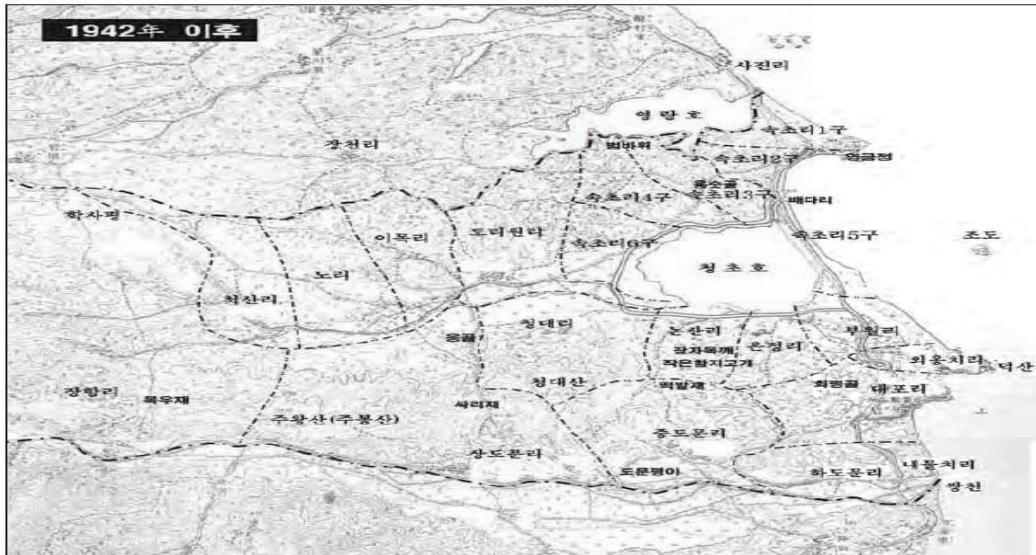
구 분	현재위치	인구 (1959년)	비 고
속초리1구	현재 영랑동 구역	3,302명	
속초리2구	현재 동명동	1,981명	
속초리3구	현재 중앙, 금호동	4,486명	
속초리4구	현재 교동, 청학동	5,866명	
속초리5구	현재 청호동	3,963명	1954년 이후
속초리6구	현재 청학동 일부, 노학동(시내쪽만)	6,624명	“
속초리 전체 인구		26,222명	
속초시 전체 인구		31,436명	

그렇다면 속초리는 어디일까?

크게 보면 영금정 지역(속진리)을 제외한 수복탑 인근지역에서부터 현재의 쌍다리(소야

천) 기준으로 속초 이북지역까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물론 일제가 1914년 전국의 리·동을 통폐합하면서 속진리가 속초리로 합쳐졌지만.....아래의 1918년 일제가 만든 지도를 이용해 재구성한 1942년 이후 속초의 행정구역 지도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1940년 지도의 재구성



속초읍번영회(束草邑繁榮會)의 노력으로 1963년 1월 1일 속초시가 법률 제1176호에 의거 시(市)로 승격되면서 속초시는 급변하게 된다. 그중 기존 ‘구(區)와 리(里)’로 되어있는 행정 구역을 ‘동(洞)’으로 바꿔야 했다.

1962년 당시 속초리 제2구장이었던 조부(故정태현, 1916~1998, 동명동 지명作)의 말씀에 의하면, 시(市)에서는 기존 구장(區長), 유지들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여 각 동(洞)에 걸 맞는 동네명칭을 지어오라 하였다고 한다.

제출된 동네지명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동제(洞制)는 1966. 1. 1 실시]

구 분	현재명칭	제정사유
속초리 1구	영랑동	신라 화랑 영랑이 수련하던 영랑호(永郎湖)가 있음
속초리 2구	동명동	동(東)해바다에서 태양이 떠서 아침이 밝아온다(明)
속초리 3구	중앙동 금호동	속초리의 가장 가운데(中央) 있는 동네 신선이 가야금(琴)을 영랑호(湖)에서 탔다는 전설
속초리 4구	교동	교 동 - 향교(鄉校)는 없지만 학교(學校)가 많이 있음
속초리 5구	청호동	청초호 바로 옆 마을. 소야 8경 중 청호마경(靑湖磨鏡, 청초호수는 얼음이 얼면 마치 유리거울 같이 말갛게 그럴게 보였다 해서 거울을 갈아놓은 것과 같다)
속초리 6구	청학동	청학동 - 청(淸)초호가 너무 맑아 학(鶴)들이 쉬어가던 곳
부월리, 온정리	조양동	소야8경(所野8景, 김창흡선생 제정 추정) 중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리, 청대리		아침 해가 떠서 마을을 비추면 그나마 고지대인 논산이 제일 아름답다)
외옹치리, 대포리, 내울치리	대포동	가장 큰 마을인 대포동(大浦, ‘한개’의 한자어) 으로 통합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도문동	기존 마을 명칭인 도문(道門) 리
장항리	설악동	설악(雪嶽) 산 바로 밑에 있는 마을
노리, 이목리, 도리원리, 척산리	노학동	가장 큰 마을인 노리의 ‘ 노(蘆) ’자와 척산 학사평의 ‘ 학(鶴) ’
장천리, 사야지진리	장사동	‘장천리’의 ‘ 장(章) ’자와 ‘사야지진리’의 ‘ 사(沙) ’를 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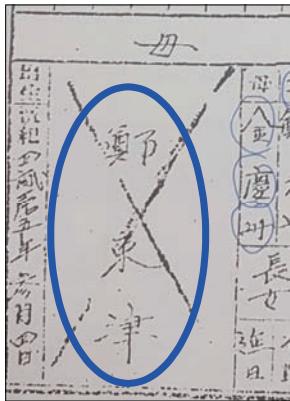
1962년 4월에 속초항이 지정항(指定港)으로 지정되고, 1969년에는 군용 비행장이었던 속초공항(SHO)에 민항기가 운항되고,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속초는 전국 수산업의 대표도시이자, 관광의 대표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어 오늘날의 속초가 된 것이다.

시민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전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 옛날 양양도호부의 1개 리(里)에 불과했던 속초리가 시(市)가 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개념이 ‘지명’ 또는 ‘지역의 공간성’이다.

‘속초리’ 지역만이 ‘시(市)’가 된 것이 아니라 양양도호부 ‘도천면(조선시대 도문면과 소천면을 합친) 전지역(공간)’이 ‘속초시’가 된 것이다. 즉 ‘속초’는 ‘도천면’의 ‘한 리(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도천면’을 대신하는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양양군 양양읍처럼…

속진리(束津里)를 아시나요?

속진리(束津里)를 아시나요?



성명 정속진(鄭東津, 1882~1956)!

이 분의 제적등본(호적)을 보면 단기 4215년(서기 세는 법 : 4,215년)에서 단군이 즉위한 해 2,333년을 뺀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속진리에 거주하셨다고 표시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의 동명동 361번지, 구,동명동 동사무소 근처이다.

사실 이분은 필자의 큰 증조할머니가 되신다. 위인전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의 이름이 우리 속초의 옛 지명이었던 ‘속진리(束津里)’의 ‘속진’과 같기 때문이다. 속진리에서 태어나셔서 고조할아버지께서 ‘속진이’라고 칭하셨다고 한다. 당시는 여성의 이름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고조할머니(김경주)의 이름처럼 성의 본관(本貫)을 이름으로 표기하던가, 00씨(氏), 00소사(召史)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조선 태종 때에 조선 8도에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는데, 1757년(영조 33년)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방리(坊里) 조에는 양양군 소천면(所川面)에 속진리(175명 거주), 속초리(281명), 논산리(97명), 부월포리(86명)를 두었다고 한다.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지지자료』 포구명(浦口名)에는 도천면의 옹진(甕津), 소천면의 ‘속진(束津)’이 표시되어 있다. 옹진은 도문면의 대표 항구이고, 속진은 소천면의 대표 항구인 것이다.

1914년 일제는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는데, 이때 도문면과 소천면을 합병하여 도천면으로 만들고 속진리 또한 속초리로 편입시켰다. 일제는 전국의 지명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여러 마을을 통합시켰는데, 속진리란 지명 또한 이때 희생당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14년 이전 도문면, 소천면의 행정구역 지도(복원)>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발간된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를 보면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울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리로 되어 있는데, 이때도 속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강원도 양양군읍지』의 지도에도 ‘옹진(지금의 대포와 내옹진)’과 ‘속진’이 대표적인 마

을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역(驛)이 아니면서 웅진과 속진에 이참(里站, 역마을을 의미, 즉,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 곳)이 있던 곳으로 봐서 어업을 통한 사람의 왕래가 찾았던 곳으로 비교적 큰 마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속진’이라는 지명은 문현상에 기록되어 있었을까? 기행문성격의 개인문집이지만 기록상으로 속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시기별로 보자면 영조 때의 문신인 이현경(李獻慶, 1719~1791, 한성판윤 역임)은 그의 호(號)를 딴 『간옹선생문집(良翁先生文集)』 1권에 ‘청초호를 지나며(過青草湖)’라는 시(詩)에 ‘사군환이 속진민(使君還羨東津民, 임금의 명령에 따라 온 군신이 오히려 속진의 백성을 부러워 한다)’이라는 대목에서 ‘속진민(속진에 사는 백성)’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또한, 조선후기 문신인 조병현[(趙秉鉉, 1791~1849)이 지은 시문을 엮은 《성재집(成齋集)》] 중 금강산 여행을 기록한 『금강관서(金剛觀敘)』 이란 별집(別集)에서도 ‘5리를 지나니 영랑포(지금의 영랑호를 말함)에 이르고, 속진속사포를 지나 (五里至永郎浦。過束津束沙浦)’라는 문장에서 속진과 속사포(속사포 지명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진행)가 동시에 나온다.

그렇다면, 속진리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

조선시대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찰하던 비변사(備邊司)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1745~1760년 사이 편찬』 양양(襄陽)편에는 속초감리교회에서 속초등대까지 이어져 있는 산을 '속진산(束津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속진산을 원산(元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필자는 「속초지역의 옛 지명과 변천과정」이라는 논문에서 ‘속진산과 원산이 같은 곳’임을 설명하였다.

속진리의 위치를 설명한 자료는 일제강점기때 쓰여진 『최신 조선지리』 가 유일한데, 이 책에 ‘속진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도천면(道川面)에 속한다. 남북에 작은 돌출이 있고, 만형(灣形)을 이룬다. 만(灣)의 깊은 곳의 서쪽에서 북방에 있는 돌각(突角), 즉 ‘비선장 (비선대를 일컬음)’이라는 좋은 곳이 있는데 약간 높은 언덕이 둘러싸고 있으며, 수심이 깊어 기선이 정박하는데 적합하다. 군내 유일한 기박(汽舶-큰 배)의 기항지이다. 간성군(杆城郡) 사진(沙津, 지금의 장사동)에서 남쪽으로 10정 떨어져 있고, 양양으로 4리(오류? 실제 35리)라서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양양 서면의 철광석을 수송하기 위해 대포항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속진이 가장 규모가 커던 항구라고 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대포항이 개발된 이유는 바다에서 속진항으로 들어오는 해로(海路)에 '건너풀'이라는 거대한 '수중암초' 때문이다. 지금은 방파제밑으로 물혀버렸는데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갔다고 한다. 수중암초 발파기술이 부족했던 일제강점기 '건너풀'이 있는 속진항보다는 수면이 깊고 넓은 대포항이 속진항을 대신해 기항지가 되었다고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 두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남북에 작은 돌출이 있고, 만형(灣形)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보아 속진이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일대라는 것은 확실하다. 좀 도넓게 말하자면 영금정(靈琴亭) 일대에서 수복탑(收復塔)으로 이어지 해안을 중심으로 항구가 만들어졌고, 활발한 어업활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된 곳이 '속진리'이다.

지금은 영금정 등대기슭로 옮겨갔지만, 옛날 성황당도 속진리(속초감리교회 동쪽 기슭)에 있었고, 등대도 속진리에 있다.

속진이라는 어항은 지금의 동명항이다. 속초항 북측방파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속초의 대표적 어항(漁港)이었다. 그러다가 '동명항'이 '산업항(産業港)'으로 그 용도가 바뀌며 '속초항(束草港)'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옛날 어선들이 정박하던 곳은 매립되어 지금의 동춘국제여객선터미널, 컨테이너 야적장 및 각종 홀어센터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속진'이라는 '항구'는 지금은 거의 그 위치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속진'이라고 '마을'은 남아있어 역사 깊은 항구도시로서의 근대사를 말해준다.



속초지역 최고(最古)의 마을 도문리(道門里)

천년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문리(道門里)!

도문리의 역사는 의상과 원효대사의 일화로 시작된다. 통일신라기 원효대사(617~686)와 의상대사(625~702)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던 중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舞象無我)의 불법을 아뢰는듯하여 지팡이를 멈추고 서 있다가 출연히 크게 도를 깨달아 이때부터 이곳을 도가 통하는 문이 열린 곳이라 해 ‘도문(道門)’이 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 기록상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것이 650년이니 비록 설화이지만, 도문이라는 지명은 속초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이 된다. 그만큼 설악산을 위시한 이 지역이 불교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도문면(道門面)에 관한 첫 기록은 1760년경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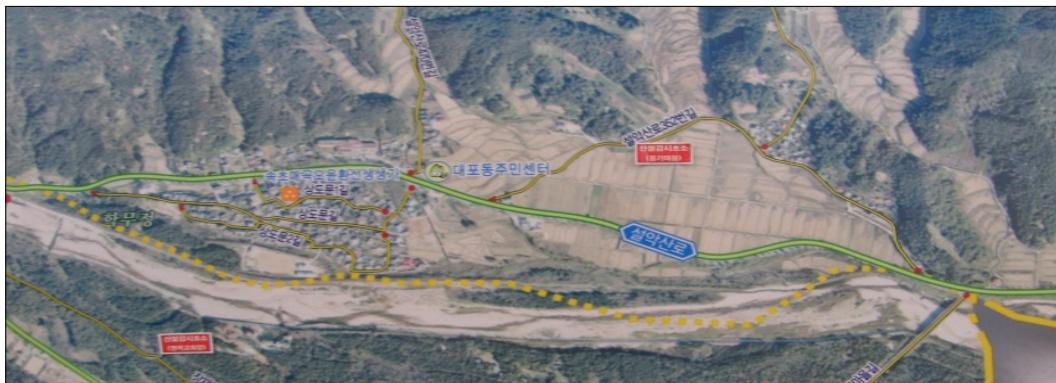
편호 20, 남자 33명 여자 33명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 35, 남자 44명 여자 82명 <이하생략>

우리가 알기로는 도문리는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도문면(道門面) 관할 하에 상도문리(上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를 두고 있어 상도문, 하도문이 행정지역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도문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 후 1966년 동(洞)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上道門里), 중도문리(中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가 합쳐져 도문동(道門洞)이 되었다가, 199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포동’과 ‘도문동’이 합쳐져 ‘대포동’이 되었다.



상도문 1리 마을 전경(위성사진)

상도문은 1리와 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상도문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행주형(行舟形)으로 생겼다고 하여, 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배에는 반드시 그물이 있어야 되고, 뜰(닻)과 놀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물로 표현되는 곳은 마을 뒤쪽에 ‘거망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골짜기는 그물을 드는 형국이므로 한자로 표기하여 ‘거망동(舉網洞)’이라 하며 이후, ‘그망골’이 되었다. 배가 정박

하기 위해서는 뒷이 필요한데 그것이 쌍천변에 있었다가 1954년 갑오년 대홍수에 쓸려내려간 것을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의 노력으로 2012년에 준공식을 거행한 돌탑(행주석범)이다. 뒷대는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배의 뒷대에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뒷대골’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소태골’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상도문리가 배의 형상을 갖춘 지역이기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우물을 파지 못했다고 한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배에 구멍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우물을 파는 행위는 마을의 존폐를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도문 1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예로부터 해주오씨, 강릉박씨, 강릉김씨 등의 유림과 농민들이 어우러져 살던 마을이다. 우리가 다 아는 어린 시절 한번쯤은 가본 적이 있는 ‘학무정(學舞亭, 일명 육모정)’을 창건한 해주오(海州吳)씨 매곡(梅谷) 오윤환(吳允煥) 선생과 효자로 유명한 강릉박씨 박지의(朴志宜)선생이 상도문 출신이다.

노동요(勞動謠)로 ‘도문 메나리농요’가 유명한데, 농민들이 3, 4명씩 짹을 지어 논김을 매면서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부르던 농요로 고유의 멎을 간직하고 있다. 매곡 오윤환 선생의 생가(生家)가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다.



前속초문화원장이신 박무웅님(상도문 1리 출신)의 말씀으로는 상도문 주민들은 다음의 6가지를 ‘마을의 자부심’으로 들고 있는데,

첫째, 상도문리에는 기와집이 많이 있었는데, 각 기와집의 기와(起臥)를 만들던 기와터(잿가매)가 있었음.

둘째, 유학(儒學)을 숭상(崇尙)하고, 예(禮)를 중시한 마을로서 학문의 필수인 종이를 만드는 지소(紙所)가 있었음.

셋째, 비록 근대사의 일이기는 하나, 서당(書堂)을 세울 정도로 학식(學識)이 풍부(豐富)한 사람들이 많았음.

넷째, 학무정에서 시(詩)와 함께 풍류(風流)를 즐겼음.

다섯째, 주민들 모두 왕의 승하를 슬퍼하여 대성통곡한 망곡터가 있었음.

여섯째, 마을의 안녕을 위한 서낭당, 돌탑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유서 깊은 전통 마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유학 마을’로서의 자부심 뿐만 아니라, 마을을 위한 결속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도 하다.

상도문 2리는 ‘옹기점(토기점)마을’이라고 불리우는데, 조선 후기 순조1년(1801년) ‘신유 박해’를 시작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박해를 피해 온 전국의 천주교신자들이 모여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옹기를 구워 팔던 곳 중의 하나이다. 충청도 청주에 살던 오광선씨가 병인박해를 피해 강릉 흥제동으로 이주하였고, 이어 맏아들 오춘영(바오로)씨가 속초 도문동으로 이주하여 ‘싸리재 옹기점’을 일구었다고 한다. 영북지역 ‘옹기(甕器)가마’의 역사는 대원군의 병인년(丙寅年) 천주교 박해가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범뱅이골’과 ‘싸리재’는 영동 지역에서 최초로 형성된 ‘천주교 신앙 공동체’의 명칭인데, 특히, ‘싸리재’는 이지역의 ‘고개명칭’이기도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대명사’이기도 하다.

1921년 5월 5일 도문동 싸리재 공소자리에 영동지구에서 최초의 성당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최문식 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임명되었다.



상도문 2리(옹기점마을)전경

그 이후 1926년 도문 성당건물을 헐어 양양군 서면 서문리로 이전 건립하였다. 이후 도문본당은 양양본당 도문공소가 되고 1935년에는 도문리에 새 강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오늘날 상도문 2리에는 이들의 후손인 오세길(70)씨가 생존해 있어 과거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중도문리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는데 경주 김씨와 함평이씨, 전주 이씨, 경주이씨, 밀양 박씨, 강릉 박씨 등의 사람들이 살았다. 행정상의 지역명칭으로는 일제강점기시대에 들어 나타나며, 1902년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여요사개화기(극락보전의 기와를 다시 교체할 때 쓴 현판)’ 시주자 명단에 “중도문동중문십냥(中道門洞中文拾兩)”의 기록으로 보아 1902년 이전부터 정식 행정지역명이 아닌 지역사람들끼리 불려 졌던 ‘동네명칭’임을 알수 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일제에 의해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이 되는 과정에서 ‘중도문리(中道門里)’가 행정지역으로 신설되었다. 중도문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로 당시 ‘도천면사무소(道川面事務所)’가 1916년까지 위치해 있었다.



‘쌍천학교(雙川學校)’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고, 1919년 3월 1일 우리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끈 함평이씨 이석범(李錫範, 1859~1932)선생이 이 마을에서 자랐으며,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을 지낸 경주김씨 김용식(金龍式, 1896~1963)씨가 종교 출신이다. 김종우 전통가옥이 있다.

하도문리는 주민들에 말에 의하면, 시대는 모르지만 고(高)씨와 양(梁)씨가 최초로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고(高)씨와 양(梁)씨가 살았다는 ‘고양터’라는 곳이 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동해바다 쪽에 위치한 탓에 반농반어업에 종사하였고 연일정씨, 전주이씨 등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김근수 전통가옥’이 하도문에 있다.

속초지역이 일제강점기, 인민공화국 시절, 미군정실시, 다시 민주주의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마을이기도 하다.

속초 외옹치

양양에서 속초로 오는 7번국도상에서 대포항이 위치해 있는 오른쪽을 보면 항아리모양처럼 생긴 언덕이 보인다.

지난 1970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60여년간 민간통제구역이었던 지역으로 속초시는 지난해 7월 국방부와 외옹치 전구간의 철책을 철거하기로 협의하고, 외옹치를 감아도는 “감성로드 바다향기로”를 조성했다.

『바다향기로』 조성사업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바다향기로 사업을 통해 60여 년간 감추어졌던 천혜의 비경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동해안 지역의 글로벌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을 대표하던 옛날 지명은 ‘덕산(德山)’과 ‘옹진(甕津)’이다. ‘덕산’이란 이름이 문헌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삼일포매향비(三日浦埋香碑)’이다. 중국 원나라 지대 2년(1309) 고려 충선왕 1년에 고성(高城) 삼일포매향비(三日浦埋香碑) 비문에 ‘용화회주이신 미륵이 하생하기를 기다리며 미륵보살이 하생할 때 우리들도 함께 태어나 용화회에 참석하여 삼보를 공양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원드리며 강릉 존무사(지금의 도지사), 양양부사, 고성 현령 등이 모여 양양 덕산망(德山望) 등에 매향(향나무를 심음)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기록상의 ‘덕산’에는 조선시대 덕산봉수(德山烽燧, 봉수 : 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연기의 개수로 중앙에 알리는 시설)가 있던 곳으로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이었기도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봉수로서의 덕산(德山)의 기록이 전해지며, 양양의 《현산지》 진보(鎮堡)조에는 덕산진(德山津)이 부(府)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덕산’이라는 명칭이 봉수(烽燧)가 위치한 산(山) 이름이 아닌 배가 드나드는 진(津)의 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속진(束津, 지금의 동명동 영금정 일대)처럼 어업이 번성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2. 1960년대 대포고개



사진-3. 1960년대 외옹치 마을

또한, ‘덕산(德山)’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상 명칭은 ‘옹진(甕津)’이다. 당시 내옹진과 대포리를 합쳐서 불렀던 지역으로 추측되는데,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속초의 중심지는 옹진(甕津)이라 할 수 있다.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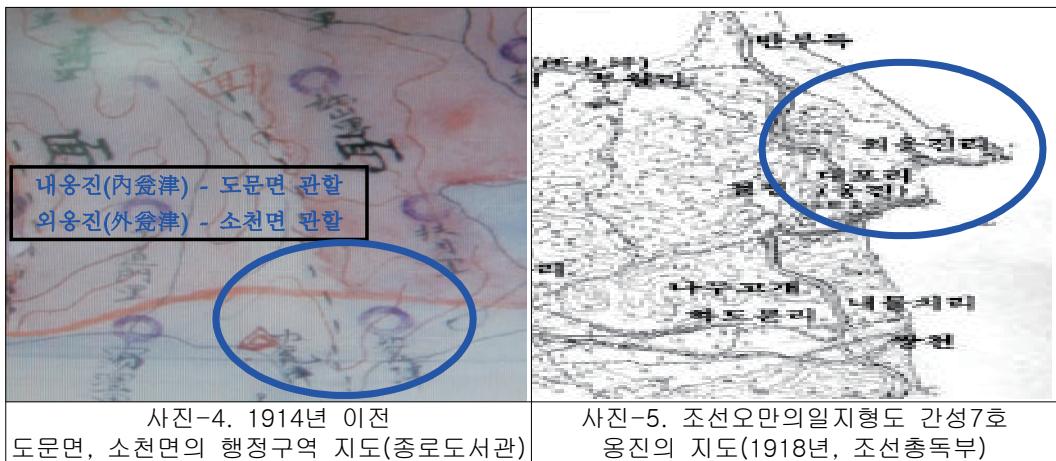
- 1912. 3. 7일자 일기, 옹진출장소(甕津出張所)로 내려가서 산일을 재판하였다.
- 1915. 3. 6일자 일기, 옹진대로(甕津大路)의 경계를 나누기위하여…
- 1915. 11. 12일자 일기, 옹진주재소(甕津駐在所)에 갔다.

등의 내용으로 보아 옹진이 일제강점기 당시 속초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 50,000분의 1 지도」를 보면 속초지역을 나타내는 명칭이 ‘옹진(甕津)’으로 되어있으며, 《강원도 양양읍지》의 지도에도 옹진과 속진이 대표적인 마을로 표시되어있다. 또한 조선시대 역(驛)이 아니면서 옹진과 속진에 이참(里站, 역마을을 의미, 즉,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 곳)이 있던 곳으로 봐서 어업을 통한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곳으로 비교적 큰 마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대포고개(구.신작로)가 개설되기 전에 일부 도문면 사람들은 대포리와 외옹치 사이의 길(일명 나무고개, 사진5.참조)을 이용하여 소천면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당시 외옹치는 소천면 관할의 외옹진(후에 외옹치리가 됨)과 도문면 관할의 내옹진(행정지명은 아님)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원주문화원에서 발간한 『강원도 상황경개(江原道 狀況傾蓋), 1913. 12월 춘천현병대장 나스 타사부로 편찬, 2015』에서는 ‘양양항(襄陽港)’에 대해서 ‘양양읍에서 북쪽으로 3리 18정에 있다. 도문면 ‘옹진’이 양양항이다. 옹진은 소천면에 속하는 ’외옹진‘과 남북으로 표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내옹진‘이라고 부르는 본진은 북쪽에서 구부러져 들어온다.’고 하여 외옹치가 ‘외옹진’과 ‘내옹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필자의 의견을 뒷받침해준다.



외옹치에는 참 사연많은 바위들이 많다. “덕대바우(德大岩)”는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로 바위에 빌면 덕이 생긴다(복을 받는 바위)고 하였다. 한자로 ‘덕대암(德大岩)’이라고도 한다.

굴바위는 ‘마赜말(새깍말과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남쪽을 향한 마을. 마赜은 마쪽이 변한 것인데, 마쪽은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을 뜻한다. 현재는 풍랑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북쪽 새마을로 집단 이주했다’ 동쪽 해변에 있는 바위인데, 굴이 있어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전을 하기도 했으므로 ‘투전굴’이라고도 한다.

기신(귀신)바위는 한국지명총람에만 나와 있는데, 밧독재 남쪽 길 가에 있는 바위. 예전에 귀신이 나왔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외옹치에는 오래된 전통 민속행사가 존재한다. 해안도로 쪽 외옹치 마을입구에는 한쌍의 장승과 솟대(일명 짐대, 오릿대)가 세워져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마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1984년 수해로 인해 기존집들은 지금의 조양동 68해일 집터로 옮겼고,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위치가 변했다고 한다.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을 “솟대”와 함께 마을입구에 세우는 “장승 세우기”행사와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이 행해지는 성황제인 “용신제(龍神祭)”로 구성되어 부락제(部落祭)의 고유한 모습을 전승시킨 『외옹치 고풀이』라는 전통 민속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솟대, 장승세우기 같은 전통문화를 토대로 각종 체험거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60여년 만에 다시 빛을 발하는 감성로드 바다향기로에 펼쳐진 감성문화 콘텐트 개발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조양동(朝陽洞) 온정리(溫井里)

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조선시대부터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는데, 지금의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에 4개리(논산, 부월, 속초, 속진리)가 있었다.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를 두었는데 부월, 논산리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비로소 행정권이 군정(軍政)에서 민정(民政)으로 이양되었다. 이때 다시 부월리에서 온정리(溫井里)가, 논산리에서 청대리가 분리되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靑垈里)를 합쳐서 조양동(朝陽洞)이라고 명명하였다. 조양(朝陽)이란 땅이름은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는 뜻이다.

온정리는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또는 한자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부월리에 속해 있을 때 부월리는 바깥이고 온정리(溫井里)는 안쪽이므로 안말(안마을)이라고도 했다.



사진1. 1960년대 온정리 – 출처 : 속초시사

온정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문헌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온정리 인근에서 구석기시대까지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의 발견신고 사례를 보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성이 높으며, 확실한 것은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보는 데 그 근거로는 “조양동 청동기 선사유적지”로 이 일대는 원래 온정리 지역이였다.

“조양동 청동기 선사유적지”는 속초 지역에서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준 최초의 유적지로 1992년 5월 10일 강릉대 박물관장인 백홍기 교수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 유적지는 조양동(옛 온정리)택지 개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견된 부채꼴 모양의 ‘청동도끼’는 ‘선형동부(扇形銅斧)’라 불리는데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없어 이 지역 선사 문화 연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3호 집자리에서 출토된 ‘굽손잡이 그릇’은 우리나라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인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에서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말과 청동기시대 초기에 있어서 동북지방과 강원영동지역간의 문화교류를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에 수많은 선사유적이 있지만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사적(國家史蹟)으로 지정되는데, 조양동 선사유적은 「국가사적 제376호(1992.10.10)」로 지정되었다.

또한 정확한 연대는 가능할 수 없지만 각 성씨(姓氏)들의 족보를 보면 조선시대 중기 후

반부터 연안김(延安金)씨, 안동김(安東金)씨, 여양진씨(驪陽陳)씨, 안성이(安城李)씨 등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으로 추정된다. 구한말 중추원의관을 지낸 문관 김사권(金思權)님, 도천면장을 지낸 김우규(金雨圭)님이나, 일제강점기 시절 온정리에서 한학을 가르친 진동규(陳東奎)님도 온정리 출신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1919년 4월 4일 이후 온 천지가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하는 상황이라 부월리 논산리 마을 사람들도 도천면 중심지인 대포리로 가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큰 인명피해를 우려한 면서기(面書記)의 만류로 무산되었던 기록이 전해진다.

비록 개인이 만든 약도처럼 생긴 지도이지만 우리지역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지도로서 최고로 오래된 지도가 있는데, 참봉(參奉, 조선시대 종9품 벼슬)을 지낸 안동김씨 김명규(金明奎)의 조부모(祖父母)님의 묘(墓) 위치를 작성한 지도이다.

융희2년(隆熙, 조선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즉위하면 사용한 연호) 서기 1908년에 제작된 이 지도에는 주교리(舟橋里)에는 8가구에 15명이 살고 있고, 방축동(防築洞)에는 8가구에 31명이 살고 있으며, 온정리(溫井里)에는 8가구에 15명이 살고 있다고 적혀 있다.

주교리는 현재의 부월리이며, 방축동은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인근으로 추정된다. 또한 묘를 기준(빨간색 원안쪽)으로 좌측에 온천(溫泉)이 있으며, 우측에 우물(井)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온정리 마을에 가면 이 지도를 이용하여 만든 큰 비석안내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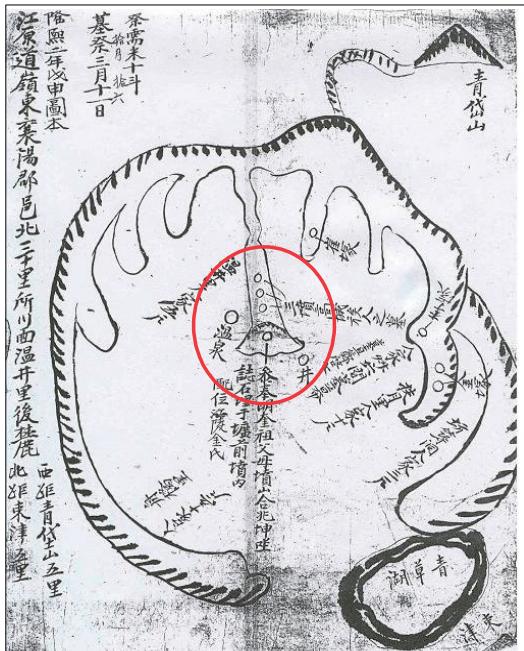


사진2. 참봉명규조부묘 위치도 – 출처 : 속초아끼기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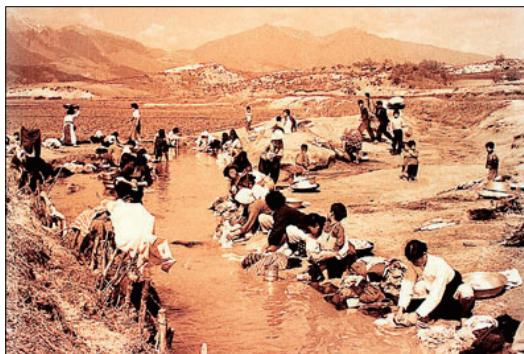


사진3. 부월리 온정천(溫井川) – 출처 : 속초시사



사진4. 온정리 우물터

온정리의 우물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지금도 물을 받아먹을 수 있게 긴 파이프를 연결해놓았다. 물이 왜 따뜻한지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지만, 서울 종로 훈정동과 청성동에도

더운 우물이 있다고 한다. 아침 해가 뜰 무렵 따뜻한 수증기가 햇빛을 받아 안개처럼 보이는 장관을 보고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선생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야8경(所野8景)”에서는 “온정조하(溫井朝霞)”라고 했다.

그만큼 아침햇살에 비취진 온정리의 모습이 속초를 대표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이다.

지역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주교리(지금의 부월리)와 온정리 마을 사이에 조그마한 하천이 있었고(사진3으로 추정), 옛날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 철도가 주교리마을 뒷편을 지나 온정리 중앙을 관통(사진1의 파란색 원 안의 우측선)하여 지나갔다고 한다.

온정리와 주교리사이 남쪽에는 “솟깨(일명 “솟개”)”라는 ”뻘“이 있었는데, 동네 꼬마들이 모여 조개를 잡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또 다른 대형 건축물들이 속속 신축예정에 있어 온정리 고유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그렇다고 세월이 변함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잃어가는 옛 모습과 더불어 계승해야 할 옛것을 찾으려하는 마음(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달이 뜨는 마을 부월리(扶月里)

옛날 조양동(朝陽洞)의 중심 마을이다.

도문면과 소천면에 하나밖에 없던 ‘주막(酒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장사가 번영했던 마을로 생각된다. 전통적인 마을인 부월리는 인구 증가는 더뎠지만 마을 자체에서 늘어나는 인구와 외부로부터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청초호를 막아주는 긴 사주가 새로운 주거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곳은 일제시대 주도로가 나있는 상황이었지만 일제의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개발이 금지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취락의 형성이 늦었는데 1945년 이후의 월남민과 한국전쟁 중 남하한 피난민은 귀향하기에 쉬운 사주일대에 피난민촌을 건설하여 오늘날 속초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지금의 속초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세워가 그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朝鮮) 영조(英祖) 36년, 1765년에 발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적혀있는데 ‘포(浦)’라고 불리었던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청초호수의 물이 마을까지 들어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옛날 마을사람들에 의해 불리어졌던 마을지명을 보면 ‘숫깨’, ‘영깨’라는 연못이 마을의 동쪽과 남쪽에 있었고, ‘주교리(舟橋里, 배다리,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라



는 마을이 부월리에 있었음으로 보아 ‘포(浦)’가 있었을 확률이 높다. 또한, 맑은 날이면 부월리쪽에서 이어지는 사구(沙丘)를 이용해 속진리쪽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주교리에 거주하시던 이광수(67)씨가 부친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6.25전후까지는 맑은 날이면 사구가 보여 부월리쪽에서 속진리쪽으로 갈 때면 이 길을 이용했었다고 한다. 1928년에 발행된 아래 엽서를 보면 현재 중앙동쪽 앞에 사구 및 다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부득’이라는 들판이 부월리(扶月里)마을 앞(지금의 고속터미널인근)에 청초호(靑草湖)를 끼고 있었는데, 반(半)은 호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두득’으로 변하였다고 하며, 한자(漢字)로는 ‘반부평(半浮坪)’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월리(扶月里)의 한자를 ‘부(扶)’를 사용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름의 유래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헌기록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전에는 ‘반부평(半浮坪)’처럼 ‘뜰부(浮)’자를 쓴 것이 그 후 ‘도울 부(扶)’자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반부평의 의미도 ‘뜰의 반은 물에 뜬’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월(浮月)은 물 위에 뜬 달이 된다.

강릉(江陵) 경포(鏡浦)에도 ‘호수의 달’이 있듯이, 청초호(靑草湖)에도 달이 비쳐 마치 물 위에 뜬 것 같다고 하여 ‘부월(浮月)’로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야

8경(所野八景)에도 호수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갈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고 하여 ‘청호마경(靑湖磨鏡)’이라 불렀다.



속초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80년 전 우편엽서.

- 출처 : 설악신문 -

1765년에 발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부월리(부월리+온정리)의 인구는 86명으로 1925년에는 47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전쟁이후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의 증가로 기존의 ‘속초1구~4구’외에 ‘5구’와 ‘6구’가 신설됨과 동시에 ‘부월리’가 ‘부월리’와 ‘온정리’가 분리되면서 부월리 인구는 514명, 온정리 인구는 279명으로 총 79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8세기 와 20세기초 속초의 리(里)별 인구														
구분	장항리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물치	대포	외옹치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	속진리	합계	
1765년	호 구	20	20	-	35	18	34	78	18	20	-	86	58	387
	인구수	승49	66	-	126	52	104	238	86	97	-	281	175	1,274
1925년	호 구	50	129	92	27	86	155	93	84	95	119	189	-	1,119
	인구수	214	741	541	174	468	777	463	476	572	735	1,058	-	6,219

출처 : 여지도서, 면세일반

부월리에는 경주 이씨, 안동 김씨, 제주 고씨, 연일 정씨 등이 오래전부터 살았는데, 그 중 경주이씨는 ‘오성과 한음’의 주인공인 경주이씨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국당공파(菊堂公派) 후손들이 살고 있다. 부월리와 논산리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선생의 고손자인 김매순(金邁淳, 1776년~1840)의 시문집인 『대산집(臺山集)』에는 ‘서리씨가장고조고시독등본후(書李氏家藏高祖考詩牘贍本後)’라는 글이 있는데, 이민행(李敏行) 후손이 자신의 고조부(高祖父) 김창흡(金昌翕, 1653~1722)과 이민행이라는 사람과 오고간 시와 편지를 베껴 보존해오던 첨을 본 뒤 쓴 글이라고 한다. 김창흡이 설악산(雪嶽山)에 영시암(永矢庵)을 짓고 은둔하던 시절 양양(襄陽) 청초호(靑草湖)에 살던 이민행과 교유하고 그의 두 아들 이진래(李震來)와 이진호(李震豪)를 가르치면서 써 준 시와 편지를 이진호의 아들 이방억(李芳億)이 보존하고 있다가 화재로 사라질 뻔했으나 자신의 아버지 이진호가 김창흡의 필적을 모방하여 베껴 둔 것 때문에 옛 모습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제강점기시절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 4월 4일부터 계속 만세 시위가 일어나 부월리, 논산리에서도 시위에 대한 대의명분론(大義名分論)이 일어났다. 원래 이 마을에는 중심인물이 될 만한 김주혁(金周赫)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강원도 청 주사(主事)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는 없었지만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온 천지가 만세 시위에 참가하는 상황이어서 당시의 이장 김주철(金周哲, 김주혁의 종형)은 고광화(高光華), 황명찬(黃明燦), 박명원(朴明元), 고을주(高乙柱) 등과 함께 주동하여 집집이 한 사람씩 동원하여 논산리에서 경찰주재소가 있던 대포리로 가기 위해 큰 길로 나아갔다. 큰 길이 있는 부월리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도천면 사무소 수석서기 김우규(金宇圭)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대량학살 등 인명피해를 예상한 김우규의 강력한 만류로 주민들은 대포리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해산하였다. 이 만세시위로 김주철, 고광화, 황명찬, 박명원, 고을주 등은 검거되어 양양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은 후 함흥 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김주철을 제외한 4명이 90대의 태형을 겪었다. 태형을 겪은 4명은 이를 동안을 가마에 엎드려 돌아왔고 집에서는 그 해 연중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하였다고 한다. 김우규님은 이석범 면장이후 1919년~1928년까지 도천면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부월리에는 마을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에 비석(碑石)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아니 필자도 고등학생시절 향토답사시간에 부월리를 방문했었는데 분명히 보았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각자된 글자가 희미해져 전문(全文)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국사당당선생님이자 담임선생님이셨던 탁창식 선생님(前 남춘천중학교 교장)께서는 “관찰사 공덕비(觀察使 功德碑)”라고 하셨다.

그러나, 마을에 도로가 생기면서 누군가가 선사유적지 북동쪽 경사면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는데, 현재 비석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아쉬운 실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석이 있는데, 부
월리 마을 우물가
앞에 위치한 공덕
비로 추정되는 비
석인데 『전국문화
유적총람』에 따
르면 비석전면에
유학이공진영영세
불망비(儒學李公鎮
永永世不忘碑)라고
적혀있으며, 구장을
엮임한 이공의 공
덕을 기리는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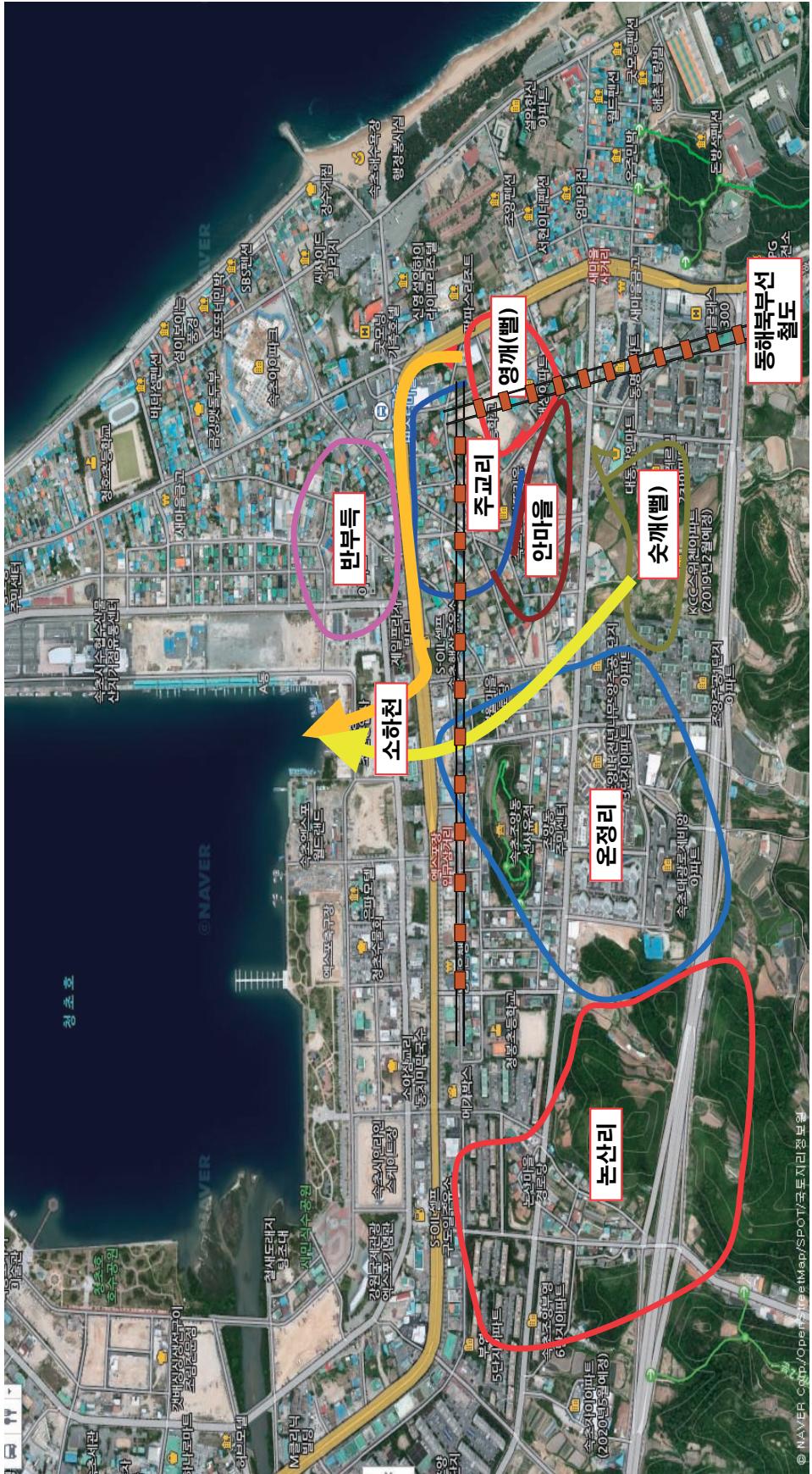
- 유학이공진영영세불망비(儒學李公震永永世不忘碑) -

이 각자되어 있으나 마모되어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후면에는 광서(光緒) 6년(즉 1880년) 8월 4일에 건립되었고, 건립자 ‘김00, 이00, 박근신 주사(主事)’라고 적혀있다.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는 보통 마을에 큰 혜택을 준 관리나 유지들에게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는데, 관리의 경우 보통 ‘부사 000’, 또는 ‘군수000’으로 시작하는 데 이 곳의 경우 ‘유학 이진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이 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이 마을에 사는 경주(慶州) 이진영(李鎮永)의 큰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부월리 마을 (증언 : 부월리 출신 김지운님)



노학동의 전통부락들

(노리, 응골, 도리원,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 학사평, 자활촌)

예전엔 사람이 거주하였을지 모르겠으나, 행정지명은 없던 마을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속초, 부월, 논산, 노리, 대포, 외옹치, 내울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장항리)를 두면서 ‘노리’라는 명칭이 생겼다.

소야팔경(所也八景)의 내용 중에 ‘노동명월(蘆洞明月)’이 있는데, 갈대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 위에 달이 환하게 비치니 그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그중 ‘노동(蘆洞)’이란 동네가 지금의 노학동 노리이다.

노리

노리는 현재 노학동(蘆鶴洞)의 중심 마을이며,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라고도 했다. 이전에 행정상 노학동(蘆鶴洞) 지역 전체를 관할했으나,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동시에 인구 증가에 따라 노리(蘆里)가 노리(蘆里), 도리원리(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로 나뉘어졌다. 그러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지역이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이 되었다.

속초지역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자 속초지역 서쪽으로의 즉 산악지대쪽으로의 주거지 마련이 필요했고, 노리는 그 개혁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유입된 인구는 이곳을 시작으로 농토를 만들어가면서 취락이 농토를 따라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 후기에는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었다. 이는 산악개발의 전진기지였던 노리를 시작으로 점차 서쪽으로 농토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18세기와 20세기초 속초의 리(里)별 인구														
구 분		장항리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울치	대포	외옹치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	속진리	합계
1765년	호 구	20	20	-	35	18	34	78	18	20	-	86	58	387
	인구수	승49	66	-	126	52	104	238	86	97	-	281	175	1,274
1925년	호 구	50	129	92	27	86	155	93	84	95	119	189	-	1,119
	인구수	214	741	541	174	468	777	463	476	572	735	1,058	-	6,219

출처 : 여지도서, 면세일반

응골

노리(蘆里)에서 청초천(靑草川)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蘆里)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속초의 지명』 중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명이 전해온다. 하나는 마을이 청대산(靑垈山), 두루봉 등 앞(남쪽)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도 하였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지명이 무수히 많으므로 이 설명이 타당한 것을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스님이 시주를 왔을 때, 스님의 시주에 잘 응해주었다고 하여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응골의 ‘응’자로 ‘응할 응(應)’자를 쓰는 것에 착안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리원(桃李源)

노학동(蘆鶴洞) 지역 동북쪽 둔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전에는 노학동(蘆鶴洞) 지역이 전부 중심 마을 노리(蘆里)에 속하였듯이 본래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蘆里)에서 분리되었다가, 1960년 동(洞)제 실시에 따라 다시 노학동(蘆鶴洞)으로 합쳐졌다. 한자(漢字)로는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유래에 대하여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桃李源)’이라고 하였다곤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숭아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 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 리(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아마도 도리원과 이목리가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의 마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오얏 리(李)’는 도리원과 이목리 사이에 많이 있던 오얏나무(자두나무)로 인해 생긴 것 같다.

도리원이 인구가 적어 노리(蘆里)에 속할 때, 노리(蘆里)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漢字)로 유래와는 관계 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이목리(梨木里)

노리(蘆里) 북쪽 골짜기 마을인데, 이전에는 노학동(蘆鶴洞) 지역이 모두 중심 마을 노리(蘆里)에 속하였듯이 이목리(梨木里)도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다시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됨.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漢字)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라고 표기한 것이다.

소야팔경(所也八景)의 내용 중에 ‘이동백설(梨洞白雪)’이 있는데, 여기에 이동(梨洞)이란 ‘뱃골’이란 곳이 있는데 배나무, 오얏나무가 많았으며 지금의 이목리를 말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때 물지각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그 경치가 없어졌다고 한다.

척산리(青山里)

이전에는 노학동(蘆鶴洞) 지역이 모두 중심 마을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므로 척산(青山) 역시 노리(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蘆里)에서 분리하여 척산리(尺山里)라고 하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다시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되었다. 온천이 개발되어 척산(尺山)온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척산(尺山)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속초의 지명」에 의하면 몇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 농사철에 마을 뒷(남쪽)산의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둘째, 마을 뒷(남쪽)산이 마치 곡척(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세째, 동네 사람들이 길쌈을 많이 하여 피륙이 마치 산처럼 쌓인다고 하여 척산(尺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모두 척산(尺山)의 척(尺)이 '자 척(尺)'자 이므로 이것과 관련하여, 또는 자가 옷감을 재는 기구이므로 옷감, 피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두 후대에 한자(漢字)의 뜻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척산(尺山)이라는 이름은 마을 뒷(남쪽)산에 있는 목우(牧牛)재라는 고개와 관계가 있다. 고개, 즉 재가 있는 산이므로 '잿산'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漢字)로 '척산(尺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척(尺)자는 재(자와 재는 서로 통한다.)를 나타내는 훈(訓)을 딴 글자이며, 재 즉 고개라는 의미로 전국 각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한편 '척(尺)'자가 조선시대 군사적 용어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맞다면 '딴봉마을'에 있었다는 조선시대 수군(水軍) 사령관 관사(館舍)였던 '만호첨사유하지'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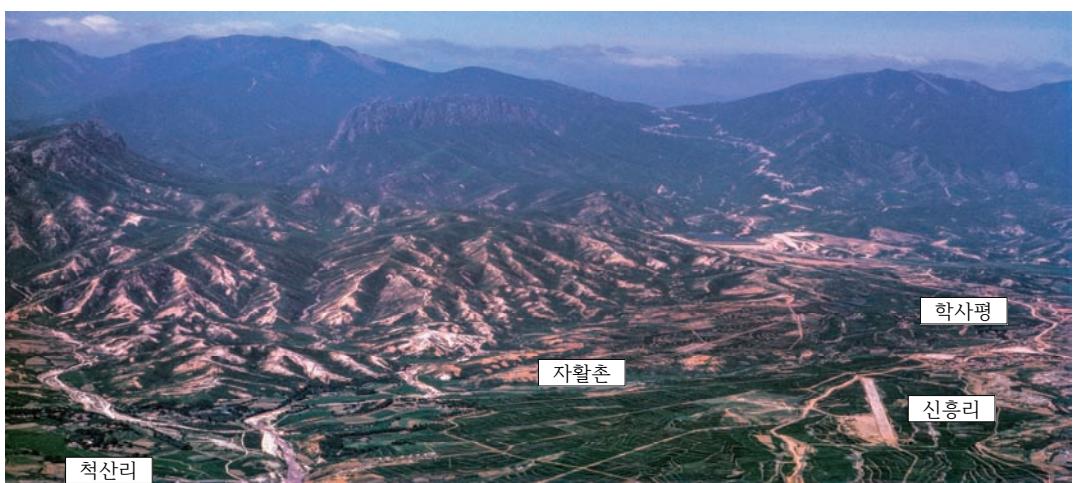
신흥리(新興里)

5.16 혁명 후 군사혁명정부의 개간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해 와서 '뒷버덩'에 새로 일으킨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1963년 동(洞)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리(新興里)라는 지명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도 미군 전용 비행장이 있었다.

학사평(鶴沙坪), 자활촌(自活村)

학사평(鶴沙坪)은 전통적으로 행정상 독립된 동리를 이루지 못하고, 척산리(尺山里)가 노리(蘆里)에서 행정상 분리되기 전까지는 노리(蘆里)에 속했고, 1942년 노리(蘆里)에서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李木里), 척산리(尺山里)가 분리된 후에는 척산리(尺山里)에 소속되어 오다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노학동(蘆鶴洞)에 속하게 되었다. 노학동(蘆鶴洞)의 '학(鶴)'자는 '학사평(鶴沙坪)'에서 따온 것이다.

'학사평(鶴沙坪)'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鶴)'자를 써서 학사평(鶴沙坪)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발'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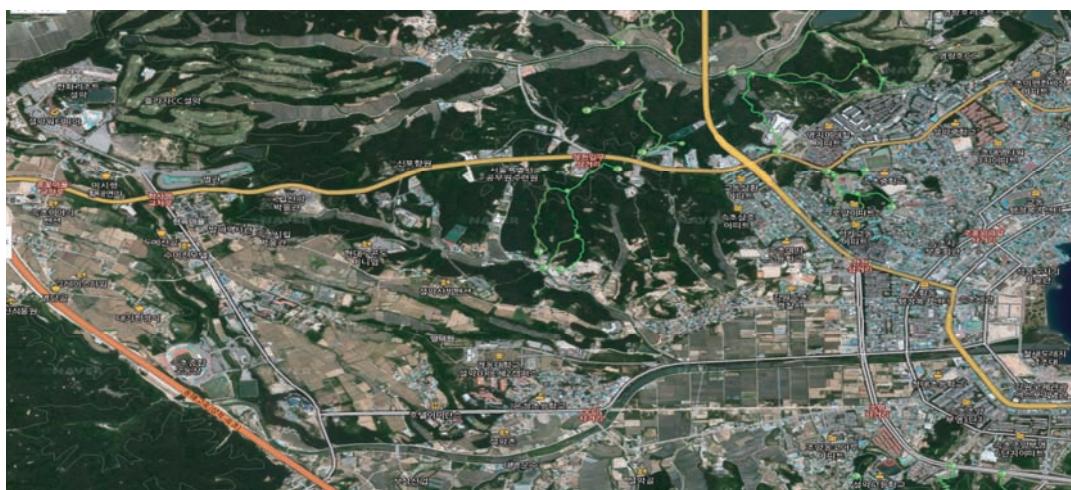


<1960년대 노학동 일부(척산리, 자활촌, 학사평, 신흥리)> ※ 출처 : 디킨슨 기증

자활촌(自活村)은 학사평(鶴沙坪) 벌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1961. 8. 23 군사 혁명 정부에서 깡패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모아서 학사평(鶴沙坪) 벌판에 집단 거주시켜 농토, 농기구 등을 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으므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자활촌(自活村)’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며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와 ‘바람꽃 마을’이라고 마을이름을 변경하였다.

노리, 응골, 도리원,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 학사평, 자활촌이 현재는 노학동으로 통합되어 1980년대에 속초경상전문대학(현,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이 설립되고, 한화설악콘도(구, 명성콘도)가 들어서고, 미시령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의 요지가 되었으며, 속초시 관내 8개 행정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변하였다.

다만, ‘도리원 농악’ 등 마을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참고문헌

- 『속초의 지명』, 1990, 속초문화원
『속초의 옛 땅이름』, 2002, 속초문화원

속초의 역사와 이해

지은이 정상철

발행처 속초문화원

발행인 김계남

발행일 2018. 12. 17.

편집인 양용석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에 있으니 무단전재를 할 수 없으며
전재시에는 문의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속초시의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속초문화원

속초시 번영로 155

TEL.(033) 632-1231 FAX.(033) 632-1241

E-mail. sc2439@kccf.or.kr

속초의 역사와 이해

 속초문화원

